절망의 극복

임동선 지음

머 리 말

특수 목장에서 공군 군목으로 십여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금번에 만기예편(滿期豫編)하게 되었음을 먼저 하나님과 전국 여러 성도들에게 거듭 감사하는 바입니다.

예편 이후 좀더 충실한 전도자가 되고자 공부차(신학 연구) 해외로 떠나려고 하는 중 몇 분들의 권면으로 설교집을 발간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4편으로 나누어서 수록된 열 여덟 개 제목의 설교는 전국 교회와 각 학교 및 3군(육, 해, 공) 장병들에게 이미 전했던 설교 중에서 간추린 것입니다.

"말보다 글이 좋아야 하고 글보다 생활이 좋아야 한다"는 것과 같이 막상 글을 써보니 글 쓰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읍니다.

이 설교집은 글로만 쓴 것이 아니라 부흥회 인도 중 녹음한 것을 정리하여 기록된 것도 여러 제목 있읍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책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고, 또한 오늘날 한국 교계가 속화와 신비주의로써 극도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 시기에 다소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읍니다.

끝으로 이 설교집을 완성하기까지 여러모로 협력하여 주신 선우명숙(鮮宇明淑) 집사님과 밤을 새워가며 원고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었던 나의 아내와 교열 및 교정을 담당하여 준 김충남(金忠男)군에게 독자와 함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1965년 4월 3일

남산 밑에서 지 은 이 씀

3판을 발간하면서

20여년전(1965년), 공군 특수 목장을 떠나오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 저의 첫 설교집 "절망의 극복"을 내놓았읍니다. 그후 8년 후에 재판을 발행하였다는 것도 얼마후 절판이 되었읍니다.

금번 양서각 사장 박연서 장로님으로부터 3판 발간의 권유를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허락을 하였읍니다. 간혹 동역자들로부터 이 설교집이 목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부끄러우면서도 위로가 되었읍니다.

이민 목회자로 시간이 쫓기는 이유도 있지만, 원색적인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아무런 수정이나 보충도 없이 금번 3판을 발간하게 되었읍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와오므로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가 일어나 신자들을 미혹하고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기계 문명은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오고, 경제 성장으로 물질이 신격화되고, 생활의 여유가 향락과 도덕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계는 날로 속화되어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상실해 가며, 살인 무기는 지구를 화약고로 만들어 전 인류

의 생존을 극도로 위협하는 현실에서 이 설교집이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한 새로운 젊은 동역자들에게 목회에 도움이 된다면 기쁨이 되겠읍니다.

끝으로 표지를 그려 주신 주 안에서 형제된 화백 심재현 장로님과 3판 뿐만 아니라, 제 2 의 설교집 "스스로 개척하라"(1985)와 저의 신앙수기 "땀은 흘려도 기쁨은 샘물처럼"(1982, 미국서 출판)의 재판을 아무런 조건없이 출판하여 주신 서울 양서각 사장 박연서 장로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987년 5월

미국 나성동양선교교회

임 동 선 목사

추천의 말

설교는 인격(人格)이다. 다시 말하여 설교는 우연(遇然)의 소산이 아니다. 설교 행위는 평생 동안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교 행위(說教行爲)가 그대로 그 설교자의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결코 우연의 표현일 수가 없다. 다른 한편, 설교는 기술(技術) 그 자체도 아니다. 우리가 설교자에게서 기대하는 바는 예술인이나 연예인에게서 찾는 연기(演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연적 소산(遇然的所産)에 이유가 있는 만족을 찾는다고 하면 창작 세계(創作世界)가 있다. 기술과 연기에서 만족을 추구한다면 무대(舞台)가 따로 있다. 그러면,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여 주는가. 신앙인(信仰人)의 인격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의 설교는 교회 회중으로 하여금 깊은 영혼의 근저(根底)에서 감동을 준다. 이러한 영혼의 감동과 공감은 기술이 주는 것이 아니다. 우연한 해프닝(happening)이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의 호소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인격적 요소(人格的要素)가 설교자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은 평생을 다하여 설교로 일관한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소위 "프로(professional)"가 없다는 경고(警告)이다. 기술자나 연기자에게는 "프로"가 만족을 준다. 그러나, 설교 행위에서는 "프로"의 냄새는 시신(屍身)의 냄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내실(人格的內實)이 없는 "우람한 목소리(a holy voice)"나 복음과 상관이 없는 재담이나 익살이나 쓸데없는 험담이나 풍설의 전개는 깊은 곳에서 저항을 받는다. 참 설교자는 그 한 번의 설교가 최후의 설교라고 의식하는 영원한 겸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는 간절하다. 그의 설교는 절규(絶叫)이다. 그의 설교는 눈물이요 오열이 함께 한다. 그의 설교는 소위 "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프로"연(然)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나는 내가 존경하는 임동선 목사님에게서 그 인격적 설교(人格的說敎)의 간절함을 전도(傳導)받는다. 그 분의 설교는 몸부림이 있다. 눈물과 절규가 있다. 내가 그 분의 설교를 처음 접한 1950년대나 그 후에 내가 서울신대 학장 대행을 하던 시절 그 분이 교내 부흥회를 인도하신 때나 한결같이 변화가 없으시다. 그의 설교는 화산의 분화구에서 토하여 타는 열화와 같다. 그러다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망연자실(忘然自失)한 쓰러진 엘리야와 같은 독백과 호소가 있다. 그 분이 하늘로 두 팔을 쳐들고 쉰 목소리로 절규할 때에는 어느덧 내 볼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는 그 분의 표현된 인격에서 나의 삶의 복제(復製)를 경험하며, 그 분의 희열에서 나의 희열을, 그리고 그 분의 고함소리에서 나의 "예수 찬양"의 고함을 의식(意識) 속에서 천동(天動)처럼 느낀다. 왜 그런가 그 분의 인격이 참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설교 인격을 걸어 평생 예수의 감격(感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서 여기에 설교집 「절망의 극복」을 펴 내셨다. 나는 이것이 설교집이다라고 감히 말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분의 설교 인격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설교에 접하고 싶은 신앙인들이여, 이 설교집을 읽으시라. 그리고, 그의 "메시지(message)"를 통하여 현장적(現場的)인 "마사지(massage)"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이들이여, 나성에 있는 그 분의 강단을 어렵지 않게 찾아갈 것이다.

1987년 1월 30일 서울신대의 집무실에서.

서울신대학장 이 상 훈

차 례

제Ⅲ편 신앙과 생활

제Ⅳ편 현실과 소망

제 I 편

인격의 변화

새 사람

성령 충만

진정한 회개

바울의 회심

새 사람
(요한복음 3 : 1-15)

니고데모는 바리새교인이며 국회의원으로서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읍니다. 바리새교인이라 함은 가장 정통적 교리와 경건한 신앙을 가진 종교가로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것이나, 십일조를 드리는 일이나, 안식일(安息日)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사업도 열심히 하는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시고 가면(假面)되고, 거짓되고, 죄악이 가득함을 책망하여 "거듭나야 한다"고 교훈하셨읍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을 보시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외면적으로는 인간의 갖출 바를 다 갖추어 모자람이 없지마는 내면적으로 신앙이 순수하지도, 투철하지도, 깨끗하지도 못한 자칭 유대 민족의 지도적인 종교가였음을 보시고 책망하여 "네가 거듭나야만이 영혼(靈魂)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했읍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구원이라 하면 학습, 세례, 성찬예식이나 직분을 받고, 연보나 내고, 새벽기도를 잘 다니면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있지만 이것은 외형적(外形的)인 것뿐이고, 내형적(內形的)인 것에 이

른 참 구원은 법대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명분을 받고 마지막 영생(永生)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새 사람이란 무슨 뜻인가?

불교에서는 이를 "진아(眞我)" 또는 "우주아(宇宙我)"를 찾는다고 하며 또는 실존주의(實存主義)자들은 자기 실존을 찾는 것이라 합니다. 병든 문명과 퇴폐한 일상성(日常性), 대중과 기계, 발광적인 향락주의 속에서 본래적(本來的)인 자기를 잃어버리고 비본래적 자기로 떨어져서 자기 실존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모름지기 인간은 먼저 자기의 실존(實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술어(述語)로는 새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즉, 생명(生命)의 개변(改變)을 말함이요 인간 본연의 참 모습을 뜻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나는 참 내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적이고 물질적인 지체 밖에 될 수 없읍니다마는 인격이 주체가 되는 영원한 자아(自我)와 생명, 곧 하나님의 형상(形象)으로 된 자아를, 잃어버렸던 영혼의 실존을 다시 찾는다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겠읍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나라는 자체를 가장 가까운데 두었지만 가장 먼 곳에 있는 것과 같이 알지 못하고 흘려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생(生)을 받아 어느 시기에 가서 필연적(必然的)으로 학문을 배우는 데 16년이나 혹은 18년 동안 문학, 수학, 문리, 과학, 지리, 역사,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 어학 등을 오랜 동안 연구합니다마는 인간이 자기발견(自己發見)과 영원한 자기를 발견하는 학문을 닦는 데는 등한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영(靈)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어떤 대학교수가 말하기를 요새 "학원내를 파고 들면 겉으로는 웅장하지만 내용은 너무나 빈약해서 비었다"고 했읍니다. 사실 우리들 학원은 지식이라는 기반에 인격적인, 사상적인, 도덕적인 충실(充實)과 나아가서는 영원한 영적(靈的)인 자기실존(自己實存)을 발견하여 보다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하여 민족 앞에 정신적인 등대(燈臺)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학자 말부랑슈(Malebranche)는 말하기를 "인간학(人間學)이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귀한 기본되는 학문이나 그러나 가장 뒤떨어졌다"고 했읍니다. 참으로 타당한 말입니다.

제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동경만 미조리 함상에서 일본의 항복 조인(降服調印)을 받을 때 남긴 "이제 후로는 무력적인 것보다도 신학적인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짧고도 중요한 말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며 생명(生命)을 존중히 여기는 신학적(神學的)인 세계만이 인류의 평화를 보존할 수 있다는 의미있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네 자신을 알라"고 우리 인간에게 참된 진리로써 경성시켜 주었읍니다. 오늘의 철학의 경향은 인간이 자연으로 더듬어 올라가던 때와는 달리 인간 내재의 참 사람을 찾아들고 있읍니다.

쇼펜하우워가 어떠한 사건을 골똘히 사색하면서 길을 걷다가 마주 길을 걸어오던 사람과 부딪치고 말았읍니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기에 앞도 보지 못합니까?"라고 책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때 그는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오'라고 철학적인 대답을 한 것은 진정 가까이 있는 자기를 찾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찾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제자들에게 "먼저 네 몸을 닦으라"고 했고, 석가가 "먼저 네 몸을 멸하라"고 함은 얼마나 자기 발견이 긴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를 찾아 올바르게 사는 사

람은 생(生)의 성공을 이룬 자요, 아직 자기를 찾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참 자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각 희비애락(喜悲哀樂)을 맛보며 살아갑니다마는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깨닫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읍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우스운 이야기가 있읍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숯을 구워 장으로 팔러다니는 사람이 있읍니다. 하루는 장에 와서 이곳 저곳을 구경하다가 어느 상점에서 이상하게 번쩍이는 괴물을 보았읍니다. 그것을 집어들고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나는 대로 연구하여 보았으나 알 수가 없었읍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이 무엇이요?" "당신의 얼굴을 비추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 때에 이 사람은 비로소 자기를 볼 수가 있게 되었음을 알았읍니다. 그리하여, 그는 너무나 신기해서 거울에 비친 코, 눈, 입 등을 정신없이 들여다 보다가 숯 판 돈 얼마를 주고 그것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소중한 것이라 광속 깊은 곳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자기"라는 생각이 나면 광속으로 들어가서 보고는 혼자 좋아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을 본 그의 아내는 남편 몰래 거울을 찾아 보고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호소하기를 광속에 예쁜 여자를 갔다 두고는 좋아한다고 남편의 비행(非行)을 고했읍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광속으로 뛰어가서 거울을 보고 나와 하는 말이 늙은 할머니를 갔다 두었으니 염려말라고 하더랍니다. 과연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고부(姑婦)는 얼마나 엄청난 오해를 했겠읍니까? 그들은 여태껏 자기의 용모를 본 일이 없음을 알 수 있읍니다. 과연 우리들도 영혼의 사람인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어두움 속에서 자신은 물론이요, 죄(罪)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매한 인간을 흔히 볼 수가 있읍니다. 그저 세상 일만 생각하여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알고 자나깨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생(生)에 급급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이 인생 길을 가는 동안 참 자기를 알고 그 가치를 파악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의 문제는 철학적인 고찰이고,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윤리적인 문제요,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참 자기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을 취생몽사(醉生夢死)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참 자기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 때 가장 짧고도 굵게, 또한 빛나게 사심으로 초인간적(超人間的)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산제사를 드렸읍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 오늘날 온 세계 인간들의 양심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참 자기를 알게 하여 주셨읍니다.

2.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

어떤 술주정뱅이가 정신없이 술을 마시다가 마침내 의기양양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대로 지껄입니다. 술주정이 시작되고 큰 길을 좁다고 비틀 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던 중 더러운 시궁창에 거꾸러졌읍니다. 입에서는 더러운 오물(汚物)이 쏟아져 나옵니다. 길가던 개가 핥아도 알지 못하는 비천(卑賤)한 인간이 되었읍니다. 때마침 쏟아지는 소낙비도 알지 못하고 쓰러진 채 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들 알 길이 있겠읍니까? 애매한 가족들의 비운(悲運)의 한숨을 그는 들을 길이 있겠읍니까? 자기의 발견은 고사하고 가정과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쳐주는 쓸모없는 불쌍한 인간이 아니겠읍니까? 우리는 땅위에 왔다가 사회나 동포에게 이(利)를 끼치고 이름을 길이 남기고 가야 하지 않겠읍니까?

어떤 사람이 부친의 상(喪)을 당하여 생전(生前)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학자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부친의 묘 앞에 비석을 세우겠으니 추모할 만한 명언(名言)을 써 주십시오"라고 하니 학자가 생각하던 끝에 "너의 춘부장께서 생전에 남에게 무슨 덕화를 끼쳤느냐?"라고 했읍니다. "못했읍니다." "그러면 무슨 악덕한 일을 했느냐?" "그런 것도 없읍니다." "그럼 알았다." 하더니 종이에다 "먹다, 죽다"라고 써 주었답니다. 과연 두려운 것은 우리의 일생(一生)을 무의미하게 허송하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먹다죽은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목적을 위하여 살고, 살기 위하여 먹는다는 인간의 가치기준(價値基準)을 높이 두어야 되겠읍니다.

칸트의 말을 빌리면 "인간(人間)은 목적(目的)을 위한 삶이요, 수단(手段)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읍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이 회중에 역사하시니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감화되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읍니다. 그 때 제각기 자기의 부족을 고백했읍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다 가슴을 치고 자기의 죄과를 안타깝게 애통하고 뉘우칩니다. 지나가던 몰지각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이 제일 죄인이 많구만!" 하고 자기의 죄성(罪性)은 전연 무감각하게 넘기며 양심을 두드려 볼 여념이 없었읍니다. 아! 성령의 빛이 아니면 자기의 자체를 깨달을 수도 없고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니 이 때 우리는 한층 더 경성해야 되겠읍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유치장에 들어갔읍니다. 거기에는 다른 전과자(前科者)들이 있었읍니다. 그 전과자들은 "당신이 어째서 여기 들어왔소"라고 동역자를 구하고 자위(自慰)받으려는 듯 물었읍니다. "소고삐를 잡았더니 소가 끌려옵디다"라는 우스운 사실 속에 웃지 못할 이

야기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받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죽어진 자아(自我)를 탄식할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옥의 함정 속으로 던져 버려질 자기 본체를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가련한 인 인생이었읍니다.

새 사람 되지 못하는 사람의 심령 상태는 거짓과, 외식과, 불의로 가득차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가죽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했읍니다. 마가복음 7장 21-23절까지에는 새 사람 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열 세 가지로 구분했읍니다.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한 말씀이나, 갈라디아 5장 19-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는 말씀이나, 로마서 1장 29-31절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는 말씀 등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칼 샌벍(Carl Sandburg)이라는 시인은 "사람의 마음은 꼭 동물원 같다. 동물원 속에는 각종 짐승이 있는데 자랑하기 좋아하는 교만한 공작의 마음과, 혼자만 먹겠다는 욕심 많은 돼지 같은 마음, 남을 해하려는 뒷발질 잘하는 말(馬)과 같은 마음, 감정과 오해로 칭칭 감는 뱀과 같은 마음, 염소같은 음탕한 마음, 진흙탕에서 살아가는 추잡한 개구리 같은 마음, 남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 같은 신경질, 남의 흉

을 잘 보고 남을 타고 올라가려는 원숭이 같은 마음 등", 이래서 사람의 마음은 마치 동물원과 같다고 했읍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인간의 마음을 이층집과 같다고 표현했읍니다. 아랫층은 야성적(野性的)인 마음이고 윗층은 이성적이므로 늘 갈등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한다"고 했으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을 하며 선한 마음이 악에게 지지 않기를 갈구(渴求)했읍니다. 이와 비해서 인간의 마음은 뜨물독과 같이 아침 일찍 보면 고요히 가라앉아 맑지만 막대기로 저어 볼 것 같으면 김치 찌꺼기, 밥풀, 생선뼈, 콩나물 꽁지 등 더러운 것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사람도 훌륭한 학식이나 갖추고 외모나 말끔하면 다 신사, 숙녀 같지만 이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허영, 사치, 거짓, 음란, 사기, 횡령, 물욕, 비평 등 말할 수 없는 더러움이 수두룩하여 깨끗한 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몇 겹으로 입혀서 보이지 않게 했으니 다행이지, 만일에 유리관 모양으로 환히 보인다면 대인(對人) 관계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즉, 먼저 남의 마음을 들여다 본다든지 내 마음을 다 내어 보인다든지 하면 누구를 존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마음을 서로 들여다 본다면 선생이 학생을 훈계한다거나, 법관이 남의 죄(罪)를 판결한다거나, 남녀간의 신의(信義)를 맺는다는 것이나, 성직자(聖職者)가 대중에게 설교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被造物)이라 똑같은 공장에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人物)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료는 같으며 그 교육수준과 종교심 여하에 따라 다소 다른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오는 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고 눈에 덮인 은세계에 만물이 깨끗한 데 인간의 마음을 비춰 그 발자국의 인상(印象)을 말하기

를 "닭의 발자국은 대잎사귀같이 절개와 신의와 존절을 보여준다"고 하며, 개가 지나간 발자국을 보고는 "함박꽃같이 송이송이 아름답게도 보인다"고 했으나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는 그만 머리를 흔들며 비관하기를 "천상 도둑놈의 발자국 같다"고 인간 본성의 죄됨을 단정하였답니다.

3. 새 사람 되는 방법

그러면 인간의 개조(改造)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어떻게 하여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읍니다.

(1) 성경 말씀으로 고칠 수 있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엿새 동안 천지만물(天地萬物)을 창조(創造)하셨으며, 생명을 불어 넣어서 역사를 꾸미고 이날까지 주관하시는데 인간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사실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이며, 성경을 많이 배우고 지키고 묵상하면 그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깨끗해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마음에 스며들어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자꾸 먹으면 복음적인 기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을 통해서 용기 백배하여 의(義)에 이르는 큰 역사를 이룩하였고,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를 보고 방탕한 생활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선다싱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읽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 프랜시스는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다가 그가 가진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상속을 얻기 위해서 비천한 자리까

지 자기를 저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고난을 자처했읍니다. 또한 스펄존은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는 구절에 깊이 감명되어 새 사람이 되어 영국 영계(靈界)에 큰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2) 기도로써 고칠 수 있음.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수신기(受信機)라고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原動力)이 되고 영적 생명이 사는 최대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가장 심각하고 은밀한 밀화(密話)의 시간이 되며, 하늘의 오묘하고도 신비스러움을 맛볼 수도 있는 유일의 길이며, 신앙생활의 정로(正路)를 발견하는 요체(要諦)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위업을 이룩할 때 매일 4시간 이상의 기도 시간을 가졌고, 그가 기도를 끝마치고 골방에서 나올 때 친구 필립 멜랑톤(Philipp Melanchthon)이 말하기를 "그대는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다"고 하였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 자태는 변화되어 성스러운 천사(天使) 모양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기도는 약한 인간으로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보다 깊은 사랑 가운데 끌리어 들어갈 때 그에 감격하여 자기도 사랑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보다더 높은 수준의 사랑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말씀을 기준해서 깊은 사색(思索)의 세계에 들어가 진리를 탐구하여 완전한 신앙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신자들은 기도라 함은 자기의 소원이나, 간청하는 것

으로 알기 쉬우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는 있어야 마땅하겠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자복하여 큰 일을 위하여 간구할 때 초자연(超自然)의 강력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는 나와 같이 의논하자"라고 하심같이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라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읍니다. 과연 기도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보고 믿음 위에 서서, 옛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을 힘입어 완전히 구습을 벗어버리고 능력있게 복음(福音)만 위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합시다.

(3) 성령으로 고칠 수 있음.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심같이 성령의 능력만이 인간을 새로 지을 수 있음을 말했읍니다. 한 예를 들면, 석탄이 있는데 좀 희게 하려고 물에 씻어 보았읍니다. 비누와 석유로 세탁하여 보았으나 역시 까만 물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석탄을 뜨거운 불속에 던져 넣고 얼마 후에 보면 흰 잿가루가 되었고, 검정색은 다 없어집니다. 마치 우리들의 죄(罪)된 몸이 옛 성품 그대로 있으면 까만 더러운 오점(汚點)뿐일 것이나 성령의 용광로(鎔鑛爐) 속에서 태움을 받을 때는 깨끗한 새 사람의 놀라운 신앙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비겁하고, 허영되고, 졸렬했지만 오순절(五旬節)의 성령이 옛 사람을 녹여버리고, 새 사람이 될 때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심은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심령에 울리는 계시적인 체험이며 나아가서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는 디도서 3장 5절 하반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했읍니다.

원죄의 품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이 성령의 힘으로 중생(重生)하며 새롭게 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후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였으매 얼마나 기쁜 일인지 성령 받아야만 되겠읍니다. 오늘날 성령받음으로 새 사람되는 사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읍니다. 도둑질한 세리가 새 사람 되어 전도자가 되었고, 음탕한 생활로 낙(樂)을 삼던 여인이 돌이켜 주의 사업에 생애(生涯)와 재산을 바치게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이곳 저곳 설 수 있게 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되겠읍니다.

(4) 믿음으로 고칠 수 있음.

사도행전 15장 9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히 하사" 라고 믿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을 말했읍니다.

믿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테우오(πιστεύω)인데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일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생활이 가장 필요합니다. 어떤 장님이 기차길로 된 다리를 건너가다가 멀지 않은 데서 기차 오는 소리가 들리므로 급한 마음에 다리 밑으로 몸을 늘어뜨리고 기다렸읍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기차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매달리기가 힘이 들어 기진(氣盡)해서 무진 애를 쓰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가소로와서 "여보세요, 그 손을 놓으시오. 위험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손을 놓으시오"라고 하였읍니다. 죽을 각오를 한 장님이 손을 놓으니 높이가 땅과 주먹하나 사이 밖에는 안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

진 고통이 편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의심을 품고 세상으로 향하는 지식과, 과학과, 향락을 붙잡고 매달릴 때 오히려 고통과 비애만을 초래하게 되었지만 십자가(十字架)라는 믿음 아래 내어 맡기면 고난과 역경이 문제가 아니고, 평안으로 이끌어 나가니 얼마나 믿음이 귀한 것이겠읍니까? 우리도 헛된 욕망과 의심을 버리고 범사(凡事)를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읍니다.

어떤 법관이 예수님 앞에 왔다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나이까?" 할 때 "네 재물(財物)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 그는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세상적인 재물 때문에 걱정하며 돌아갔다고 하였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얻기 위해 결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새 사람 될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신감과, 그 명분을 가질 수 있읍니다.

4. 새 사람된 사람의 생활

(1) 죄 짓지 않음.

요한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읍니다. 아무리 죄가 성하고 패역하고 무질서한 세파(世波)라 할지라도 새 사람을 이룬 심령은 죄 짓지 않습니다. 물오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몸에는 물 한방울 묻지 않는 까닭은 그를 대비하기 위하여 발라 둔 기름이 있는 까닭입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 시궁창 속에 뿌리를 박았어도 꽃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속세(俗世)에서 생(生)을 받아 영위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날 때 꽃과 같이 아름다

운 향기를 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 물결이 휘몰아쳐도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동행(同居同行)할 것입니다. 거듭난 심령은 육체가 비록 시장으로, 공무(公務)로, 장사로, 혹 극장으로 발걸음이 가졌었다 할지라도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등이 죄(罪)와는 아주 먼 거리에서 접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마음 속에 있는 연고라" 함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그러한 죄성(罪性)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군대(軍隊) 안에서도 보면 신앙생활이 철저한 군인은 아무리 특수한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생활의 덕화(德化)를 끼치며 범죄 속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사회는 죄 짓기 쉬운 요소가 다분합니다. 신앙의 밝은 눈으로 분별치 않고는 분위기와 환경의 유혹을 이겨나가기 어렵습니다. 오랜 신자나, 장로나, 성직자(聖職者)라 할지라도 타락하여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때 각성(覺醒)하여 새 사람이 되어 아무리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릴지라도 비상한 각오와 노력으로 죄 짓지 않는 성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겠읍니다.

(2) 사랑이 있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랑이 있읍니다. 요한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 함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몸과 정열과 죽음까지 아낌없이 주셨으매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위해 몸과, 수고와, 노력과, 생명까지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아무리 차가운 마음이라도 녹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읍니다.

옛 시인이 말하기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함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힘을 가진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페스탈로치(J. H. Pestalozzi)는 고아들을 사랑하던 끝에 있는 재산을 바쳐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구제해 주기를 호소하여 이집 저집 다녔읍니다. "불쌍한 거리의 천사들을 위해 사랑의 동정을 베풀어 주시오"라고 할 때 오히려 비소와 학대는 말할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려고 하는 충격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의치 않고 굳건히 나아갔읍니다. 어느날은 고아들의 모금(募金)을 위하여 술집에까지 들어가 술먹는 불량배에게 적선(積善)을 호소할 때 그 불량배는 무정하게도 죄 없는 페스탈로치에게 적선은커녕 도리어 컵을 던져 페스탈로치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니 페스탈로치는 컵에 맞아 피흘린 머리를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신사여, 나 같은 죄인은 이러한 대접이 적당하오나 이제는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 적선을 구합니다"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또 한번 도움을 구하여서 마침내 이에 감동된 불량배는 그후 페스탈로치의 제자(弟子)가 되어 그 사업을 잘 받들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결코 마지 못해 하는 척하는 허식적(虛飾的)인 태도가 아니고 생명을 초월하는 강한 힘이 넘쳐 흐르는 고귀한 것이라고 했읍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세워 사랑하게 되었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었겠읍니까? 사랑은 이론(理論)이 아니고 실천(實踐)입니다. 과학 (科學)이 아니고 신앙(信仰)입니다. 결코 비싼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 됨으로써 국경과, 원수와, 이해와, 혈육과, 욕심을 다 초월하여야만 하겠으며 이것이 숭고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3) 세상을 이김.

요한 1 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 함은 이 세상을 이길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란 뜻입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불의하고, 거짓되고, 패역하고, 음란하다고 했는데 과연 거리에 나가보면 아름다운 것이 몇 가지나 셀 수 있는지! 잡지나 또는 신문의 사회면을 볼 때 거짓되고, 음란하고, 패역된 기사뿐입니다. 과학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세상으로 교만하여 사람들은 현실주의와 향락주의로 흐릅니다. 허무주의, 찰나주의로서 일시적 쾌락만이 인간의 전부인 줄 알고 안일에 도취되어 자멸의 길을 걷고 있읍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 가지만 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읍니다. 거듭나서 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탁류(濁流)와 같은 세파 속에서도 진리를 향하여 역행할 수 있지마는 옛 사람 그대로는 죽은 고기와 같이 떠내려 가고 맙니다. 자! 세상을 이긴 성도들이 많이 있읍니다. 요한 웨슬레,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가 있고 그 밖에도 많이 있읍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악(惡)의 세력인 원수 마귀를 이기는 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느 분야가 과연, 깨끗하겠읍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도장이 더욱 부패일로를 걷고 있고, 백성들의 수요품을 공급하는 상계(商界)도 진짜를 만들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하며, 거짓이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전쟁으로 공산당에 패배하는 것보다 머지 않아 스스로 자멸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영국인 한 사람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 썩은 까닭에 민주주의를 찾기에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보다도 어리석다고 말했답니다.

독일의 어느 신문기자가 한국을 가리켜 '국제 쓰레기통이라'고 말함

은 한국 사람은 외국산이면 '최고다'고 해서 외산(外産) 마카오 양복에다, 일본의 카메라, 미국의 파카 만년필에, 불란서 코티분에다가, 큐바의 설탕에, 브라질의 커피, 호주의 우유를 먹으니 국제 쓰레기통이란 말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삽니다. 그저 남이 그렇게 사니 할 수 없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깊숙이 엎드려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만 내가 살고, 민족과 국가가 살 수 있는가 밝혀 보아야 하겠읍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각자의 세계관을 세워 '조국을 건질 것이냐?'의 문제를 타개해야 되겠읍니다. 수도물은 저수지(貯水地) 이상으로 물을 끌어 올리지 못한다고 함과 같이 그 민족은 국민정신 이상 국가를 형성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 되지 않고는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없읍니다. 아무쪼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되고 죄에서 멀리 떠나 피비린내 나는 이 땅을 사랑으로 향기롭게 하며,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역군(役軍)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
(디모데후서 1 : 3-14)

본문의 말씀은 주후 64, 5년경 바울 사도가 죄(罪)없는 죄인으로 또 다시 잡히어 로마의 옥에 갇히어 머지않은 죽음(66년에 죽음)을 내다 보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며 또한 동역자(同役者)인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옥중 서한(書翰)이며, 또한 유언서(遺言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신자(信者)들의 형편을 살펴 보면, 주후 64년에 극악(極惡)한 네로(Nero) 왕은 보다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함과 또 그 광경에 환희의 비파를 타며 걸작(傑作)의 시를 쓰기 위하여 로마 도성에 불을 질렀읍니다. 네로는 이 방화(防火)의 책임을 무죄(無罪)한 기독교도에게 돌렸으므로 분노에 격한 로마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살해했던 것입니다. 형틀 위에 처해 죽이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 민중의 오락을 위해 투기장에 던지우고, 개에게 물려 죽이고, 혹은 짐승의 미끼로 던지우고, 혹은 네로의 정원에서 불기둥에 결박되고 그 몸에 기름을 부어서 그 타는 몸이 네로의 정원을 비추는 횃불로 사용되었고, 죽어가는 희생자들의 처참한 최후를 오히려 만족한 듯이 보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신앙의 권면과 사명의 재인식(再認識)을 위하여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딤후 1:6 하반)라고 했읍니다. 여기 불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나 그 모형은 여덟 가지 모형이 있읍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혀와 같은 성령, 기운과 같은 성령, 기름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인(印)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입니다. 이 중에도 가장 강력히 임하는 것은 불과 같은 성령인데 이것은 신자로서 꼭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가지고 경영(經營)하시고, 성자(聖子) 예수는 4복음을 가지고 속죄(贖罪)하시고, 성령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완성을 향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할 때에 구원을 경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완성시키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냐? 하면 이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일곱 시대로 잡는다고 하면 무죄시대(無罪時代), 양심시대, 권세시대, 허락시대, 율법시대, 성령시대, 마지막은 천년왕국시대 등으로 나누지만 그 중에도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세례를 받아야만 참신자(眞信者)라는 것입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읍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의 하나로 밖에는 알지 못했으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혁명가의 한 사람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은 삼년 동안 따라 다녔지만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둘째, 갈라디아 5장 22-23절을 보면 성령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특색이 없다고 했읍니다. 예수믿는 사람은 특색이 있읍니다. 예수믿고 성령받은 사람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좋은 성령의 열매가 있읍니다. 그러나, 성령받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열매는 없고 정반대의 열매가 있읍니다. 허영, 사치, 교만, 향락, 무정, 인색, 불효, 술수, 놀음, 사기, 횡령, 도적, 수근수근, 살인 등 이런 것이 가득합니다.

세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성령받지 못하면 분별력(分別力)이 없다고 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성경을 다섯 살부터 배웠고, 기도를 잘 하고, 구제사업을 많이 하는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가들이 성령 못받은 까닭에 사람 죽인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받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읍니다.

네째, 요한복음 18장 17,25,27절을 보면 성령받지 못하면 담대하지 못하다고 했읍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주님을 모른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나만은 모른다고 하지 않겠읍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앞을 환히 내다 보시고 "큰소리 말라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마는 오순절에 성령받고 나니, 십자가에 거꾸로 못박히면서도 이제는 승천(昇天)하셔서 땅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한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확신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라고 했읍니다. 즉,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읍니다. 사람이 성령의 영(靈)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못되고 예배당 드나드는 사람이 됩니다. 도(道)를 구하는 사람은 되지만 아직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신자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성령세례 받았느냐?"고 물으니 "성령세례 이름도 모른다"고 했읍니다. 바울 선생은 그들에게 안수해 주었더니 성령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방언(方言)과 예언(豫言)을 하고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두 가지가 있읍니다. 물세례만 받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마음 속에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는 자범죄(自犯罪)를 사한다면 불세례는 원죄(原罪)까지 사함받는 것입니다. 물세례만 받으면 간판주의, 세속주의, 피동적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고 성령세례를 받아야 실력주의, 열매있는 능동적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시대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1. 한국 교회의 형편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형편을 삼단계(三段階)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읍니다.

(1) 한국 초대교회로서 불이 있던 시대

1884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때부터 중·일사변(中日事變)이 나기 전까지 그 때는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불이 붙던 시대입니다. 그 때는 교회도 많지 않았고, 신학교도 없었고 목사님, 전도사님 수자도 적었고 또 학식(學識)있는 장로님, 사회적 지위있는 신자도 없었읍니다. 그러나, 그 때는 오늘날의 기성교회(既成敎會)보다 열심도

있었고, 희생도 있었고, 정말 소금과 빛의 직분을 다 했었고, 그리스도의 편지 노릇을 했었으며, 의(義)로운 병기(兵器) 노릇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사회개조(社會改造)를 위해서, 신생활(新生活) 운동을 위해서, 조국해방을 위해서 크게 기독교가 공헌(貢獻)했고 현종대왕, 숙종대왕, 대원군 시절에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무수한 순교(殉敎)의 피를 흘리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는 성령의 불이 충만했던 시대입니다.

(2) 불이 꺼져가는 시대

이 시대는 중·일사변(中日事變)이 난 후부터 소위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 끝나는 직전까지입니다. 이 때는 어떤 시대냐? 하면 불이 꺼지는 시대입니다. 노골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친미파(親美派)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의 간첩이라고 모함하여 핍박을 한 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가두고 신자들을 신사우상(神社偶像)에게 절하게 하고, 많은 청년을 잡아가고, 강제노동(强制勞動)을 시키고 할 그 때가 불이 꺼지던 시대입니다.

(3) 불이 꺼진 시대

이 시대는 해방의 종소리가 울리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입니다. 오늘날은 불이 다시 붙는 시대라고도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속단(速斷)할 때는 종교의 자유를 가져왔고, 일본 사람들이 쫓겨갔고, 선교사가 많이 들어왔고, 예배당도 많이 세워졌고, 신학교도 많이 세워졌고, 아니 서구라파에 가서, 미주(美洲)에 가서, 신학석사, 신학박사의 학위도 많이 받아왔고 어떤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2부(二部), 3부로 보게 되고 사업들도 많이 하니까 이 교회가 지금 크게 부흥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고려시대(高麗時代)는 불교시대요, 이조(李朝) 오백 년은 유교시대요, 지

금은 기독교시대라고 합니다.

이 서울 안에만 교회가 칠백 개가 넘고, 대구만 해도 삼백 개가 넘고, 부산만 해도 사백 개가 넘으니 아마 전국적으로 천주교까지 합하면 팔천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들어서 책망하였는데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데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아교회,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교회만 빼놓고 나머지 교회는 크게 책망을 받았읍니다. 저는 우리 이 팔천이라는 교회를 내다보고 정말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교회같이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얼마나 있나 생각할 때에 그것보다도 오히려 책망받을 교회가 더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에베소교회는 첫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읍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랑은 첫 사랑인 줄 압니다. 이 첫 사랑의 특색을 들어 보겠읍니다.

첫 사랑하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완고한 부모님의 극력(極力) 반대에도 서로 사랑하는 상대방을 극력 변호(辯護)와 칭찬으로 마침내 부모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첫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십자가(十字架)와 그리스도를 변호와 자랑을 하여야 할 터인데 아마 무연탄 이야기, 쌀 이야기, 의복 이야기, 학비 이야기 등은 많이 했지만 예수 십자가 이야기는 한 번도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첫 사랑을 속삭이는 사람은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읍니다. 그저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신자들이 예수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읍니까? 그저 저녁때가 되면 동아일보(東亞日報) 왜 아니오나 연재소설(連載小說) 나오는 것 봐야 할텐데, 텔레비젼(T. V.)을 틀어 보아라 등 이런 것은 즐겨하면서 주님을 만나 보고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적은 것입

니다.

그 다음에 첫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좋게 해주려고 시간도 제공하고, 육체적인 봉사도 제공하고, 또한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써비스를 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산에 올라갈 때는 손을 잡아주고 물을 건널 때에는 업어주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랄 것은 물질이나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고 오직 지성(至誠)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속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나, 건물이나, 수자나, 신학 등보다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마 22：37-40)과 베드로(벧전 4：8)와 요한(요일 4：7-8)과 바울(고전 13：13)도 사랑이라고 했읍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랑이 없읍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싸움하는 교회, 재판하는 교회, 구제품 가지고 찢는 교회, 그래서 심지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 둘이서 싸움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싸우는 거요. 예배당인 줄 아시오"라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버가모교회야 네가 발람의 교훈을 받았구나" 이것은 세속주의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압나라 왕 발락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광야 끝까지 다 와서 자기 나라에 들어오면 망할까 염려하여 발람이란 선지자에게 뇌물(賂物)을 주어 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저주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열어 자주 축복하니까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그럼 들어오라고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방(異邦)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우상(偶像)에게 절을 시킴으로 이 죄악(罪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하루에 24,000명씩 죽었읍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에는 그래도 이기더니만 죄악이 들어오니 망(亡)하고 만 것처럼, 오늘 이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자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방법에 있어서 신앙수준(信仰水準)을 얕게 잡으면서 죄(罪)의 문(門)을 열어놓고 인위적(人爲的)인 방법을 자행(自行)하는 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앙수준을 낮추어 가지고는 대합실인지, 다방인지, 주장(酒場)인지, 구제품 배급소인지, 영적 병원인지 도저히 무엇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과 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 비늘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민이요,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발은 땅에 붙이고 살며 똑같은 공기를 마시지만 그 생활만큼은 좀더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사업에 있어서나 함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뜻인데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이 얼마나 구별된 생활을 합니까?

어떤 믿지 않는 대학교수들이 모여 가지고 "믿는 사람하고 우리 안 믿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른가?"라는 논지(論旨)를 걸어놓고 한참동안 의논하다가 결론짓기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나 다른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이고, 거짓말 하는 것도 같고, 욕하는 것도 같고, 싸움하는 것도 같고, 재판하는 것도 같다"고 하였읍니다.

새김질한다는 것은 되씹으란 말입니다. 소는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살이 찌고 황새는 되새김질 안 해서 마른다고 합니다. 즉, 주일날 목사님이 제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면 먼저 그 말씀을 잘 새김질 해서 서로 사랑하고 좀 참아야 될텐데 신자들이 새김질도 아니하고 그냥 나갈 때에는 모두가 들은 말씀을 이 예배당에다 놓아두고 갑니다.

잉어, 농어, 숭어는 비늘이 있읍니다. 이 고기는 곧게 가고 물줄기를 따라서 막 올라가는 고기입니다. 폭포수가 떨어질 때 잉어를 보았읍니

까? 올라가는 겁니다. 쑥 올라갈 때 비늘이 태양빛에 반짝반짝 빛나니까 옛날 사람들은 용(龍)이 올라간다고 하였더랍니다. 그러나 비늘없는 장어나 미꾸라지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것은 물따라 흘러만 가고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 내려가면서 곧게 내려가지도 못하고 비틀비틀 가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가는 오후에는 유흥지(遊興地)에서 즐기다가 밤예배는 끝날 무렵에야 허둥지둥 쫓아오는 신자(信者)들이 요즈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교회야 네가 이세벨을 용납했구나" 이것은 말초신경(末梢神經)을 자극시키는 감관문화(感官文化)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향락주의(享樂主義)로 흘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합왕이 이방여자인 이웃 시돈 왕의 딸을 데려올 때에 이 여자가 우상을 안고 왔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갖다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며 술마시고 춤을 추고 음란한 죄를 도모하는 향락의 우상이었읍니다. 이 향락주의가 오늘날 교회까지 들어와서 소위 집사님된 양반들, 상당한 직분을 맡은 이들이 먹고 마시고 좀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안일을 누려볼까 하는 생각에만 젖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야 풍랑을 안 만날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야 한국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뼈저리게 느끼는 바입니다.

"사데교회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데교회도 처음에는 굉장히 부흥했고 큰 일을 많이 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고 편안함에 따라 돈푼이나 벌더니 그만 그 신앙이라는 게 말라서 그저 체면적인 간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信者)들을 보십시오. 헌금시간에 찬송 부를 때 "내게 있는" 하면서 호주머니를 자주 뒤지기에 왜 저러나 보면 오백원짜리 나오니까 쑥 집어넣고, 백원짜리 나오니까 쑥 집어넣고 십원짜리 골라 내면

서 "다 바칩니다"라고 합니다. 이것 이름뿐이 아니겠읍니까? 찬송이야 "겟세마네 동산까지……어디든지 따라가겠네"라고 합니다마는 겟세마네는 그만두고 특별 집회 때 새벽기도회에도 나오지 못하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이름뿐인 신자, 이름뿐인 집사, 이름뿐인 장로, 이름뿐인 목사,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교파(教派) 모두들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라오리아교회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게서 토해 내리라"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편의주의(便宜主義), 무사안일주의 (無事安逸主義), 도피주의(逃避主義)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도피주의나 무사주의나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적극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다는 그 자체가, 산에서 내려왔다는 그 자체가, 빌라도 뜰에 걸어갔다는 그 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종교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볼 것 같으면 천당(天堂)이 있다 해도 감격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지옥이 있다 해도 두려워 떨지도 아니하는 무감각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보고, 바른말 하고, 바로 증거하고, 바로 살다가 바로 죽었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교(新教) 백오십만이라고 하지만 군정 때, 자유당 때, 민주당 때, 군사정부 때,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도 바른 말을 얼마나 합니까?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서 바른 말을 했읍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왕 앞에 가서 바른 말을 했읍니다. 바울 사도는 벨릭스 앞에 가서 바른 말을 했읍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법황 앞에 가서 바른 말을 했읍니다. 아니, 존 낙스는 메리 여왕 앞에 가서 바른 말을 했읍니다. 본회퍼는 히틀러 앞에 가서 바른 말을 했읍니다. 내촌(內村)이는 일본 천황 앞에서 바른 말을 했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日帝) 앞에 서서 바른 말을 했읍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인들은 얼마나 바른 말을 했읍니까? 보시오, 값싼 이권(利權) 때문에 부정을 조장하는 데 찬동하는 앞잡이가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없었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읍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이것이 현대 교회의 형편인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또 한번 두 가지로 분류해 봅시다.

즉, 예루살렘이냐? 베들레헴이냐? 헤롯대왕이냐? 노동자 목수 예수냐? 소위 종교가냐? 동방의 박사냐? 헤롯의 잔치냐? 예수의 잔치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이같이 두 조각으로 쪼개보면 육(肉)이냐? 영(靈)이냐? 섭섭하게도 이 육의 계통이 더 많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城)은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종교의 중심지였지마는 예수님은 거기서 나지 않으셨읍니다. 아마도 그곳은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곳인고로 오히려 소박한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요사이 보면 모두가 그저 예배당만 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크게 지어야겠지요. 그렇지만, 짓되 정당하게 짓는 예배당은 괜찮지만 경쟁심에서, 허영심에서, 인기전술로써 다른 예배당보다 우리 예배당이, 저 교파보다 내 교파가 성공해 보겠다는 야심(野心)을 품고 예배당을 짓다가 실력이 모자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짓는다니 한심한 노릇이며 또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 자 이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성경에는 신령(神靈)과 진정(眞情)으로 예배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읍니다.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냐? 노동자 목수 예수냐?입니다. 아방궁(阿房宮) 속 용상(龍床)에서 홍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며 흥청대는 그 호화찬란한 헤롯왕을 바라보는 신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밤중까지 소매를 걷어 올리고 허리에 띠를 매고 이마에 수건을 동여매고 끌, 망치, 대패를 가지고 땀흘려 수고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가난한 나라, 갈라진 나라, 황폐한 나라, 병든 나라, 화재 많은 나라, 홍수 많은 나라, 강도가 들어온 내 나라, 내 교회를 다시 잡아보겠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주님의 정신 가지고 나가서 땀흘리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소위 종교가냐? 동방박사냐?입니다. 소위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성 밖에 나신 것을 몰랐읍니다. 오히려 멀고도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博士)들이 예수님을 먼저 보고 거기에 예물을 바치고 절하고 갔읍니다. 왜 이 종교가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나셨건만 못 보았읍니까? 땅만 보다가 못보았읍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하늘 보다가 별을 보고서 그 별을 따라왔읍니다. 오늘 하늘 보는 사람이 많으냐? 땅 보는 사람이 많으냐? 자고만나면 하늘 쳐다보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려나이까? 하며 구름 한 덩이만 떠도 '저 구름을 타고 오시려나이까?' 하고 고대하는 신자가 얼마나 있읍니까? 구름타고 오신다는 뜻은 물론 영광 중에 오신다는 뜻인 줄 알지마는 저 하늘 보는 신자는 별로 적고 모두가 땅들만 봅니다. 그저 나가서 자가용 새나라 차나, 세단차가 굴러가면 나도 언제 저런 것 한번 가져본단 말인가? 하고 또 지나가다가 금방(金房)을 보면 야! 금팔지 그것 좋다! 다이아반지 그것 삼만원하나 보구나! 하며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은 많지만 동방박사와 같이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타계심(他界心)에 불타는 신자는 얼마나 됩니까?

또 헤롯의 잔치냐? 예수의 성만찬이냐?입니다. 헤롯은 잔치하다가 의인(義人)의 목을 잘랐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잔치하다가 자기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서 남을 살리고 자기는 희생했읍니다. 해방 이후 정치가, 경제가, 교육가, 예술가, 종교가들이 많이 모여봤지만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읍니까? 싸우고, 정죄(定罪)하고, 쪼개고, 죽인 것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입니다. 실상 능욕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營門) 밖으로 쫓겨 나가면서 골고다 길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 한 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넓은 길 간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특별집회 때에 신자들에게 새벽 종소리를 듣게 하고 일어나서 나가라 해도 아버지 뜻대로 나가지 말게 하옵시고, 내 뜻대로 조금만 더 자게 그냥 두옵소서, 한 시간만 더 자면 살이 더 찔 것 같사오니 가만좀 내버려 주옵소서, 나 하나 안 나갔다고 새벽기도를 못보겠읍니까? 이러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긴 있읍니다만 오히려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보다 딴 목적에 나온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람 만나러 온 사람도 있고, 병 고치러 온 사람도 있고, 셋방 싸게 얻으러 온 사람도 있고, 취직자리 구하러 온 사람도 있고, 장사밑천 얻으러 온 사람도 있고, 말 배우러고 온 사람도 있고, 수양하러 온 사람도 있고, 찬양대 노래소리 들으러 온 사람도 있고, 연애하러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와 친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미국 가려고 온 사람도 있고, 이 다음 출마 때 도장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사상적 캄플라치(속임수)하러 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핸드백과 고무신짝 훔치러 온 사람도 있읍니다.

그래서, 어떤 공군장교가 나에게 '목사님! 요새 교회건물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기계나 갔다놓고 공장이나 했으면 좋겠읍니다'라는 모독적인 언사(言辭)를 쓸 때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를 느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기독교 역사를 이천년 동안 더듬어 볼 때에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부흥했다가 쇠잔(衰殘)하는 역사의 굴곡(屈曲)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내리막이라고 말하지만 다시 은혜를 받으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밝

아지리라고 믿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기도하며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 불이란 어떠한 것인가?

(1) 뜨거운 것

창세기 19장 24-25절에 보면 아브라함 당시 소돔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니 그 죄악(罪惡)의 도성이 다 타버렸읍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니 돌, 나무, 송아지, 흙, 물이 타버렸읍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3절에 바울이 밀레도에 들어가서 짚단 위에 불을 붙여 놓으니까 뱀이 뜨거워 튀어 나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은 뜨거워 모든 것을 태워 잿가루를 만드는 것과 같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하면 여러가지 추잡한 죄악이 모두 타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항 제련소(長項製鍊所)의 용광로(鎔鑛爐)는 열이 천도(千度)가 넘는데 그 속에 광석(鑛石)을 넣으면 모두가 녹아서 물과 같이 되어 돌, 연, 동, 은, 금으로 분석되는데 맨 마지막 나오는 것이 순금인 것입니다. 일찌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五旬節)의 성령의 용광로에서 온전히 새 사람, 새로운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2) 광명한 것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했읍니다. 바울 사도 하나가 불을 받을 때에 어두웠던 소아시아와 구라파가 광명해졌고, 리빙스톤(Livingstone) 한 사람이 불을 받으니까 캄캄한 아프리카를 광명하게 했고 오십만의 생명을 건져낸 것을 보니 과연 빛이라는 것은 광명한 것입니다. 또 빛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가는 사

람들의 그 길을 비쳐주고 항해(航海)하는 배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볼 것 같으면 광야에 밤중에 불기둥이 나타나니까 이백만이 그 광야 가시밭 길을 헤치고 나갔읍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감옥마다 만원이고 도둑이 많고, 싸움들을 하고, 왜 이렇게 어두워졌는가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자가 빛의 직분을 바로 못하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정말 우리가 빛의 직분을 했었던들, 등경 위에 켜놓은 등불과 같이 산 위에 세운 등대와 같이, 빛의 직분을 했었던들 오늘 이 사회가 이같이 어두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침상 아래 두지 말고 그릇으로 덮지도 말라"(마 5 : 15 ; 누 8 : 16)는 것은 물질과 향락과 세속주의(世俗主義)로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물질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빛을 많이 가리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깍정이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을 받아서 흑암한 세상을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까지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3) 힘이 있음.

스가랴 4장에 보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마는 오직 성령으로만 하리라…스룹바벨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6-7)고 했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였읍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불은 힘이 있읍니다.

제가 군종감(軍宗監)으로 미 공군 군목장(軍牧長)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가서 공부와 시찰한 일이 있읍니다. 집에서 찦차를 타고 비행장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까지 갔읍니다. 일본에서는 비행기 타고 미

국 본토로 갔읍니다. 또 기차를 탔읍니다. 또 돌아올 때도 그렇게 해서 왔읍니다.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사실 짚차 탄 것이 아니라, 비행기, 기차 탄 것이 아니라, 불을 타고 갔다 온 것입니다. 짚차도 불이 붙으니 갑니다. 비행기도 불이 붙어야 뜹니다. 기차도 불붙어야 달립니다. 즉, 불을 타고 갔다 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배 하나가 태평양을 건너가는 중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리저리 짐짝처럼 굴러 다니기를 이렇게 밤낮으로 하게 되니, 기진맥진한 어떤 청년 하나가 선장실(船長室)에 들어가서는 이 배가 엎어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사히 갈 겁니까? 했더니 선장이 그 사람의 손을 꼭 잡더니 말도 아니하고 끌고 기계실에 내려와서 보일러 문을 연 후 불이 너무 타서 그저 하얗게 이글이글하는 것을 가리키더니만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배는 절대로 엎어지지 않을테니 안심하고 조금만 참고 있으라"고 하였답니다. 과연 그 불의 화력(火力)이 끊임없이 붙으니까 밖에는 어둡거나 말거나, 파도 치거나 말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저 기계가 돌아가지고 거센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까지 갔다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세계(世界)는 지금 풍랑을 만났읍니다. 한국만 만난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풍랑을 만났읍니다. 정치적인, 사상적인, 교육적인, 종교적인, 도덕적인 어려운 풍랑을 만났는데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으면 이 모든 환난, 핍박, 역경, 질병, 이단, 마귀의 풍랑을 헤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만 속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엎어지고 말 것입니다.

3. 불 받는 방법

(1) 말씀 충만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

다"고 했읍니다. 또, 그 다음에 역대하 34장 19절을 보면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講論)할 때 왕이 가슴을 찢고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했읍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거기 가서 불(火)을 받았다고 했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불을 받으려면 첫째 성경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을 때려면 나무도 있어야 되지 성냥개비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연구하여 마음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결코 기사(奇事)와 이적(異蹟)을 믿는 우리 기독교이지만 우연히 된 것은 아닙니다. 즉, 유대 사람은 나이 다섯 살만 되면 의무적으로 어떤 아이든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다섯 살부터 성경을 배웠고 예수님 밑에서 삼 년 동안 성경을 배웠으므로 말씀이 있었으니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신자(信者)들은 성령 받기를 원하면서 성경은 보지 않아요. 무엇을 보아서 성경 안 보는 것이 드러나는가 하면 설교하려고 성경을 펼치면서 성경 말씀은 오바댜 1장을 찾으시오 하면 오바댜가 어디 있나? 하고 찾느라고 야단들입니다. 그리고, 또 옆을 보더니 "형님도 못찾았구만"라고 말하며 위로도 받아가면서 갈팡질팡하다가 못찾고 말아 버립니다.

기독교 역사상 성령 충만하여 큰 일을 한 인물들 중에 바울, 어거스틴, 칼빈, 루터, 웨슬레, 무디, 주기철, 손양원 같은 분은 모두 성경 지식이 충만한 인물들이었읍니다.

(2) 간절한 기도

기도의 종류를 생각하여 볼 때 수사적(修辭的)인 기도, 작명적 (釣名

的)인 기도, 감정적(感情的)인 기도, 이교적(異敎的)인 기도, 광고적(廣告的)인 기도, 주석적(註釋的)인 기도, 그 다음 잠꼬대 기도 등 이런 기도는 아무리 지껄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라야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얍복강에서 단독적(單獨的)인 기도, 헌신적(獻身的)인 기도, 자복(自服)하는 기도, 결사적(決死的)인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 문도가 열흘 동안 금식(禁食)하며 마음을 같이 하여 항상 힘써 기도했다고 했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했읍니다.

옛날 중국에 신광(神光)이란 젊은 학자는 공자(孔子), 장자(莊子)의 학설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여 음력 12월 깊은 눈속에 윇나라 낙양 근처에 있는 높은 산 위의 소림사(小林寺)를 늦게 찾아갔읍니다. 이 절(寺)에는 인도에서 온 40년 동안 도(道)를 닦은 유명한 달마(達磨)라는 사람이 와서 9년 동안 말 한 마디 없이 별을 바라보고 앉아서 계승자(繼承者)를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이 청년은 스승이 만나주지 아니하므로 밤낮을 눈속에서 새우고 삼일만에야 스승이 말하기를 너의 적은 덕, 적은 지혜, 경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 도(道)를 얻겠느냐? 고 했읍니다. 그 때에 청년은 품었던 칼로 팔을 자르니 피가 쏟아져 나왔읍니다. 이 때에 스승이 그의 결심을 보고 8년간 법심(法心)을 가르쳐 주어 혜가대사(慧可大師)가 되었다 합니다. 불도(佛道)를 닦는 데도 이같이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거늘 하물며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거룩한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하여 우리의 결사적인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오직 힘쓰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3) 철저한 회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통회(痛悔)하는 자의 마음을 부흥시킨다고 했읍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는 사람의 그 심령을 부흥시킨다고 했읍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을 준다고 했읍니다. 또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전기불은 머리칼 하나의 사이만 떠있어도 불이 못 들어옴과 같이 성령은 작은 죄라도 있고선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발상지인 예루살렘은 회회교(回回教)가 점령했고, 선교사가 피흘려 세웠던 교회는 민족주의가 덮었고, 전도의 길이 못 미치는 곳에는 붉은 공산주의가 침투해 들어가고 있읍니다. 도끼날이 빠진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참나무 장작을 쪼개 보십시오. 그게 쪼개집니까? 힘만 들고 잘못하다가는 머리를 다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새파랗게 갈아 가지고 겨냥을 잘해서 그 지점을 한번 딱 때리면 잘 쪼개지는 것 처럼 오늘의 성도는 먼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首弟子)인 베드로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성령 받기 전에 한 사람도 구원 못시키고 병자 하나도 못고쳤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가 외칠 때에 3천 명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돌아오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나았다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급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제 예배당 그만 지어도 됩니다. 신학생이 너무 많고 목사도 너무 많습니다. 이제 신학 박사도 그만 있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성령받은 하나님의 성도(聖徒)들이 오늘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갑절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새 사람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고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

(베드로후서 3 : 8-13)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11절)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부터 연결되어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罪)를 범한 천사(天使)를 심판하여 지옥에 던지셨고, 노아시대에 경건치 않은 죄많은 세상을 물(水)로 심판하셨고, 간음과 괴이한 색(色)으로 가득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심과 같이 지금 이 세상은 장차 불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면키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여전히 살다가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滅亡)해야 합당하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원자탄, 수소탄, 대륙횡단 유도탄 등의 핵무기(核武器)의 급진적인 발달로 인하여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투시에 보면 육군은 지상(地上)에서 불을 토하고,

해군은 바다에서 불을 토하며, 공군은 하늘에서 불을 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라고 보겠읍니다.

사람이 집을 잘 지으려면 터(基礎)를 잘 닦아야 하고, 곡식을 많이 거두려면 밭(田)을 잘 갈고 잡초(雜草)를 모두 뽑아내야만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의 밭을 율법(律法)의 쟁기로 깊이 갈고, 성령의 불로 잡초를 불태워 버려 옥토(沃土)를 만든 후에 복음(福音)의 씨를 뿌려서 잘 가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없는 인간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회개치 않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고, 가롯 유다는 회개치 않아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회개(悔改)의 종교, 사죄(赦罪)의 종교입니다.

불란서의 한 학자가 호텔에 투숙(投宿)하고 있는데 하녀(下女) 아이가 매일같이 복도 위에 걸려 있는 거미줄을 털어내며 거미줄을 원망하더랍니다. 그 때에 학자는 "거미를 잡아 근본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읍니다. 하녀는 한 어두운 구석에서 한 마리의 큰 거미를 잡아 냈읍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거미줄이 없었답니다.

또한 어떤 곳에 술을 좋아하는 몇 사람이 강을 건너 밤이 깊도록 술을 먹은 후에 배를 타고 돌아오려고 노(櫓)를 저었는데 30분쯤이면 건너올 강을 무려 두세 시간 동안 노를 저어도 닿지를 아니하므로 술은 깨어가고 날은 밝아오기 때문에 자세히 보니 풀었어야 할 배 닻줄을 매놓고 배를 저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음 속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의(義)로운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신앙이 자라서 앞으로 전진(前進)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 받고, 바로 살다가 구원을 얻으려면 진정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세례 요한도 첫마디가 마태

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公生涯)에 나오셔서 첫마디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읍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심판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고,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寶座)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악간(善惡間)에 심판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선악을 가립니다. 학생들도 놀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상급반에 올라가고 좋은 학교에도 갈 수 있으나 놀기만 하고 나쁜 짓을 한 학생은 좋은 학교는 고사하고 자기 반에서도 낙제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도 표를 조사합니다. 표를 산 사람은 마음놓고 편안히 즐거운 여행(旅行)을 할 수 있으나 표를 안 사고 가만히 들어와 앉은 사람은 도중하차(途中下車)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도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었다가 가을에 추수(秋收)하여 타작을 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아궁이의 불속에 넣거늘 하물며 사랑과 공의(公義)의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이나 회개치 않은 사람을 분별

(分別)없이 다같이 지옥이나 천국으로 보내지는 아니하십니다.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회개치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쳐 주었읍니다.

2. 심판의 종류

(1) 양심 심판

양심 심판이라 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의 양심에 비추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후반기인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은 사람도 이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복음 심판

이는 십자가(十字架)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되어 죄를 뉘우쳐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이, 즉 복음 심판인 것입니다.

(3) 시상 심판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사람은 부활하고 산 사람은 변화해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 거기서 각자의 논공행사(論功行事)에 따라서 상(賞)을 주는 심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정부에서나, 군(軍)에서나, 단체에서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각각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4) 만국민 심판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잔치가 끝난 후에 지상에 오셔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나라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때려 부수듯이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후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5) 백보좌 심판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실 때 음부(陰府)에 가두었던 죄인과 무저갱(無底坑)에 가두었던 마귀를 꺼내어 백보좌(白寶座) 앞에서 마지막 심판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가리켜 사망의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영혼의 죽음' 이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 이는 세상에서 자연 수명으로 죽든지 어떻게 죽든 간에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이는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우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 심판과 시상식 심판에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읍니다.

3. 심판의 장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가 장차 심판받을 장소의 광경을 말했는데 유리바다(琉璃海)와 일곱 등대 사이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읍니다.

(1) 유리바다

이 뜻은 티와 더러움이 없는 깨끗함과 엄숙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명함이나 메모나 뇌물이 전혀 없고 또한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은 신성해야 하겠읍니다마는 법정도 인간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在)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재판소에 들어가는 문짝에다 사람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운 것이 있읍니다. 이 뜻은 뇌물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재판을 올바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로 되려면 언제나 사법만은 건전하여 권위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재판은 금력과 권력에 좌우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어떤 점잖은 분이 수년동안 재판을 해본 후에 그는 말하기를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재판소만은 신성한 법정입니다.

(2) 일곱 등대 사이

이 말씀의 일곱수는 완전수(完全數)로써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죄를 주시는 일이나, 또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 재판에는 송사리는 걸리고, 큰 고기는 상을 받고, 고급차만 타고 요정에 출입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비교적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로서 인권옹호로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첨단을 걷는다 하지만, 때로는 오판을 해서 죄없는 흑인 한 사람을 15년이나 형무소의 감옥살이를 시켰다는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셔서 이런 억울한 재판을 하시지 아니하

실 것입니다.

(3)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과거와 미래까지 아시고 또 마음속, 뼈속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말씀했읍니다. 즉,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도저히 속일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묻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모든 죄를 직접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4. 심판받을 죄

(1) 말의 심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라고 했읍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말한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Edison)이 축음기판을 만들어 한번 돌린 다음에 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만든 축음기판 속에 자기가 한 말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사람 것만 못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장차 자기의 한 말을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공군 군목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흐린 날 지상을 떠나 높은 구름 위를 날으고 있었읍니다. 하늘구름 바다 위에는 햇빛이 쨍쨍하지만, 땅은 구름으로 가리워 보이지를 아니했읍니다. 그 때에 조종사가 비행기에 붙은 라디오를 틀었읍니다. 땅 위에서 하는 모든 말이 방에서 듣는 것과 같이 비행기 속에서도 똑똑히 들렸읍니다. 이 때에 나는 생각하기

를 나 같은 인간도 지금 이 높은 하늘 구름 위에서 땅에서 하는 말을 듣고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을 못 들으시겠는가?…, 생각하니 두려움을 금할 길이 없었읍니다.

우리가 방안에서 태평양 건너 미국 워싱톤에서 하는 말과 흥안령과 우랄 알타이(UrAlaltaic)산맥을 넘어 소련 모스크바에서 하는 말을 라디오를 통하여 똑똑히 듣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는 말을 못 들으시겠읍니까?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2-3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했으며, 시편 139편 4절에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고 했으며,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 했읍니다.

(2) 행동의 심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앉고 서고 눕는 일체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고 하셨으며, 시편 139편 2-3절에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했읍니다. 오늘날 인간이 만든 레이다(radar)를 가지고도 멀리서 바닷물속의 무슨 고기떼가 얼마큼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름끼고 흐린 밤중에도 레이다를 보고 이북 괴뢰 공군 비행기와 요동 만주 땅의 중공군 비행기의 뜨고 내림을 알 수

있거늘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을 모르시겠읍니까?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여 밭에서 쳐 죽인 것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셨고, 다윗 왕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궁중 깊숙한 방에서 범죄한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셨읍니다.

(3) 마음의 심판

이 말씀은 우리의 외면적 행동에 나타나지 않은 범죄까지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30절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했읍니다. 예레미야 17장 9-10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했읍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 30냥에 팔 것도 이미 아셨으며, 또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닭이 울기 전 세 번 모른다고 할 것도 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엑스 광선(X-Ray)을 찍으면 폐에 잘못된 것이나, 이(齒)의 뿌리가 썩은 것까지 찾아내거늘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것을 모르겠읍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진정한 회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방주사를 맞으면 전염병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이 회개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셨고,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했읍니다.

5. 진정한 회개

(1) 각성

먼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했고, 호세아 4장 14절 하반절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고 말씀했읍니다. 누가복음 23장 39-43절에 보면 강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늦게나마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는 끝내 깨닫지를 못하여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살인자로서는 최초자인 가인도 동생을 밭에서 죽이고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고 대답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죄값으로 벌을 받으면서도 구원받는 강도와 같이 이 벌이 나에게 마땅한 줄을 모르고 "내 죄가 너무나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가인은 깨닫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읍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밝은 빛 아래에서 말씀에 비추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어둔 맘을 비추사 믿기 전이나 믿고난 후에 지은 죄와 허물을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2) 통회

죄를 깨달은 후에는 죄에 대하여 더럽고 분하고 두려운 마음에서 통

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2-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했고, 누가복음 18장 9-14절을 보면 외식(外飾)하는 바리새교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세리의 기도는 들었읍니다. 세리는 감히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구원을 받았고, 신조나 경건을 가장했던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았읍니다. 시편 6장 6절에는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말했읍니다. 이 말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철저히 죄를 통회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죄책으로 몸은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얼마나 울었던지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게까지 하면서 통회 자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그 회개의 결과와 축복으로 평화의 왕 솔로몬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달아야 하고 또 이 죄를 뉘우쳐 마음을 찢어가며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며 진정한 통회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에 성자라고 불리우는 많은 신자들은 자기의 죄를 뉘우쳐 며칠씩 식음을 전폐하고 뜨거운 눈물로 참회했던 것입니다.

(3) 고백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만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천주교 신도들과 같이 매일,

매년을 할 필요는 없읍니다. 일생에 한 번만은 성직자나 혹은 장로님 그 밖에도 내가 믿을 만한 분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과거의 모든 죄를 증인을 세우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말씀했고, 레위기 5장 5절에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죄하였노라 자복하고"라고 했으며, 사도행전 19장 18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라고 했읍니다. 즉, 유대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범한 것을 제사장과 사도들 앞에 나아와 고백했던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읍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는 죄지을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며, 또한 마음에 참 평안과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치 않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아 그렇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성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있읍니다. 빌라도는 체면 까닭에 죄없는 예수를 못박으라고 내어 줌으로써 자기가 멸망을 받았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체면을 생각하셨다면 많은 남녀 군중 앞에서 벌거벗기우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겠읍니까?

요한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했읍니다. 특히 증인된 사람은 고죄(告罪)한 사실에 대하여는 끝까지 비밀을 엄수해야만 합니다.

(4) 보상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했으면 마지막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에

스겔 33장 15절에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고 했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했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갚아야 하고 사람 앞에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물질로 할 것이면 물질로 하고, 말로 할 것이면 말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10여년 전에 어떤 곳에 가서 집회 중 성령이 감동하여 성도들이 회개하는 중 어느 고등학생이 철야를 해가며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을 하고 그 이튿날 학교도 가지 않고 자기의 도둑질한 여러가지 물건을 하루종일 다니면서 청산한 이후에, 주 앞에 헌신하여 신학을 졸업한 후 지금은 훌륭한 목회자로서 승리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바입니다.

(5) 사죄, 칭의, 후사(赦罪, 稱義, 後嗣)

이와 같이 각성, 통회, 고백, 보상의 단계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이는 죄사함을 말함이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는 칭의를 말함이요, "이제 너는 내것이다"라는 말씀은 후사를 뜻함인데,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동시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이며 은혜로우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를 한 사람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의로움과, 담대함과, 감사와, 사랑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를 안할래야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마지막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회개치 않으면 시편 7편 12-13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갈으심이여 그 활은 이미 당

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라고 말씀했고, 잠언 29장 1절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고 했으며,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 18장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읍니다.

때는 모든 징조를 보아 말세가 가까왔읍니다. 구약에는 물과 불로 부분적으로만 심판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전 지구 땅덩이를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한 것은 여전히 죄악된 생활에서 살다가 불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인가에 대한 묻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대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바울의 회심

(사도행전 9: 1-9)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서 흑암한 소아시아와 구라파에 광명한 빛을 던져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 14권(혹은 13권)이란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인물이며 또 기독교의 교리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또 바울이 없었다면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할 만큼 바울은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든다면 구약에 있어서는 모세를, 신약에 있어서는 바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독교 제2의 창설자라고까지 불리우고 있읍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도의 생애를 살펴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및 기독교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우기 그는 원래 기독교를 누구보다도 핍박했던 인물이었으나, 또한 회심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열성적인 기독교인이었기에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으며 무엇이 그를 다른 인간으로 개조를 시켰고 어떠한 생애와 업적을 남겼는지를 생각해 볼 가치와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1. 회심 전의 바울

여기에 관해서는 빌립보서 3장 5-6절 및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대략 기술되어 있읍니다.

첫째,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곧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민(選民)임을 자부하는 말입니다.

둘째, 혈통으로 본다면 벤야민지파 사람이었읍니다. 이 지파는 호전적(好戰的)인 지파로서 많은 장군을 배출했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왕도 이 지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즉, 왕족의 혈통과 귀족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째, 국가적인 배경으로 말하면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였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 혹은 불란서 시민권을 갖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가 보통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등 국가의 시민권을 갖기를 무척 동경할 것입니다. 그 당시 천하를 제패하던 로마, 권력과 명예의 상징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과연 영광스런 자랑거리가 넉넉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므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로마 시민권을 샀거나 아니면 로마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명예로 시민권을 받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하여튼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권력과 명예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네째, 출생지로 말하면 그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읍니다. 이 곳은 팔레스틴(Palestine) 이외의 지방으로서는 유일한 대학의 소재지요, 동서제국의 종교 집합지이며, 문물과 민족이 상합(相合)하는 국제도시요, 무역의 중심지이며 자유의 도시로서 철학,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므로 이지적(理知的) 자극이 풍부한 세계적 정신이 충일(充溢)

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태어나고 자라났다는 것은 장차 이방 사도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부터 이방 문화에 목욕을 시키고 쓸만한 그릇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섭리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학벌(學閥)로 말하면 다소대학을 나왔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다년간 학문을 닦은 사람으로서, 즉 오늘날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훌륭한 학자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소대학에서 지혜의 본산인 희랍의 문학과 철학과 예술을 배우고 또한 로마의 정치, 경제, 법률을 배우고 가말리엘 문중에서 동양철학과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예를 가졌을 것입니다.

여섯째, 종교적으로는 그는 바리새교인이었읍니다. 바리새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 알고 있듯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다섯 살이 되면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여 열 살이면 율법을 끝마치고, 열 세 살에 율법의 아들이란 이름을 받고, 한 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고, 어김없이 십일조를 바치며, 밤낮 성경공부를 하고 기도를 생활로 삼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구제사업에 참여하는 경건하고 엄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그가 얼마나 율법에 충실하고 자기 믿음에 투철했는가를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윤리적으로 말하면 그는 절대 유일신(唯一神)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토대 위에서 엄숙한 윤리관념과 열렬한 애국정신으로 율법에 대하여 전신적(全身的) 충성을 바쳤던 율법적, 도덕적인 면에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읍니다.

여덟째, 성격을 살펴 보면 그는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분명히 할 줄 아는 강직하고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읍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기가 이단이라 믿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밝힌 바와 같이 전에는 훼방하던 자요, 핍박

하던 자요, 능욕하던 자이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도 부족하여 다메섹으로 도피하던 기독교인들까지 박멸하려고 예루살렘 공회의 인증을 받아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최선봉자였던 것이었읍니다. 과연 그가 철저한 반기독교인으로서 악착스럽게도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것은 그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읍니다.

이상에서 말해온 바와 같이 세상적으로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학식을 갖추고 신앙적으로는 열렬한 율법주의자로서 그처럼 악착스럽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하던 바울이 어떠한 동기가 있었기에 180도 방향을 바꾸어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뜻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예수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이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읍니다.

2. 회심한 동기

바울이 회심한 동기는 간접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으로 나누어서 각각 몇 가지 동기를 들 수 있겠읍니다.

(1) 간접적 동기

첫째, 스데반의 죽음을 들 수 있읍니다. 스데반이 무지한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마음은 화평하고 그의 얼굴에는 눈부신 광채가 발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진 돌에 죄없이 맞아 죽어가는 그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가해자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기는커녕 도리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그 때에 바울은 놀랐읍니다. 그는 전에 한번도 이렇듯 위대한 죽음과 이토록 거룩하고 숭고한 정신을 목격한 때가 없었던 것입

니다. 바울이 이러한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할 때 스데반이 믿는 그리스도는 확실히 위대한 분이란 것을 느끼고 큰 자극과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었읍니다. 사도행전 2장 44-45절을 보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유무상통(有無相通)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해 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실천의 생활은 바리새교인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신앙으로 여기에 사도 바울은 큰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째, 그는 자기의 신앙 경험에서 이미 회심의 준비가 마련되고 있었읍니다. 그는 바리새교인으로서 의(義)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어 계명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오랜 동안 무척 애를 썼으나 마침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적어도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써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이상(理想)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탄식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다시 24절에 가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절망적인 체념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인도의 싼다싱(Sunder Singh)도 열곱 살에 인도 경전(經典)을 암송하고 열 여섯 살에 시쿠교(Sikhism) 성경을 다 읽고 회회교의 코란경(Koran)과 인도의 철학 우파니셔드(Upanishad)를 독파(讀破)하고도 끝내 그에게는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지 않았읍니다. 그리하여, 그는 번민 끝에 막다른 골목에서 목숨까지 끊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참된 신을 그에게 보여 주고 믿게 했던 결과 그는 인도의 위대한 성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미 각국에까지 영향

을 끼친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신앙생활에 감명을 받고 자기의 종교적인 번민이 자기가 믿는 신앙에 회의(懷疑)를 일으키게 한 것이 바울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한 원인이었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마침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그의 회심을 성취시킨 직접적인 결정적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고 참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친절히 찾아오신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읍니다.

(2) 직접적 동기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가담하고, 공포에 떨며 쫓겨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그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홀연히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 앞에 비추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에 그는 그만 눈이 부시어 그 자리에 푹 거꾸러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 그의 눈은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읍니다. 다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엄숙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풀이 죽고 완전히 압도당한 가운데 "주여! 뉘시오니까?" 하고 간신히 물어 볼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부터 품어 오던 예수에 대한 어렴풋한 신앙은 이제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때야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됨과 자기의 구주(救主) 됨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고 간증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인 것입니다. 모세도 가시밭 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애굽에서 노예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다섯 남편을 가진 수가 성의 음녀(淫女)도 예수를 만남으로 숙녀(淑女)가 되었고, 도둑질하는 세리 마태도 예수를 만날 때 그가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음 직전에 놓인 강도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구원함을 받은 것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중생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광채 앞에 푹 고꾸라진 이후에 다메섹 성안으로 들어가서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수일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회하는 엄숙한 기간이었읍니다. 사람마다 너무나 심각한 고뇌에 부딪치면 침식을 잊어버리는 법입니다.

이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평신도의 한 사람인 아나니아를 고민과 회개의 깊은 지경에 빠진 바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눈을 감고 고뇌하고 있는 사울에게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위로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행 9 : 17 하반절)라고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기독교의 원수와 기독교인들의 저주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기는커녕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며 위로해서 눈을 뜨게 해 주었고 더욱 그를 감명 깊게 하였던 것은 원수를 '형제'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여기에

서 사울은 오늘날까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섬겨 오던 철학과, 신학과, 원리, 이 모든 것을 분토(糞土)와 같이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새 출발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곳을 떠나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갔읍니다. 3년 동안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부르심을 위하여 역량을 준비하고 있었읍니다. 그후 다메섹으로 돌아와 다메섹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매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밖으로 달아내려 위기를 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또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改名)을 했으니 "사울"이란 말은 "크다"는 뜻이요, "바울"이란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성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베드로와 야곱을 방문하고 제자들의 관용을 입어 그리스도의 사도의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에 못 견디어 다시 다소 땅으로 돌아가 영적 생활의 발전을 위하여 십여 년간 깊은 수양의 경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후 그는 다메섹과 예루살렘, 시리아, 길리기아, 안디옥, 빌립보, 로마, 희랍, 서반아에 이르기까지 동분서주(東奔西走)하면서 일심(一心)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읍니다.

그는 이같이 소아시아, 희랍 지방을 전후 3회나 전도여행(傳道旅行)을 다녔으며 각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며 더욱 분발하여 많은 교회를 설립했읍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 옥중에서 5년 동안 고생했으며 마지막 유대인의 시기, 질투, 중상모략으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에서 2년 동안 옥중생활을 하고 주후 66년경 네로의 핍박으로 로마 오스티아(Ostia) 거리에서 순교의 붉은 피를 흘렸읍니다. 아! 과연 이십여 년 동안 불철주야(不撤晝夜) 말씀의 사자로서 얼마나 장엄하고 눈부신 활약이었읍니까?

3. 회심 후의 생애

회심 후의 바울은 어떠한 생애를 보냈는지 살펴 보아야 하겠읍니다. 사도행전 20장 17-38절까지를 상고(詳考)해 보면,

(1) 눈물의 생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였읍니다.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뜻없는 심정에서 억지로 지어낼 수 없는 것이 눈물이요, 북받치는 심정에서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이 눈물입니다. 눈물 있는 곳에 감동이 있고, 눈물 있는 곳에 여해가 있고, 눈물 있는 곳에 참된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눈물은 인육(人肉)에 사로잡힌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사죄의 감격의 뜨거운 눈물과 동시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도고(禱告)의 눈물이었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번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읍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우셨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죄값으로 멸망 직전에 놓였음에도 이 급박한 때를 알지 못하고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희희낙락하는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긍휼의 눈물을 흘리셨으며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면서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 찬 멸망의 세대를 향하여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출 때가 아니라,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인 줄 압니다.

(2) 겸손의 생애

사도행전에서 "그가 주를 섬기기에 크게 겸손했다"(행 20 : 19)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벌로나, 문

벌로나, 종교적 배경으로나, 국가적 배경으로나, 어느모로 보더라도 얼마든지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세상적 명예와 권력을 주앞에서는 분토같이 내어 버리고 겸손히 주를 섬기기를 죽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겸손은 제덕(諸德)의 기초요, 교만은 패가망신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자기를 낮추어 말하기를 "나는 만삭이 못된 사람이라"(8절)고 했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8절)고 고백했으며, 또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15절)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3) 인내의 생애

사도행전 20장 19절 하반절에는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라고 되어 있읍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23-27절)고 술회(述懷)했읍니다.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견디었던 것입니다. 인내는 화평을 유지케 하는 비결이며, 믿음을 보호해 주고, 사랑을 육성케 하며, 겸손의 생활을 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죄 많고 부패한 이 세상 중에 오셔서 배고프신 것도 참으시고, 목마른 것도 참으시고, 조롱과, 모욕과, 핍박도 참으시며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까지 말없이 참고 순종했던 것과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잘 참는 것이 곧 성도(聖徒)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우들의 가정과 교파간의 분쟁, 교역자간의 불화는 다 이 인내의 부족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4) 청렴한 생애

사도행전 20장 33-34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하였읍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천막을 짜 가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自費)로 전도하였읍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참으로 청렴한 분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내가 여기에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뉘 소를 취하였느냐 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뉘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뉘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3-4절) 하였고, 베드로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였읍니다. 오늘날 교인이나 성직자 가운데 어 물질에 깨끗하지 못하여 주의 빛을 가리우고 영광을 더럽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5) 전도의 생애

사도행전 20장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21절)고 했으며 또 고린도전서 9장에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음이라"(16절) 고 하였읍니다. 그는 불타는 사명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읍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함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했읍니다. 본국 사람에게나 이방 사람에게나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파했읍니다. 즉, 옥중에 있을 때는 옥사장에게,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절망과 공포 중에 있는 모든 선원과 승객들에게,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도,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읍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멸시받는 민족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황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버렸던 가장 세력 없고 돈없는 노예계급에 속하는 천민들이었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같이 약하고 멸시받는 민족에게서 나온 것이었읍니다. 또한 복음의 진수(眞髓)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형(十字架刑)을 받고 수치스럽게 죽어갔던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수자에 불과한 신흥(新興) 종교단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로마인은 법과 권력과 세력을 숭배하는 종족이었기에 이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유대민족은 가장 길고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불과 500년의 역사를 가졌음에 불과했으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낳은 위대한 전통의 긴 역사

의 나라였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로마의 권력에 일언반구(一言半句)의 저항도 없이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의 예언을 실현하셨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영광스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권능과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여 과학 만능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즉 비행기로 태평양을 날으고, 월세계를 여행하고,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그 위력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사람의 생명이나 영혼을 창조하고 구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영생을 얻게 하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기독교가 소규모적이고 미미한 종교단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장차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질 것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전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았읍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헬라와 로마를 정복하고 나아가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폭소와 냉대와 멸시를 달게 받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용모도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고, 체구는 보통 사람보다도 작고, 눈에는 안질이 있고, 언변도 신통치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들은 다음 옛날의 자기를 버리고 180도 방향 전환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성령을 받아 그의 일신을 바칠 때 바울 자신의 생애는 물론이요, 세계 역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과연 바울은 철저한 체험의 사람이요, 확고한 사명감에 살던 사람이요, 불타는 정열의 사람이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순

교적 각오를 가지고 몸바쳐 일한 용감하고 충성스런 하나님의 종이었읍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는 새로운 각광을 받을 수 있었읍니다. 한 사람의 화심,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소한 것일는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천하보다도 중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Augustine) 한 사람의 회심으로 중세 암흑시대에 빛을 발했고, 웨슬레(Wesley) 한 사람의 회심으로 18세기 영국은 암담한 궁지에서 새로운 건설을 이룩했고, 디 엘 무디(D. L. Moody) 한 사람의 회심으로 위기 직전에 놓인 19세기 미국의 정신문명은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한 사람의 회심과 위대한 역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우리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사람된 사도 바울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멸시와, 핍박과,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사(生死)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확고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적어도 한 번 만은 다메섹의 바울과 같은 180도 회심의 체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150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바울 같은 체험을 얻어 바울 같은 생애를 보낸다면 기독교는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위기에 처한 민족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Ⅱ편

교리와 구원

법궤와 교회

십자가의 도

죄 값은 사망이다

지옥과 천국

법궤와 교회
(히브리서 9 : 1-10)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법궤(法櫃)를 하나님의 임재(臨在)와 예배의 대상으로 섬겨 왔읍니다. 구약성경을 잘 상고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잘 받들어 올 때에는 개인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흥 발전되었읍니다마는 반대로 함부로 취급할 때에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불행을 초래하고, 나라가 원수의 침입을 받아 패망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읍니다. 이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몸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구원을 받으며, 찬송을 하는 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견적(可見的) 교회와 불가견적(不可見的) 교회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즉, 가견적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현세의 유형적인 교회당을 말함이며 불가견적 교회는 거듭난 심령인 마음의 성전과 또 하늘나라에 간 성도의 거룩한 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법궤의 역사

(1) 법궤의 안치 장소

법궤는 어디다 갖다 안치하느냐 하면 불교의 절당과 같이 깊은 산속 따뜻한 양지쪽 바람소리, 새소리, 흘러가는 물소리만 들리는 그러한 한적한 곳에 갖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금욕주의, 은둔주의, 도피주의, 무사안일주의가 되어서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바람불고 모래알 날리고 짐승들의 약육강식, 우승열패, 적자생존의 사회라고 말하는 그 황막한 광야에다가 성막을 쳐놓고 그 속에다 법궤를 두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성막 장소를 옮겨 가지고 촌락, 읍 등의 복판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그 장막 속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휘장 속에 있는 깊은 지성소에다 법궤를 안치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나 은둔주의나 도피, 안일, 무사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 가시밭의 백합화의 직분, 의로운 병기(兵器)의 직분, 마지막 예수의 편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죄와, 불의와, 세상과, 이단과,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그 사회를 정화(浄化)시키어 마지막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그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사명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자 중에는 교회의 본질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다만 나 하나만 구원을 받고 나 하나만 은혜받아 내 가족만 평안하면 이것으로 자족(自足)해서 스스로 위로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하나만 평안하게 지내고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없으면 이것으로 족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또 어떤 교파 가운데는 우리 교파만 택함을 받는 백성들이요, 우리 교회만 14만 4천 명 가운데 속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파만 구원받으면

만족이라는 이러한 독선적인 이교적 정신과 같은 이질적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대사도(大使徒)도 성령을 받지 못할 때에는 기독교의 본질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누가복음 9장 28-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세 가지를 잘못 고백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읍니다.

한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의 얼굴이 변하고 그 옷이 광채가 날 때에 베드로가 거기 그 황홀찬란한 장면에 도취해 가지고 세 가지를 잘못 말했읍니다. 선생님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즉, 다시 말하면 천국관, 기독관, 사명관을 잘못 생각했읍니다.

첫째, 베드로의 천국관. 여기가 좋사오니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가 저 아래보다 낫다. 저 아래는 사람이 많고 정치 싸움, 경제 싸움, 사상 싸움, 또한 종교 싸움, 또 병자도 많고 거기는 아픈 것도,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먼지도 많으니 저 더러운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이 산꼭대기가 이렇게 공기가 맑고,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전망도 좋으니 우리끼리 여기에 장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야, 여기가 천국인 줄 아느냐? 내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남을 섬기고 마지막 몸까지 버려 대속해 주러 왔단다"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내외간에 건강하고, 경제 사정이 넉넉하고, 살림살이나 잘 만들어 놓고, 아들 딸 낳아서 아기자기하게 살면 그게 천국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고 영원한 내세에 대하여도 관심이 없이 그 가정, 그 내외, 그 자식, 그 살림, 이것만 가지면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파에 천국관을 결부시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의 천국은 계시록 2장 1-5절, 또한 계시록 22장 1-5절에 나오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여기만이 천국이지 이 땅에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네 가지 천국인데 마음천국, 교회천국, 지상천국, 영원천국을 말하며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산이 천국인 줄 알았읍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고 대답하셨읍니다.

둘째, 베드로의 기독관. 장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함은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아와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의 본체(本體)요, 창조의 근본이요, 생명의 주시요, 만민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라는 이런 올바른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이 심히 적고 다만 예수를 인격자로, 혁명가로, 사회사업가나 위대한 성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추운 겨울날 어떤 시골에서 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교회에서는 예배가 시작되었읍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 뜻밖에도 그 지방의 유지(有志)요, 그 지방에서 열렬히 불교를 믿는 한 어른이 예배에 참석했읍니다. 예배가 필한 후 목사님은 너무도 고마와 악수를 청하면서 '고맙습니다' 했더니만 '무엇이 고마와요?'라고 반문하더랍니다. '선생님이 깨달으시고 계시종교,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로 개종하시려고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보시게 되니 제가 고맙단 말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젊은 사람들도 선생님을 따라 얼마나 많이 나올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테니 제가 고맙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그는 또 대답하기를,

'누가 예수믿는다고 했읍니까?'

'아니 그러면 선생님 교회에 어떻게 나오셨읍니까?'

'아, 목사님도 저 밖을 보시오, 눈이 많이 와 깔렸고, 바람은 모질게 불고, 절간에 가자니 멀고, 밤길에 비탈길을 오르자니 미끄럽고 그러니 그저 공자님에게 가나, 석가님에게 가나, 예수님께 가나, 다 성자는 마찬가지니까 오늘은 내가 가까운 예배당에 왔을 뿐이지 누가 예수믿는다고 그랬소?' 라고 하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하나의 수양의 대상으로, 하나의 도덕가로, 하나의 어떤 인격자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간디나, 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같다고 생각하여서는 큰 오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대적으로 보더라도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보아서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제자들이 말했고, 성인들이 말했고, 마귀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확신을 더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의 양성(兩性)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보아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읍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였읍니다.

인간을 접촉해서 인간의 사정(事情)을 아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셨읍니다. 만약에 신(神)으로만 오셨다면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접촉을 못하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읍니다. 또 왜 신성을 가지고 오셨겠읍니까? 사람으로만 오시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가지시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오셨읍니다. 무엇을 보아서 신성입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자연계를 정복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고,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신 것을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세째, 베드로의 사명감. "여기서 삽시다" 함은 산 아래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베드로는 생각지 못했읍니다. 그저 나만이 구원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자신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 것을 각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려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박을 것도 내다 보았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왔읍니다. 빌라도 뜰에 걸어 들어갔읍니다. 가시관과 능욕(凌辱)의 십자가, 수치(羞恥)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로 끌려가셨읍니다. 마지막에는 강도 틈에 벌거벗고 여섯 군데나 상처를 입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를 구원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에 그저 나 하나, 내 가정 하나, 내 교회 하나, 내 교파 하나만 은혜받고 평안하면 이게 다인줄 압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말하기를 "예배당이 극장보다 달라 왜 창문이 많은 줄 아느냐?"라고 했읍니다. 극장에는 창문이 많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음침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창문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세상을 밝히 내다보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밝히 보고 사회 어디가 잘못되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것을 보았으면 우리

가 나아가서 봉사해 주어서 그 욕구를 충당해 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알기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적이면서도 인간적이요, 영원적이면서도 시간적이요, 내세적이면서도 현세적이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요, 신앙이면서도 행위요, 보수적이면서도 급진성이 있는 이 양면성을 가져야만 올바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람낚는 어부가 되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읍니다마는 베드로도 한때 성령받지 못해서 기독교의 본질과 사명을 깨닫지 못했읍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인 가운데에 그 본질을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와 성령과 은혜 시대이고 복음주의 시대입니다만 아직도 구약의 율법적 제사와 몽학선생(蒙學先生)의 지도를 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신앙은 연조나 변태적으로 흐르는 경향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외국에서 한국까지 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어리석음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복음적인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목사, 신부, 선교사 등 여하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줄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성전휘장(聖殿揮帳)이 쭉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기 전까지는 이 인간들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고 법궤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으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일 년에 꼭 한 번씩만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므로 인하여 주님이 만든 복음

시대에 와서 율법은 종지부가 찍어지고 오직 십자가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면 신부에게 가서 고백 아니해도, 목사, 장로, 권사, 자칭 부흥사에게 가서 안수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2) 법궤의 재료

아카시아나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소중한 것이므로 값비싼 감람나무나, 잣나무나, 백향나무나, 종려나무나, 송나무 등 이런 좋은 나무로 만들었으리라고 생각되겠지만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싯딤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싯딤나무를 우리말로 아카시아나무라고 합니다. 가장 못생기고 흔해 빠진 아카시아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 가지고는 강대상도, 장농도, 의자도 만들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한 가지 쓸 데 있읍니다. 그것을 쪼개어 가지고 말렸다가 아궁이에 때면 잘 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초대교회를 형성하시고, 이 복음을 세계에 반포(頒布)하시고, 영혼을 건지려고 할 때에 좋은 나무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희랍의 철학자나, 로마의 정치가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초대교회를 형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일 못생기고, 제일 쓸모 없고, 제일 흔해빠진 천민들을 불러왔는데 고기잡는 어부 베드로, 세리로서 로마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민족 반역자라고 하는 세리 마태, 몸을 더럽혀서 돌무더기에 들어갈 다섯 남편을 가진 수가성의 음란한 여자,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 강도 사울, 이러한 아카시아나무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 아카시아 불이 괄한 것 모양, 성령의 권능으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이 복

음을 땅끝까지 밝힌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 성경을 떠나 역사를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읍니다. 5세기의 신학을 바로 조직해 놓은 어거스틴은 불량자로 쓸모없는 아카시아나무보다 더 못생긴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반석(盤石) 위에 세워 놓았읍니다. 또 16세기를 밝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독일 광부의 아들 마틴 루터(Martin Luther)이었고, 또 미국 19세기를 밝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두공장에서 일하는 국민학교 2학년 밖에 안 나온 디 엘 무디(D. L. Moody)였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황해도 신천(信川)의 불량청년 김익두(金益斗) 목사님이었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27-28절)고 하였읍니다.

여러분! 서울 장안(長安)에 문벌있고, 학벌있고, 돈많고, 권력있고, 훌륭한 사람 많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시간, 그 재주 가지고 안일과 방탕으로 세월을 보내는 자 많지만 우리 이 아카시아나무 같은 성도들은 예배당도 새로 짓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3) 법궤의 포장

금칠(믿음). 하나님의 법궤는 아카시아나무이므로 아무것으로나 칠했을 것 같은데 도리어 순금으로 안팎을 칠했다고 했읍니다.

우리 몸은 아카시아나무같이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이 몸에다 무엇을 발랐는가 하니 순금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안과 밖을 씻어서 발라 주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피라는 것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과 은은 보

배로운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것은 성경에 "믿음"이라고 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2천 년 동안에 무엇을 해 왔읍니까? 보십시오 미신 타파, 민주주의 사상 앙양(昻揚), 문맹 퇴치(文盲退治), 여권(女權) 존중, 아동 보호, 계급 타파, 노예 해방, 해상(海上) 사유재산권 보호, 죄수 관대법(罪囚寬待法), 국제 재판, 만방구제사업, 만민구령사업,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무엇 가지고 했읍니까? 칼 가지고 했읍니까? 정치와 타협을 했읍니까? 아니 돈이나 밀가루를 갖다 뿌려 가지고 했읍니까? 그 지방에 들어가서 저속한 값싼 풍속과 타협을 해서 했읍니까? 이렇게 복음이 오늘날 전파되고 놀라운 사업을 이룩한 것은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큰 부자인 남자 집사 한 분이 있었읍니다. 그 집사댁 셋방에 사는 어떤 과부 한 분이 있읍니다. 추수감사절날 연보하는데 보니까 그 주인이라는 집사는 만 원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셋방에 사는 그 과부는 오만 원을 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라는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물질로만 되는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법궤의 장물

이 법궤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세 가지의 장물(藏物)이 있다고 했읍니다. 하나는 썩지 않는 만나, 둘째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세째는 모세의 십계명의 돌비석이 있었읍니다.

(1) 썩지 않는 만나

썩지 않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림을 받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얻어가지고 소생을 해서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영(靈)의 양식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고로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할머니가 그날 예배를 보고 집에 오더니만 자기와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고등학생 손자에게 '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요사이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공부하다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설교를 유식하게 하시는지 나 같은 할머니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겠더라'고 손자에게 이야기하니 손자가 호기심을 갖고 저녁 예배 때 할머니 다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무엇을 잔뜩 적어 가지고 와서 한 장씩 넘기면서 과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말씀하시니 노인도, 소년도, 그리고 다른 많은 신자들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더란 것입니다. 물론 이 제단에서 과학을 말하고, 문학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법학을 말한다고 그것이 이단이거나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객(主客)이 전도(顚倒)돼선 안 됩니다. 우리가 밥을 한상 받았는데 국그릇을 보니까 국물은 철렁철렁 넘을 만큼 많이 떠 왔는데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암만 휘둘러 보아야 건데기는 하나도 없고 또 국물과 깨소금, 파, 후추가루, 조미료만 잔뜩 넣어도 그 국이 먹을 것 없는 것 모양 이 설교에 가장 중심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학술 강연회장으로 오인하는 현대 교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만 전파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남아서, 회개, 중생, 성결, 성령충만,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만 하셨지만

그 말씀이야말로 모든 인생들의 어려운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서도 거기에 깊은 뜻이 다 들어서 모두가 소화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지 아무리 학술적으로 설교를 해도 남이 이해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있읍니다. 요사이 한국 강단에는 학술, 자기자랑, 야화, 기압, 정치 강단 등이 있어서 점점 약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읍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하반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읍니다.

(2) 아론의 싹난 지팡이

기독교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위도 밑도 잘라졌는데 여기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읍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공자는 죽은 후에 다시 살지 못했읍니다. 그 시체가 중국 산동성 평창에 있다죠? 아니 석가모니 시체는 인도의 살수서안에 있다죠? 마호메트의 시체는 아라비아 메카에 있다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없읍니다. 사흘 만에 부활승천 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살아있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란 것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19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로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보다도 가장 복음적인 부활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내가 예수믿어 세례받아 옛 사람이 다 없어지고 성령받아 새 사람이 되는 나의 인격과 생활이 전폭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이 참된 부활입니다.

가정 전도라는 것은 목사님이 아무리 제단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야 안됩니다. 가정 전도는 먼저 믿는 사람이 거듭나서 가정 식구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것 밖에는 가정 전도를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먼저 현재적인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부활이 아니고 어떤 역사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부활보다도, 현재적 부활이 기독교의 복음적인 부활입니다.

(3) 돌비에 새긴 십계명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헌법입니다. 저는 지금 법을 세 가지 지킵니다. 제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군목이기 때문에 군법을 지킵니다. 그 다음 제가 천국시민(天國市民)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 천국법(天國法)을 지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 이것이 첫계명 아닙니까? 만약 우상을 섬기려면 일본의 팔백 만 신(神)보다 적지만 우리 한국도 동쪽에는 청재귀신, 북쪽에는 흑재귀신, 남쪽에는 적재귀신, 서쪽에는 백재귀신, 중앙에는 황재귀신, 어린애 낳으면 삼신귀신, 사람 죽으면 염라대왕 귀신, 처녀가 죽으면 악귀귀신, 총각이 죽으면 몽달귀신, 영감이 죽으면 주절이귀신, 부엌에 가면 주방귀신, 뒷뜰에 가면 터주까리귀신, 집 뒤로는 조상귀신, 길거리 가면 대장귀신, 들판에 가면 고신에 귀신, 산넘어 가면 서낭당귀신, 산에 가면 산신령귀신, 바다에 가면 용왕귀신, 그 다음엔 한강에 빠지면 연애귀신, 달걀귀신, 장떼기 귀신, 말매기귀신, 떽떽구리귀신, 이것을 다 섬기려면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심지어는 이사가면서도 날짜를 따져 봅니다. 오늘 손이 있나 없나 이렇게 정성껏 따지는 사람이 6·25 사변에 빨갱이가 오니까 날짜도 안 따지고 도망만 잘 갑니다.

십계명은 우리 믿는 사람의 법입니다. 이것을 지키려면 내 지식, 내 열심, 내 체험, 내 수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이것을 지킬 수 있읍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볼 것 같으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일곱 가지 자

격(마음의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사모, 자비, 깨끗, 화목)을 가져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나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살인과 간음과 맹세를 말아야 하고, 보상은 무저항주의로 나아가고, 사람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고, 재물은 하늘에 쌓아 두고, 염려는 말 것이며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마땅히 근로(勤勞)해야 하며 남을 비평하지 말고 몸을 깨끗이 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할 것이며, 신앙의 집은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세워야 할 것을 가르치셨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읍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살 것이고 못받으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법궤의 취급 방법

(1) 이기적으로 하지 말 것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패(敗)해 가지고 사천 명이 죽었읍니다. 후퇴를 해가지고 와서는 그냥 모두가 가슴을 찢으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며 그래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저 개 같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패하고 사천 명이나 죽었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하니 그 때 어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 원인이 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더라면 이겼을 것인데 우리끼리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졌지 않느냐? 우리의 조상들은 과거 법궤를 앞에다가 모시고 나갈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법궤를 가져 갔더라면 이겼을 것인데 우리끼리 갔기 때문에 졌다”고 했읍니다. 그후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

성들은 진군(進軍)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나아가니까 기도는 않고 요행만 바랐읍니다. 그리고, 싸웠더니만 아주 대패(大敗)를 해가지고 삼만 명이 죽고 법궤까지 송두리째 뺏겨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패한 원인이 세 가지 있읍니다.

첫째는 지도자의 죄가 있었읍니다. 엘리라는 선지자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제사를 못지내므로 엘리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살찌고 기름진 것은 다 먹고 나쁜 것만 가지고 제사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자주적 정신이 없었읍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후에 못하는 것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자기들은 싸울 생각을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신다 나가신다 법궤가 나가신다'고 허황한 소리만 하다가 패한 것입니다.

세째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으므로 패했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준전시(準戰時)가 아닙니까? 대남(對南) 간첩들은 점점 내려오고, 일본은 재무장(再武裝)하고, 중공은 원자탄을 가졌고, 소련은 그들의 수상 후르시초프를 실각시키고 여러 가지 새로운 각도로 또 세계 정복을 위해서 꿈꾸고 있는데 이러한 위급존망지추(危急存亡之秋)에 놓여 있는 시기에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만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안 믿고 무엇을 믿는가 하니 원조라는 구호물자와 유엔(U. N.)이란 법궤를 믿습니다. '나가신다 나가신다 유엔 법궤가 나가신다, 미국이 나가신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민족의 앞날은 암담할 따름입니다.

(2) 인위적으로 하지 말 것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법궤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법궤가 빈 들판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사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마차에 싣고 가다가 그만 소가 뛰어서 법궤가 수레 위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손으로 붙잡다가 즉사(即死)했읍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넘어지는 법궤를 넘어지지 않게 했으니 칭찬을 하여야 할텐데 도리어 죽었으니 매우 의문시 될 것도 같으나 하나님의 법궤는 성경에 보니까 손으로 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 메는 것이라고 했읍니다. "어깨에다 메라"고 했는데 손으로 댔다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3) 신령과 진리로 할 것

교회란 신령과 진리로 운영을 해야지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돈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집사 장로로 세우고, 세력있는 사람이면 교회의 직분을 맡기는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시간을 잘 지키고, 예의를 잘 지키고, 의복도 사치는 그만두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신·구약 성경도 가지고 나오고, 불신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대표로 기도하면 마음을 합쳐서 인격적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해야 하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좀 주목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야 하고, 헌금할 때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독일이 부흥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밑받침이 부흥하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Bismarck)는 교회 짓는 데 얼마나 열심이던지 하여튼 다니다가 공터

(空地)만 있으면 예배당을 세웠읍니다. 그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고 하니 "대머리 까진 사람들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꼭 붙잡고 다녀야지 만약에 모자가 벗겨져서 민둥한 데만 보이면 대머리에다 비스마르크가 예배당 지을지 모르니 조심하라"고까지 할 만큼 교회 짓는 데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하나 짓는 데 자그만치 400년 걸려서 완성된 교회가 현재 독일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바로 알려면 어디 가야 아느냐 하면 저 북쪽 대서양쪽에 있는 메사츄세츠주 프리마우트(Plymouth Massachusetts)에 가서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제임스주 왕의 종교적 핍박 때문에 거기서 더 살 수가 없으므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순결을 위해서 정든 고향 산천 다 버리고 성경책 하나 들고 배를 타고 두 달만에 건너와서 살게 된 청교도들의 신앙의 역사를 고찰하지 않고는 미국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오늘의 미국 된 것은 이 청교도들의 신앙에 입각한 순수한 신앙이 오늘 미국이란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면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야단입니다. 자유가 좋지만 빵 없는 자유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흘 굶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食後景)"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 먹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경제문제는 국제문제요, 국제문제는 인간문제요, 인간문제는 도의(道義)문제요, 도의문제는 교육문제요, 교육문제는 종교문제인 것입니다. 국제문제가 해결되면 서로가 이민 가고 땅 넓은 데 가서 살게 되면 서로 많은 데서 도와주고 일으켜 주면 이 세계가 오늘보다 낫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위성과 핵무기를 만들어 인간사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좀더 서로가 평화사업을 위해서 산다면 보다 더 잘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義)를 구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 주려고 합니까? 집, 땅, 저금통장, 훈장 등은 다 소용 없읍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하나 물려 주십시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면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만 이 나라와 사회가 정화(淨化)되고 다시금 부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받들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못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서로가 합심하여 힘써야 하겠읍니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 : 18-25)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 : 18)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진가(眞價)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시계 하나와 사탕 한 개를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에게 제시한다면 그는 후자를 취하기를 주저치 않는다고 할 때 그에게 시계라는 귀중품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하겠읍니다.

또한 더욱 좋은 예화(例話)를 든다면 독일의 광물학자 한 사람이 아프리카로 내려갔다가 금강석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고 금강석과 바꾸어서 본국으로 돌아와 자본가와 함께 다시 내려가서 금강석 광산을 개척하여 채광을 한 덕분에 독일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미국 뉴욕 맨하탄(Manhattan)이 한때는 무지몽매한 인디안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던 것을 서구인들이 가서 담요 몇 장, 성냥 몇 갑, 술 몇 병으로 바꾸어 오늘의 그 번영을 이룩했다는 것은 가치의 판단이 얼마나 중

요한가를 잘 알려주고 있읍니다.

십자가의 진가를 아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보다도 귀하지마는 그 참 값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찮은 것으로 도외시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십자가 속에는 영향력, 폭발력, 부흥력, 해부력, 중생력, 성결력, 인도력, 해방력, 방비력, 축복력, 구원력, 융화력, 자선력, 찬송력 등 온갖 놀랍고 귀중한 능력이 있기에 이 능력이 기독교 2,000년사를 통하여 민주주의사상 앙양, 문맹퇴치, 여권존중, 아동보호, 계급타파, 노예해방 등 인류의 평화와 복지향상에 기여한 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같이 중대한 십자가라 하더라도 그 참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글자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지만 자세히 상고하면 할수록 오묘한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글자는 규칙에 따라 바르게 써야만 제뜻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 십자가는 아무리 보아도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십자가를 바로 보자.

첫째로는 이 "십"자를 똑바로 보고 믿어야만 십자가의 참 뜻을 터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맨 꼭대기가 성부, 양 옆이 성자와 성령이요, 맨 밑이 인간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서만이 십자가가 지시하는 올바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십자가를 거꾸로(┼)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그들 중 어떤이들은 본말(本末)을 전도(顚倒)해서 맨 밑에

어야 할 사람이 맨 위로 올라가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읍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섬겨야 할 자기의 본래적인 임무를 망각하고 도리어 십자가를 자기의 목적에 이용하고 교회를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한 온갖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로는 어떤이들은 십자가를 옆으로(一) 믿는 사람들이니 그들은 "하나님"이나 "나"나 다 같다고 신과 인간의 동등을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시비와 분쟁은 "같다"라는 주장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러 왔노라"고 하셨고, 또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해도 저는 흥해야 하겠다"고 하신 것은 다 남을 자기보다 높이는 마음이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며,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만이 우리가 갈망하는 참된 화평은 이루어지고 유지될 수 있지 않겠읍니까? 이러한 정신을 망각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할 때 거기에는 교파간의 분쟁, 교역자간의 암투(暗鬪), 가정 불화만이 생겨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세째로는 십자가를 모로(丨) 믿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들은 "십자가는 다 하나다" 하고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예수님도 다 같은 성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물론 예수님도 성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자나 석가가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성인일지언정 결코 우리의 구주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오직 한 분이신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십자가를 뒤집어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엔 이미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컨대 어떤 가정에서 아침에 일

어나 단란하게 예배를 보지만 저녁 때가 되면 이미 가정불화를 일으켜 부부싸움을 한다고 하면 이는 곧 십자가를 뒤집어 믿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한 사람에게나마 십자가의 바른 정신이 있었던들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른 빰을 치면 왼빰마저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고 꾸러 오는 자를 물리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하는 부부와 싸움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읍니까?

오늘날 과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올바로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요? 그리하여 저는 가끔 말하기를 "기왕에 십자가를 믿으려면 거꾸로도 믿지 말고, 옆으로도 믿지 말고, 모로도 믿지 말고, 오직 똑바로 믿으시오'라고 외치곤 합니다. 믿으시려면 바로 믿으실 것이요, 믿지 않으시려면 그만 두시고 남이나 믿으시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못 믿는 바리새교인들을 책망하시며 가라사대 "너희들이 천국 문을 막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남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분노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인 십자가를 믿을진대 똑바로 믿어서 남에게 덕을 끼치고 의를 행하여 마지막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2. 십자가의 유래

예수님 오시기 전후해서 구라파에서는 십자가를 각양(各樣)의 모양으로 사용해 왔읍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극형을 처하는 형틀로 사용했읍니다. 그후 주후 3세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비로소 십자가의 극형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읍니다. 또한 칼세

지이(Galsagi) 사람이나 페니키아 (Phoenicia)사람들은 바알신의 희생에 드리는 기구로 사용해 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Persia) 사람들은 재앙과 사망에 대한 저주로 믿어 왔다고 합니다. 고대 불란서인은 창조와 다산(多産)의 표징으로 숭상했고, 중앙 및 남미 토인들은 우신(雨神)의 부호(符號)로 믿어 왔으며, 애굽, 인도,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십자가는 어떤 종교적 비의(秘意)가 있다고 믿어 왔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보면 희랍형, 소련형, 애굽형, 로마형 등 여러 종류에 달합니다. 예수께서 달리시어 돌아가신 십자가는 로마형 십자가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 나무 두 토막을 잘라서 묶어 놓은 것 같으나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이 나무 사방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종려나무, 하나는 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송나무 등 네 가지 각각 다른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각각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오묘한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가로로 보면 한문의 한일 자(一)요, 세로로 보면 아라비아 수자의 일(1)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동양 사람의 죄, 서양 사람의 죄를 모두 대속하신 십자가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또 다른 각도로 십자가를 고찰하다면 횡적인 것은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그리고 종적인 것은 '신과 인간'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신인합치(神人合致)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위대한 학자요,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증거하기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고 했읍니다.

문학과 철학과 예술을 찾는 인간 중심의 희랍인들이 보기에는 분명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요, 그들은 유대 민중의 찬미와 숭배, 그리고 왕의 명예도 다 버리고 채찍을 맞으며 가시관을 쓰신 채 말없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애굽에서의 열 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의 갈라짐과, 불기둥 구름 기둥이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듣고 보아온 이적과 신비를 찾는 민족이었읍니다. 이들이 보기에 벙어리와 소경과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말없이 순종하시며 형을 받으셨는지 못내 꺼림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헬라 사람이나 유대 사람에나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나 권능이란 말은 헬라 원어에 의하면 "두나미스(δύναμις)" 즉 "다이나마이트(dynamite)"란 뜻입니다. 십자가는 곧 능력이요, 폭발탄인데 이 폭발탄이 떨어지는 곳엔 무엇이나 파괴되고 맙니다. 집도, 일본 군국주의(君國主義)도, 히틀러(Hitler)의 독재도 이 폭발탄에는 당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폭발탄과 같은 십자가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터지면 죄악은 파괴되고, 새로운 인격이 창조되며, 가정 속에 들어오면 우상숭배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하고, 야만민족 속에 들어가 폭발되면 문화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마이트"는 첩첩 산중에 굴을 뚫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일찌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터운 죄의 장벽이 가로놓여 교통이 단절되었을 때 폭발탄 되는 이 십자가가 한번 갈보리 산상에서 터짐으로써 죄악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대로(大路)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구약은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를 내다보고 쓴 것이요, 신약은 갈보리 산의 십자가를 돌아다 보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3.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겠읍니까? 거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첫째는 모든 인생들에게 생활의 모범을 보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었읍니다(마 1:21, 막 10:45, 눅 19:10, 요 10:10). 지도자가 되려면 모름지기 그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기거(起居)와 고락(苦樂)을 같이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앞장을 서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자칭 지도자들이 그렇듯이 자기는 대중과 초연히 벗어나서 고왕독백(孤往獨白)하면서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다면 어느 누가 그를 참된 지도자로 추앙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겠읍니까?

또 예수께서는 모든 면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로의 정신" 가정적으로는 "효도의 정신" 사회적으로는 "봉사의 정신" 국가적으로는 "의무의 정신" 인류적으로는 "사랑의 정신" 종교적으로는 "경신(敬神)의 정신"을 몸소 행동과 생활로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들에게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 주시기 위한 성자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속사업의 성취"라는 인류사상 최초요, 최대요, 최후의 과업을 수행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극적 종말로 달리는 절망의 인류사에 영생이라는 최대의 희망을 선사했

고,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셨던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은 영원히 무너질 수 없었을 것이요,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의 자비요, 또 얼마나 감격 깊은 은혜의 십자가입니까?

이렇듯이 거룩한 목적으로 진리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선물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눈이 어두운 인간들은 빛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 곧 자기들과 자기들의 모든 소유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자기들의 주인이 오셔도 영접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왜 죄를 지어야 했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비롯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악과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고 논쟁이 많습니다. 즉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죄를 짓게 하시고, 또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인가?" 이것은 큰 의문점이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읍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양심이요, 국가적으로 말하면 법률이며, 종교적으로 말하면 계명이라 볼 수 있겠읍니다. 그 선악과는 ① 천지에 대주재자(大主宰者)가 있다는 것이요, ② 세상을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③ 인간들에게 중대한 직분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요, ④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표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부여된 자유를 남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잉태했고, 그리하여 그들의 자손이 되는 모든 인류는 그들의 죄를 유산으로 물려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 절제와 존엄이 수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은 이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선악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하는 것은 오랫동안 여러 학자들 가운데 논란되어 온 것입니다. 맹자나 스토익(Stoic) 학자들은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고, 순자나 어거스틴, 칼빈 같은 이는 성악설(性惡說)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자(告子)나 왕양명(王揚明), 윌리암(William) 같은 사람은 선악 불가지론(不可知論)을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인간이 나면서부터 죄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읍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젖을 먹는 어린 아이는 이웃집 아이가 자기의 젖꼭지를 물면 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아담의 정액(精液)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의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의 의(義)는 하나님 앞에서는 옷에 묻은 때만도 못한 보잘것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한줌의 흙덩어리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성령, 곧 하나님의 영(靈)이 떠나면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듯 죄많고 타락한 인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 사람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여 그리스도는 이 땅위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구태여 유대 나라에 오셨겠읍니까? 그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 유대 나라는 구라파, 아프리카, 아세아 대륙의 중앙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이며,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전통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보수적이고 신비스러운 백성

이기 때문에 복음을 맡긴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유대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던 태평천하로서 군소국가(君少國家)가 없었으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여 교통이 편리했고, 언어도 통일되어 있었읍니다. 경제적으로는 전쟁 후라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었고, 특권 계급의 사치와 횡포는 극도에 달해 있었읍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배고픈 민중들에게 종교적인 부흥은 유리했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이 낡은 도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초인간적인 힘이 필요했읍니다. 종교적으로는 로마 정객들이 자기들의 신흥국가의 정신통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때에 그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인 가이사를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읍니다.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며, 또 현실에 시달린 백성들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을 갈망했던 까닭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겠읍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읍니다.

첫째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되어 있읍니다.

둘째로는 특별한 결혼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들의 결혼을 통해서는 인류의 죄를 구속할 구주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어린애를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째로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한 자는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것이요, 그에게는 우리와 같은 원죄가 없는 흠없고 순결한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읍니다(막 10 : 27).

4. 대속의 십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읍니까? 거기에는 기독교의 구속사업에 대한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히 9 : 22)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셨읍니다. 또한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아담이 득죄(得罪)하여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몸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 수단, 방법, 덕행만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고, 거기에는 반드시 흠없는 어린양, 곧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만이 최후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생 라합이 들창에다 홍띠(紅帶)를 늘어 놓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한 가운데서 그 집만이 재앙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예언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번제는 받으셨다는 것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물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돌아가셨음은 우리의 죄를 속하려 함이었읍니다.

예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요, 그의 머리와 가슴은 평화와 사랑이 충만했으며, 그의 발은 평화의 선한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으시던 발이었으나 도리어 가시관과, 창과, 못을 받아 피를 흘리심은 우리 인간들이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로 죄를 지은 것을 대신함이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예수님의 고난받음을 설명해 주고 있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지라"고 했읍니다. 곧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었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하여 멸망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기를 길러본 부모라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남에게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넉넉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만분지 일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서 자기의 살과, 뼈와, 생명을 나눈 자식을, 그것도 하나뿐인 외아들을 버리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읍니까? 이것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최대의 복음이

요, 은총인 것입니다.

5. 십자가는 인류의 희망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볼 유일의 희망이요,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유리할 때 너무나도 고달픈 생활에 지치고 피로한 나머지 그만 하나님도, 계명도,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의 말을 거역하여 불신앙과 간음과 온갖 죄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해방시켜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처럼 배신하고 죄악으로 타락한 것을 보시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셨읍니다. 그리하여, 공의(公義)의 하나님께서 이 악독한 백성을 전멸하시려고 독사로 그들의 뒷발꿈치를 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죽게 된 그 때에야 백성들은 사정이 급박함을 깨닫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달려와서 호소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였읍니다. 하나님의 대언자(代言者)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죽이시려나이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읍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대 꼭대기에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였읍니다. 모세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으나 불순종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을 받았읍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오늘날 무서운 악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 거역하도록 최후의 발악적인 행위를 감행하고 있읍니다. 독사 같은 악마는 현대인의 양심도, 이성도,

인격도, 영혼도 다 물었읍니다. 그리하여, 죄에 빠진 현대인들 속에는 악마의 독(毒)이 들어가서 시시각각으로 퍼져가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기하고 분쟁하며 죽이고 저주하기를 독사처럼 악랄한 수법으로 자행합니다. 그들은 독사가 되었읍니다. 속히 구원이 이르지 않으면 뱀에 물린 자들은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응급치료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어떠한 아픔도 참고 견디면서 여하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우선 응급치료를 하여 생명을 건져놓고 볼 일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응급조치와 구호책은 무엇이겠읍니까? 우리는 무엇을 쳐다봐야 하겠읍니까? 저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쳐들었던 장대 꼭대기의 구리뱀은 오늘날 예수가 매어 달린 십자가입니다. 오직 이 십자가를 쳐다봄으로써만 이 광야와 같이 사악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독사의 이빨에서 나오는 무서운 독에서 놓임을 받을 수 있고, 악마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읍니다. 때는 너무나 임박합니다. 다음 시간, 다음 기회를 미루기에는 너무나 급한 때입니다. 과연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구원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를 바라보아야겠읍니다.

오늘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입니다. 일본을 쳐다봐도, 미국을 쳐다봐도, 독일을 쳐다봐도, 영원한 구원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철학에 의해서도, 과학에 의해서도, 예술을 통해서도 우리의 참된 구원은 성취될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원자폭탄이나, 인공위성이나, 달세계의 정복도 우리의 구원일 수 없고, 세계 평화 기구라는 유엔도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 없고, 사망에서 피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같이 절망적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이 있고, 빛이 있고,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높이 달린 구리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가 진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이 십자가만이 그를 바라보는 모든 자를 구원할 유일의 능력이요, 권능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바라본 개인도 살았고 (탕녀도 살았으며, 세리도, 강도도 살았읍니다), 가정도 살았고, 야만 게르만 민족인 독일도, 해적이든 앵글로색슨인 영국도, 또한 십자가를 바라본 나라마다 구원을 얻었읍니다.

오늘날 막다른 골목에서, 멸망이냐, 구원이냐 하는 중대한 기로(岐路)에서 소망은 오직 하나 갈보리산 언덕 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런고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죄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 : 15-23)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학식이나 문벌이나 돈이 없음보다 마음 속에 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연보하며, 봉사하면서도 그 죄과(罪過)는 그대로 지니고 다니니 얼마나 부끄러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가장 미워하고 대적하며 원수와 같이 여깁니다.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모략하며 찔리는 가시처럼 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을 깊이 파고드는 죄보다는 나을 것이며, 공산당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 연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비극을 자아내게 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시조(始祖)로부터 들어온 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원자탄이나 수소탄보다도, 산중에 호랑이보다도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우리의 육신을 멸할 수 있다지만 인간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의 육신을 죽일 자를 두

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죽일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한 파멸의 구덩이에 끌고 가는 것이니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먼저 "천국이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의 첫마디에 "기약이 이미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고 삼 년 동안 죄를 말하고,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갖은 오해와 멸시를 받아가며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으나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의 형틀이 아니고는 죄를 도말(塗抹)할 수가 없음으로 육체를 깨뜨리시기까지 죄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사도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죄를 책망할 때 성령이 임해 큰 권능을 나타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심령이 죄에서 해결함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인간은 죄가 있으면서도 가장 선인(善人)인 척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믿어야 그 심령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지만 죄를 철저히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날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것은 마치 인간들의 종합 진찰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보겠읍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지만 정기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씩 종합진찰을 받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샅샅이 검사합니다. 병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고, 조금씩은 다 병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허물과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으며"(롬 3:10)라고 하심과 같이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自犯罪)로서 몸안에 죄의 근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흥회는 심령을 다시 종합 진단받는

기회라고 봄이 좋겠읍니다. 또는 마음을 청결케 하는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들이 집에서 매일 청소를 하지만 일 년에 한두 번은 온 집을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고, 살림살이를 정리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자들도 예배보고, 제단쌓고, 성경봐서 마음의 청소를 하지마는 마음을 대청소하는 것은 사경회(査經會)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정돈하여야 되겠읍니다. 그리하여 마음 속에 자리잡은 더러운 죄를 살펴보는 것이 의의(意義)있는 것입니다.

1. 죄의 정의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חָטָא)인데 탈선이라는 뜻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로 달려야 하는데 길이 좁다고 넓은 길로 함부로 굴러가면 전복(顚覆)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신·구약이라는 이 성경의 길과 십자가의 진리의 길에 의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탈선하고 말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협소(狹小)하여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지만 이것이 신자가 가는 정로(正路)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는 하지마는 제멋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평탄한 길, 탈선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 있읍니다. 즉, 믿는 신자가 계명을 어기고 우상과 불의와 부정으로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때 이 얼마나 큰 탈선입니까?

또는 헬라어로는 "죄"를 "하말티아(ἁμαρτία)"라고 하는데 이는 "맞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과 "맞지 않다"는 "죄"라는 뜻이며 "성경"이라는 뜻은 원문을 보면 "성"은 "하기오스(ἅγιος)"라 하여 "구별"했다는 뜻이고, "경"은 "카논(κανών)"이라 하여 "자(尺)"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구별된 거룩한 것이고 생활의 척도가 성경에 기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서 생활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재어보고 맞지 않을 때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말, 행실, 마음을 생활에서 맞추어 본다면 실수하지 않고 규모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생활이 방정(方正)하지 못하다든지 운영하는 사업체가 비성경적이라든지 할 때에는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또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진리에 비추어 정로를 걸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산기도(山祈禱)가서 은혜받고 돌아온다 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열흘씩 스무날씩 비우기 때문에 집안은 엉망입니다. 이것도 비뚤어진 신앙으로써 식구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니 성경의 척도로 재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산기도로 성령을 받았다 하여 "목사도, 장로도 나만 못하다. 저 사람은 성령 못받았어 왜 저렇게 믿을까?" 하여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서 자고(自高)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말씀의 척도로 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진리는 겸손한 자에게 담아져 있읍니다. 이것은 도수가 너무 올라갔다고 보지만 너무 낮아서도 안 됩니다. 즉 새벽기도나 주일 저녁예배나, 수요일 기도예배는 흔히 빠지고 성경보는 일,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신자도 볼 수 있읍니다. 또는 헬라 원어로 죄는 '파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반역"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 진리, 성령을 거역했다는 것인데 마태복음에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今世)와 내세(來世)에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12 : 32)라고 엄격하게 말씀했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거역하여 사도들 앞에서 소유를 판 것을 속일 때 그 자리에서 죽었음을 볼 수 있읍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이 내재(內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죄의 기원

죄의 기원은 오랜 옛날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보려고 제자리를 떠나 높이 올라가려다가 거꾸로 떨어져서 타락된 천사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었읍니다. 에스겔 28장 17절과, 이사야 14장 13-14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죄가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죄는 천사가 교만하여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음으로 멸망을 초래했읍니다. 우리 믿는 신자는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제일 짓기 쉬운 것은 교만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을 가장 미워하신다고 했읍니다. 우리도 교만한 천사의 타락이 인류의 죄를 가져오게 하였음을 알고서 교만의 죄를 멀리 하여야 되겠읍니다.

3. 죄란 무엇이냐?

교회에서는 죄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도대체 무엇이 죄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읍니다.

(1) 불신앙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하여 불신앙이 죄라고 지적했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죄가 없다. 양심대로 살고 남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해를 끼치지 않으니 무슨 죄가 있오"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합니다마는 성경 말씀에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가르쳤으며, 누구나 다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까지 하나님이 이적(異蹟)과 기사(奇事)로 인도해 냈지마는 믿지 아

니하므로 뱀의 형벌을 내렸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잘 믿지 못하는 까닭에 범죄하게 됩니다. 즉, 입술로만 믿고 습관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지을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마음에 이루어진 믿음의 충실에 따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방 여인의 꾀임을 물리친 것이나, 다니엘이 무서운 사자굴 속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나, 바울이 핍박 속에서라도 참고 이긴 이 모든 역사가 다 참 신앙을 가진 위대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죄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감히 범죄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2) 불법이 죄다.

요한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는데 불법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 가지고 내려온 열 가지 계명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은혜시대이니 구약 율법시대 때 지키던 계명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도 합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고 하셨고 다시금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보다도 신약의 새 계명을 마음에 이루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직접 간음죄를 지으면 돌로 때려 죽어야 했으나 신약에는 마음으로 음욕(淫慾)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라고 더욱 엄격함을 가르치셨읍니다. 또는 구약에는 반

드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라고 하여 형벌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만 해도 벌써 살인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즉, 근본문제를 가르치는 죄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더욱 율법을 완전케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십계명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잘 지켜 멸망을 피하여야 하겠읍니다.

(3) 불의가 죄다.

요한1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함은 십계명 외에 소계명(小誡命)을 말함입니다. 즉 시기, 질투, 비평, 작당, 반역, 모략, 무정, 인색 등 작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죄가 우리의 주변을 항상 엄습하고 있는 까닭에 언제, 무슨 일로 마음에 죄가 침입할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위험함을 말하여 "살얼음판과 같은 세상"이라는 속담도 있읍니다.

우리가 처세(處世)해 나가는 동안에 불의를 보고서 불의라고 지적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나약한 탄식만 하고 맙니다. 그러나, 불의를 대적하기 위하여 헐벗어도 보고, 굶주려도 보고, 욕도 당해 보고, 고난도 당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불의가 가득 차 있고 부정과 부패는 구석구석에 숨어 돌고 있읍니다. 여기서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진리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불의를 몰아내야 되겠읍니다.

"공의는 나라를 흥하게 하고 불의는 나라의 패망을 갖다 준다"(잠 14 : 34)고 했으므로 오늘날 우리 민족은 이 말씀을 명심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겠읍니다.

(4) 행치 않음이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는데 죄를 죄인 줄 모르므로 행치 않는 것보다 죄인 줄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것은 더 큰 죄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사정과 인정에 끌리어 알면서도 부득이 죄를 짓는 일이 있읍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 가다가 불한당(不汗黨)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그 곳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읍니다마는 사마리아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 친절을 베풀었읍니다. 의와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참 선을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위교사(僞敎師)이었으나 천시를 받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사랑의 실천자이었읍니다.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근대 일곱 가지 고등죄악(高等罪惡)을 지적하여 말하기를 첫째로 원칙없는 정략(政略)이 죄라고 했고, 둘째 일없는 건강이 죄라고 했고, 세째 양심없는 쾌락이 죄라고 했으며, 네째 도덕없는 상업이 죄라고 했고, 다섯째 인격없는 지식이 죄라고 했고, 여섯째 인도없는 과학이 죄라고 했으며, 일곱째 희생없는 종교가 죄라고 했읍니다.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죄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약 2 : 26)고 했읍니다.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요일 1 : 8)고 했는데 과연 우리 인간들은 불신앙으로, 불법해서, 불의하여, 선을 행치 않으므로 죄를 짓게 되니 믿음 안에서 죄중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 죄의 성질

(1) 죄의 고착성(固着性)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고 함은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는데 그 죄가 항상 그 문지방에 엎드려 있다고 하신 말씀인데 죄라는 것은 꼭 붙어 있어 고착성이 있읍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려고 높은 산속이나 깊은 바닷속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죄는 따라다닙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과를 항상 짊어지고 다닙니다. 부모나 자식이 내 죄를 대신 져 줄 수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무거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읍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뜨거운 눈물과 안타까이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보라 네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씻어질 것이고 먹과 같이 검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사 1 : 18)고 함은 죄를 회개할 때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 죄의 발육성(發育性)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함은 자꾸 죄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어떤 부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으나 먼 곳으로 가고 외로이 여관을 경영하고 살았읍니다. 하루는 돈 많은 손님이 찾아와서 돈 가방을 맡기게 되어 이 늙은 부부는 욕심이 마음을 사로잡아 밤중에 손님을 죽이고 보니 자기들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즉, 욕심이라는 죄는 순간도 참지 못하여 발육하게 되니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하고 평생에 유일의 소망이었던 아들을 죽인 잔인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 가지 두 가지 가려서 회개하고 바로잡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서 많은 죄를 짓는 결과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에덴 동산의 한 사람의 지은 죄가 장성해서 온 인류에게 만연된 것 처럼 나 한 사람의 무의미한 죄는 오늘도 대지를 타고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 우리는 죄를 용납해서는 아니되고 다 깨끗이 없이 해야 되겠읍니다.

(3) 죄의 방해성(防害性)

이사야 59장 1-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네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음은 인간에게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죄가 마음 속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에 솔로몬이 죄를 범하므로 축복이 떠나서 나라는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말았읍니다. 또한 천하 영웅 삼손은 그 나라의 사사(士師)이었지마는 죄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수의 손에 잡혀서 두 눈을 빼임을 당하고 짐승같이 맷돌을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이것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읍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축복을 방해하고, 사명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여 죽음을 줍니다.

(4) 죄의 파멸성(破滅性)

로마서 6장 23절에 "죄 값은 사망이라"고 함은 아무리 천사지만 범죄하여 타락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삼 년 동안 그 사업을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하고, 침식을 같이 했지만 마지막에는 은 삼십 냥을 받고 존경하던 선생님을 팔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갔던 사실을 우리는 압

니다. 현세에서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철칙을 공인하고 있읍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것 모양 선(善)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죄를 박멸하시기를 바랍니다.

5. 죄를 짓는 이유

(1) 성경을 알지 못하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은 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감히 죄를 짓지 못할 것이나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죄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가인, 사울, 느부갓네살, 헤롯, 빌라도, 가룟 유다 등이 죄 짓는 것을 감찰하시는 사실을 거울삼아 보고 우리는 죄를 용납치 말고 물리쳐야 하겠읍니다.

(2)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죄에 대해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사람 앞에서 짓는 죄는 두려워할 줄 알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수도 있읍니다마는 은밀한 곳에 계셔서 인간의 뼈속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알면 죄 짓지 않습니다.

(3) 남이 죄를 짓는다고 현혹되기 쉽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었든지 너는 나만 따르라"고 하심같이 우리는 믿음을 주사 완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요사이 신자들은 예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여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죄됨을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합니다.

사람이 남의 좋은 점만 바라보아야 향상이 오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안할텐데 나쁜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죄중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4) 죄가 적다고 방관하는 수가 있읍니다.

큰 죄만이 회개할 것이고, 이 정도쯤이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수가 있읍니다. 무엇이나 한 번 하면 열 번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 이번 한 번쯤이라고 위로받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깨진 그릇은 조금이든 많든 깨어진 것입니다. 죄라는 것도 많고 적음의 상관이 없이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삼십 냥에 한번 팔았지만 우리는 사소한 물질 때문에 수시로 범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많고 적음을 문제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깨끗이 살아 죄중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5)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범죄합니다.

십자가의 종교는 사랑이라 하여 남을 용서하는 종교임으로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간단히 생각하므로 죄 짓는 이유가 됩니다. "저 강도와 같이 마지막 회개하면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태만하기 쉽겠지만 실상 강도는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의 죄를 마음 속 깊이 뉘우쳐 자기의 형벌을 마땅하게 여겨 형틀을 지고 내세를 바라보게끔 마음에 믿음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때 회개하면 되겠지"라며 자꾸 미루지마는 어느 때, 어떻게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있읍니까?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겸해 있읍니다. 사랑으로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공의로는 죄를 여지없이 책망하시는 것이지만 요사이 신자들은 공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6) 죄 값을 단번에 받지 않는다고 등한히 여깁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 함은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마음을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도 당장 벌을 받지 않고 잘 숨겨지매 시간이 감에 따라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고 지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아비의 죄는 자손의 삼사대까지 이르고 아비의 축복은 자손의 수천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읍니다.

어떤 학생이 이 일을 반박하기를 "아비의 축복은 수천대까지 주되 아비의 죄는 삼사대만 주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라고 할 때 "아비의 죄를 삼사대까지만 벌을 주면 그 자손이 전멸을 받는 것이라"고 대답했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벌과 심판이 당시 나타나지도 않고 철저하지도 않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받는 형벌을 우리는 현저히 보고 있읍니다.

우리 고향에서 얼마전까지 양조장을 하던 큰 부자집이 있었읍니다. 그는 고리대금업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읍니다. 그 아들도 우리들과 자랄 때 퍽 호강도 했읍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어떤 사람이 초라한 차림으로 나를 찾아왔는데 그 부자집의 아들이었읍니다. 그 집안은 여러 식구가 죽고, 병신되고, 감옥에 가고 하여 참 비참하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당대에서도 이렇게 심판을 보게 될 때 죄는 어느 때든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6. 죄는 숨길 수 없다.

죄를 지으면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속 사람인 양심을 속일 수 없고, 또 이웃을 속일 수 없고, 마귀는 영물(靈物)이므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言行心思)를 다 알 수 있으므로 마귀를 속일 수 없고 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무서운 죄를

지니고 있으나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마는 자기의 마음에 가책을 가져오는 괴로움은 회개치 않는 한, 죽을 때까지라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친구나, 부모나, 형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도 남아 인간들의 회개를 안타까이 기다리십니다.

7. 죄를 짓는 결과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인연이 끊어진다고 했읍니다.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았지마는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형상으로 변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마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고, 저주받은 천사와 같이 쫓겨나서 영혼인 내 본향(本鄕)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절망과, 불안과, 저주를 받으며 심령의 평안은 물론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고 마음에 죄를 지니고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정이 저주를 받아 자녀가 병들어 죽고, 평안이 상실되어서 개인과 가정은 파산을 당하고 따라서 민족과 국가는 패망을 초래하며 마지막 인생의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자처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 오랜 역사가 인류에게 죄에 대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영생"이라고 했으니 먼저 믿는다는 우리가 빛앞에 나아가서 아직까지 부끄럽고, 거리끼고, 답답한 죄악이 내 마음을 억눌러서 안타깝게 하는 죄가 있으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여,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충만하여 앞으로 생활은 죄와 상관이 없는 성결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과 천국
(요한계시록 21 : 1-8)

20세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오늘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가 자아낸 물질 문명은 놀랄 만큼 발달되었읍니다. 일찌기 우리 조상들이 감히 상상도 못했을 만큼 희한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날마다 새로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바닷속에는 원자 잠수함이 달리고, 공중에는 제트기가 날아가고, 이 지구에는 인공위성이 돌아가고, 달과 화성을 정복할 세계가 우리 앞에 온다고 하지만 현대 과학이 우리 인간의 정신면과 신앙면에 얼마나 큰 유익을 끼쳐 주었느냐 할 때는 유익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원자탄, 더 많은 잠수함, 더 많은 인공위성, 더 많은 핵에 관한 이러한 군사적인 무기나 문명보다도 모든 사람 마음 속에는 이해, 안전, 광명, 진리, 사랑, 평화, 영생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흘러 갑니다. 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역사가 바뀌어짐에 따라 과학이 발전합니다.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정치도 변하고, 사상도 변

하고, 교육도 변하고, 군사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까지 변해 가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이지마는 변치 아니하는 것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변할 수도 없고 변치도 아니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진리"란 것입니다. 이 두 글자는 변치도 아니할 뿐 아니라, 변해선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진리라고 말하면 하나입니다. 그러나 각각 분야에 따라서 표현 방법은 다를 줄 압니다. 이학상(理學上)으로 본 진리, 정치학상으로 본 진리, 철학상으로 본 진리, 도덕상으로 본 진리, 종교상으로 본 진리의 표현이 좀 각각 다를 수 있읍니다. 이학상의 진리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나 뉴톤의 만유인력설 같은 것입니다. 정치 사회상 진리는 자유 평등이며, 도덕상으로는 삼강오륜(三綱五倫)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인 것입니다. 종교상 진리는 현세와 내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를 극구 부정하는 사람들도 없지 아니하여 있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물론자들에게 가서 신을 말한다든지 내세를 말한다면 그는 그걸 용납지 아니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만 물질밖에는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국주의자들에게 가서 말하면 그들은 창과 칼과 무력이라는 힘밖에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음악가에게는 음계(音階), 화가에게는 색(色)과 선(線), 과학자들에게는 자연법, 철학자들에게는 가치의 세계밖에 없다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종교가들에게는(우리 기독교 계시종교 이외의 종교가들도) 교리에 다소의 차이는 있읍니다만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내세에 대한 교리는 마찬가지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無神論講演)을 하는데 세 사람이 연사로 피선되어 가지고 제일 먼저 의학박사 되는 사람이 나왔더랍니다. "내가 의사 노릇을 여러 해 하는데 학위도 받았고 많은 사람을 수술대 위에 놓고 해부를 했읍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혼을 찾아보려고 머리와 가슴을 쪼개도 봤고 손바닥, 발등도 쪼개 봤

지만 영혼은 못 찾았읍니다"고 하니까 모두가 옳다고 박수를 보내더랍니다. 그 다음 나온 분이 "나는 천문학 박사인데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밤낮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천당을 찾아 봤지만 아직 못 찾았읍니다"고 하니 또 박수를 보내더랍니다. 마지막 나온 분은 "나는 문학 박사인데 오늘까지 책을 한 이만 권 들쳐 봤읍니다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나는 못 찾았읍니다"고 하니 또 박수를 보내더랍니다. 그 때 맨 뒤에 섰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 질문 하나 할 수 있읍니까?"

"무엇입니까?"

"영혼을 여기저기 쪼개 봐도 못 찾으셨다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선생님 부인 있읍니까?"

"네, 제 아내 있지요."

"선생님 부인이 당신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하지요."

"그 사랑이 머리에 붙었읍니까? 손에 붙었읍니까? 가슴에 붙었읍니까? 발바닥에 붙었읍니까? 말해 보시오"라고 계속 질문을 하였읍니다.

자!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막상 어디 붙었느냐고 꼬집어 물어서 답변을 하려는데 이게 말이 도대체 나오지 않습니다. 웃을 때에는 얼굴 전체에 사랑이 있는 것도 같고, 또 눈을 가지고 껌벅껌벅할 때에는 눈가에 사랑이 있는 것도 같고, 손으로 쓰다듬어 줄 땐 손끝에 사랑이 있는 것도 같고, 또 그 다음 키스할 때에는 입술에 가서 사랑이 붙은 것 같지만 막상 어디 있느냐고 꼬집는 데는 답변하기가 곤란했읍니다. 다시금 들어가 생각하라고 하고 그 천문학 박사좀 나오라고 하여 묻기를,

"그래 선생님 아무리 봐도 천당은 못 보셨다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세상에 바람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아—바람 있지요. 저기 저 나무가지 흔들리는 것 보십시오"라고 하니

"예, 그럼 그 바람이 동그랍니까? 길다랍니까? 네모 반듯합니까? 삼각형입니까? 그게 노랍니까? 하얍니까? 말해 보시오"라고 연속 질문하니 그도 답변 못하고 들어갔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학 박사가 창피당하겠는데, 모인 사람이나 없으면 괜찮겠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얼굴이 홍당무같이 시뻘겋게 되어 가지고 나왔읍니다.

"선생님 책을 이만 권이나 보셨다니 정력(精力)이 대단하십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성경을 몇 번이나 보셨읍니까?"라고 하니,

"신·구약 성경 한 번 봤지요."

"내가 비록 배우지 못한 여자지만 내가 알기는 과학을 알려면 목사님보다도 과학자에게 가서 바로 알 것이고, 법률을 알려면 과학자보다도 법률가에게 가서 알 것이고, 종교에 관한 것을 알려면 일생 동안 몸을 바쳐 종교를 연구하고 종교에 있어서 체험을 가진 종교가에게만 가서 말을 해야만 알 수 있겠는데 당신이 문학가이면 문학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다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당돌히 이 신비스러운 형이상학적 세계를, 초감각의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당신이 단정한다는 것은 학자의 양심을 가진 당신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신학을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믿기 전에 마음에 소망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술먹고, 담배 피우고, 내외간에 싸우고, 이웃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인간이었지만 예수믿고 은혜받아 새사람 되고 나니 내 마음엔 기쁨이 있읍니다. 평안함이 있읍니다. 의로움이 있읍니다. 사랑이 있읍니다. 이웃 사람들과 잘 화목하게 지냅니다. 선량한 국민이 되었읍니다. 인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입니다"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또 박수를 치며 "옳소 옳소" 하며 그 말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

다. 이게 군중 심리(群衆心理)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올바른 인생관 다시 말하면 우주관, 사물관, 속죄관, 사생관, 내세관을 알고서 살아야만 되는데 그저 바람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이 내세에 대하여 의심치 아니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내세를 극구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주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단입니다. 아주 잘 믿는 사람은 아주 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안 믿고 있읍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읍니다. 천당도 있읍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줄 압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비록 목사이지마는 오늘 이런 한국과 같은 삼팔선, 이런 문화수준, 이런 사회 현실에서는 경찰서가 있어야 합니다. 순경들도 있어야 합니다. 감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쁜 사람을 가두어서 얼마 동안 벌도 주고 교훈도 시켜 가지고 내보내야 약한 사람들도 살고 세력없는 사람들도 살지 만약에 이러한 기관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 순사, 감옥이 절대 필요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종교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학 교수라든지 아주 교양이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없기를 원하느냐 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길 원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밤장사가 안 되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죄인일수록 지옥이 있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과 천국은 있어야만 됩니다.

1. 천국과 지옥의 필요성

(1) 현세에는 공의에 만족이 없음.

만일에 이 세상뿐이고 오는 세상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속치 않을 것이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다"고 했읍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귀영화를 분토와 같이 버리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한 모습을 생각할 때 과연 공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서 의로웁게 살다가 간 그리스도와 의인들이 살기 위해 그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2) 현세에는 생의 목적을 통달할 수가 없음.

제가 사천 비행장에 가서 공군목사로 근무할 때에 사무실에 사관학교 졸업반인 이승종이란 학생이 오더니만 "목사님 저 비행기 마지막 훈련을 갑니다. 오늘 사격 훈련이 끝나면 내일은 하루 쉬고 모래 조종사로 위임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 잘 다녀 오너라"라고 답례를 했었읍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왱 소리가 나더니 병원 앰블란스가 나갑니다. 빨간 사고반 자동차가 나갑니다. "무슨 일이 났느냐?"고 물었더니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다가 한 비행기 조종사가 실수하여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였고 조종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가 했더니 몇 시간 전에 왔던 이승종 생도였읍니다. 아찔했읍니다. 이게 꿈이길 원했지만 꿈은 아닙니다. 거짓말이길 원했지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 저는 황급히 추락지에 자동차를 잡아타고 달려갔더니 비행기는 폭탄을 실은 채 폭파되어 파편만이 뒹굴었읍니다.

군의관이 낙하산 조각으로 보자기를 만들어 핀셋으로 시체를 주워 모

아 이것을 진주에 가서 화장을 해다가 유골 상자에 넣어서 군목실 뒷방에다 안치해 놓고 유골 사진 위패 촛대를 들여다 보니 이게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가시지가 않았읍니다. 몇 시간 전에 내 앞에 와서 목사님 하고 부르던 그 모습을 연상하여 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아 나와 울었읍니다. "승종아, 승종아 승종아! 왜 대답이 없느냐? 아! 삼천만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너같이 깨끗한 청년이 제물로 갔구나! 공산주의가 무엇이길래 백두산도 높다 하지 아니하고, 압록강도 깊다 하지 아니하고 평화스러운 삼천리 근역(槿域)을 휩쓰는 것을 막아보자고 네가 내일의 싸움을 준비하기 위하여 훈련하다가 너는 이렇다 하게 한번 싸워 보지도 못하고 애석하게도 가고야 말았구나. 승종아! 너는 갔다마는 아직도 삼팔선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앞으로 너같이 아까운 청년들이 얼마나 더 많이 희생되어야만 삼팔선이 없어지겠느냐!"며 나는 울면서 또 생각하여 보았읍니다.

그의 부모는 감리교 신자이며, 그는 평소에 신앙이 얼마나 좋던지 교회에서는 찬양대 대장과 청년회 회장을 겸하여 지냈으며 전도사라는 별명까지 붙은 사람이었읍니다. 그런데 사관학교 졸업반으로 비행기 실습 훈련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읍니다.

내가 중국 꼬량밭(옥수수밭)에서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부고(訃告)를 받고 가진 못하고 어머니가 계신 간도성을 향하여 울 때도 그렇게까지는 울지 못했다고 생각했읍니다. 장례식을 끝마치고 앞장서 나가는데 조종사 위관장교(尉官將校) 두 사람이 저에게 갑자기 달려들더니 "목사님, 내세가 있읍니까? 없읍니까?"라고 묻기에 그 때에 나는 그들의 심중을 파악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세가 있다는 확신을 강력히 말한 일이 있읍니다.

뽀멘(Dr. Bommen) 박사는 말하기를 "산다는 것은 꿈꾸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긴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했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다가 간 사람은 생명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살 나이를 다 못 살고 간 순교자들이 영원히 살 생명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3) 내세의 생명을 사모하는 본능

모든 사람에게는 내세에 대한 사모하는 본능이 있읍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보아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래 살면 인생살이가 수측다욕(壽則多辱)이라더니 정말 괴롭다" 하면서 빨리 죽기를 바랐다고 했읍니다. 옆에 있던 손자가 "할머니 죽는 약 드릴까요?" 하고 얼마 후에 다른 약 몇 개를 갔다 드려 보았답니다. 할머니는 대노하면서 손자를 꾸짖었답니다. 이와 같이 말로는 죽는다고 하지만 늙은 할머니에게도 삶의 욕망은 여전하더랍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한무제(漢武帝)는 오래 살고자 승로반(昇露盤)에 이슬을 받아 먹고 진시황은 동남동녀를 삼신산에 보내어 불로초를 구했다고 함은 살고 싶은 간절한 심정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에도 목숨 수(壽) 복 복(福)을 써 붙이고, 옷과 그릇에도 새겨져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인간이 생명에 대한 사모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념이 있으면 실재가 있고 실재가 있으면 관념이 있다는 것과 같이 생명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읍니다.

(4) 영적 견문

천국과 지옥을 영적(靈的)으로 견문(見聞)한 사실이 성경상의 인물 가운데에 많이 있읍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바울, 요한 사도 같은 분들은 영적으로 직접 견문한 사람들입니다. 그 밖에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인 어거스틴, 선다싱, 무디 같은 분도 역시 견문의 사실이

있읍니다.

2. 지옥

(1) 지옥의 구분

음부(陰府)라는 곳은 죄인을 가두는 곳이며, 무저갱(無底坑)은 마귀를 가두는 곳이며, 지옥(地獄)은 마지막 죄인과 마귀를 함께 가두는 영벌(永罰)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도 감옥이 여러 곳에 있지마는 감옥에 따라서 절도범, 사상범, 모범 죄수 등 수감(收監)하는 곳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2) 지옥의 광경

플라톤이 지은 리퍼브릭(Republic)이란 책 속에는 한 군인이 싸우다가 죽었읍니다. 장례를 지내려고 나무 위에 얹어 놓고 불을 붙이자 나무가 툭툭 타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내가 이상한 것을 보았노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고 했더니 "어디쯤 올라가니까 천국이라는 것과 지옥이라는 두 세계가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전부 헝겊조각으로 만든 프랑카드에다가 자기의 죄조목(罪條目)을 하나하나 적은 것을 보았다고 하더랍니다.

신약 외경(外經)의 베드로 묵시록(彼得默示録)에 볼 것 같으면 지옥의 광경을 이렇게 그렸읍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가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칠계명(七誡命)을 범한 남녀의 사람들이 그 뜨거운 불속에 가서 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왔지요?"하고 있으며, 또 살인한 자들이 왔는데 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당신의 재판이 정당합니까?"라고 말하며, 또 의인을 때려 죽인 사람들이 왔는데 악령이 와서 사정없이 때리고, 거짓말한 사람들은 입속 혓바닥에 물

을 끓여 붓고, 또 바른 도(道)를 비방한 사람들의 입을 마구 때리고, 또 과부와 고아를 멸시한 사람들은 가시덤불에다가 벌거벗겨 굴리고, 또 우상숭배한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끌고 올라가서 몽둥이로 때리고, 동성연애한 사람들은 산꼭대기에서 골짜기로 굴러 떨어뜨리는 등 지옥의 형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여 놓았읍니다.

제가 신학생 때 강원도 지방을 순회전도하러 간 일이 있었읍니다. 그 때 어느 교회 강대상 밑에서 밤을 지낼 때 비몽사몽(非夢似夢)간에 지옥과 같은 이상한 광경을 본 일이 있었읍니다. 너무나 명백한 일이었으며 나는 그 후부터 신앙의 큰 변동이 일어나서 마지막 내세의 사실인 계시록 21-22장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제가 가끔 기도하면 이런 것을 보여 주시는데 어떤 선배님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했더니 그분 대답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모르지만 전연 딴 길 걷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 주시듯 확실한 것을 보여 주어야만 됨으로 신앙의 확신과 아울러 전도 자료로 보여 주시는 줄 믿는다"고 했읍니다.

성경에는 지옥을 불구렁텅이, 삼키는 불, 이를 가는 곳, 이를 갈고 곡(哭)하는 곳, 풀무불과 같은 곳, 고통하는 곳, 영원히 타는 곳, 회개할 수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영벌의 곳, 마귀와 죄인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했읍니다.

(3) 지옥에 갈 자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는 물론이며 타락한 전도자, 세례교인 가운데에도 중생하지 못한 거짓 신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거짓 신유(神癒)의 권능을 베푼 자,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 회개치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3. 천국

(1) 천국의 구분

① 마음 천국.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읍니다.

② 교회 천국.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보면 이 "교회"가 천국이라고 했읍니다. 즉, "그물"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며, "고기"란 것은 인생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과 같은 천국인 것입니다.

③ 지상 천국. 이사야 65장 17-25절까지에는 지상 천국이 있읍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모든 죄인과 마귀를 가두고 평화의 세계를 세우십니다. 그 때는 악을 제해 버리고 저주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다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아니하고 사자나 호랑이를 타고 노는 세계라고 말했읍니다.

④ 영원 천국. 계시록 12장 1-5절과 22장 1-5절을 볼 것 같으면 영원 천국이 있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마지막 저 요단강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마지막 천국입니다.

(2) 천국의 광경

전자의 지옥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천국은 보석성, 진주문, 황금길, 생명강, 생명나무가 있고 일월(日月)이 쓸데 없고, 의복이 쓸데 없는 곳입니다.

(3) 천국에 없는 것

그 곳에는 늙는 것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단이 없고,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4) 천국에 있는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그 다음에 의인들, 그러면 이 천사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믿는 사람 중에 목사, 장로, 집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교인도 그곳에 갑니다.

뉴톤(Newton)은 천국 가서 세 가지에 대하여 놀랍답니다.

첫째는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은 하나도 못 왔고, 전혀 생각 밖에 사람들이 왔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형식과 율법에만 사로잡힌 교만한 바리새교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치 못한고로 하나도 못 왔고 세리, 창녀, 강도 등은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였는고로 거기에 다 왔더랍니다. 이게 무엇이지요? 예수님은 회개할 줄 아는 죄인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조금 올 줄 알았더니 많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째로는 나 같은 죄인이 거기 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속량(贖良)해 주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을 주고 우리를 속량한 것이 아니라, 어린양 예수의 붉은 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갖추어 주셨읍니다.

어린양의 피에 씻음 받고 성령받아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천국을 말하는 것은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고 무시해 버리고 자나깨나 천국 갈 것만을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1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거룩한 분이니 내가 거룩해야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을 많이 해서 우리가 마음 속에 세마포(細麻布) 옷을 준비해서 입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현세를 살리는 사람은 내세를 살리고, 내세를 동경하는 사람은 현세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체는 눈으로 보고, 음성은 귀로 듣고, 음식은 혀로 알고, 물리는 두뇌로 알며, 천국은 마음의 눈으로 아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을 육안으로 보면 모르나 현미경으로 보면 많은 벌레(균)을 발견할 수 있고, 낮에 하늘을 눈으로 보면 태양만 볼 수가 있으나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밤하늘에 보이는 별보다도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으며, 엑스 광선으로 보면 우리 몸속의 잘못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듯이 천국과 지옥은 철학이나 과학의 눈만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고, 오직 깨끗한 신앙의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같이 저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성령을 그 깨끗한 마음에 받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지옥의 불로 들어가는 사람 없이 다 아버지의 영광의 집에 가서 어린양을 모시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Ⅲ편

신앙과 생활

절망의 극복
(욥기 3 :1-26)

주전 수세기 전, 동방 우스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읍니다. 이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惡)에서 멀리 떠난 의(義)로운 사람이었읍니다.

그러나, 이같이 의로운 사람에게도 하루 아침 갑자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읍니다. 즉, 그의 자녀 십남매가 몰살(沒殺)을 당하고, 그 많던 재산은 모두 날아가고 온몸에는 독창(毒瘡)이 나고, 친구는 떠나갔으며 사랑하는 아내마저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욥은 생일을 맞이했음에도 기쁨이 없고, 오히려 허무와 고독과 절망에서 생을 저주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태(胎)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乳房)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욥 3:11-13),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

하였구나"라고 울부짖었읍니다. 이같은 고통과 절망은 그 옛날 욥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딪쳐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일제(日帝)의 압정과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사랑스러운 식구들을 많이 잃었고, 전화(戰火)와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인하여 귀중한 재산은 날아가 버렸으며, 날이 갈수록 양심과 인격과 영혼은 죄악의 질병으로 썩어가고 있으며, 사상, 정치, 이해 문제로 친구는 멀리 떠나가고, 같은 성경, 같은 예수를 믿기에 가장 믿었던 교우(教友)마저 신앙노선(信仰路線)의 차이와 사소한 감정으로 등을 돌려대고 기회만 있으면 모략과 중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 속을 본다면, 평안과 행복, 감사와 찬송이 가득차 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불안과 고독과 모순과 부조리와 체념과 허무와 절망 등으로 가득차 있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얼굴은 기쁨과 희망보다도 아픔과 슬픔이 앞서고, 생(生)의 긍정(肯定)보다도 부정(否定)이 앞서고, 또는 생의 무의미(無意味)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오늘의 인간상(人間像)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살 수가 없어 마침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론적(理論的)으로 자살이란 것을 분석하여 본다면, 이것도 허무(虛無)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살만이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허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을 알게 될 때에는 자살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것은 이 고통의, 이 흑암의, 이 죄악의 깊은 함정에 빠져서 그냥 살 수도 없는 것이지만, 내가 여기 빠진 것을 알고 여기서 뛰어 나가야겠다고 하면서도 쉽사리 빠져나갈 수도 없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현실이 괴로움과 모순과 부조리인 줄 알면서도 살아나갈 수 밖에 없는 게 주어진 인생(人生)의 생(生)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

다. 그러므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사는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인(聖人)도 아니고 신(神)도 아니므로, 모두가 걸핏하면 짜증과 신경질을 부리고 싸움과 피까지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1. 절망의 원인

(1)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서 오는 절망(시 90:10, 벧전 1:24, 히 9:27)

인간 실존(人間實存)의 유한(有限)에서 오는 절망입니다. 나의 생의 모든 가능성(可能性)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을 받고 사는 것임을 알게 될 때에 여기서 인간은 허무감을 느낍니다. 내 얼굴은 내 마음대로, 미운 사람을 예쁘게, 5자 되는 사람을 7자로, 늙은 사람을 젊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키엘케골(Sören Kierkeggard)은 "사람이라는 것은 유한한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또한 종말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했읍니다.

이와 같이 생(生)의 가성(可性)이 제약(制約)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벌써 우리는 절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피차에 인정하지마는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사람이 낳아서 갑자기 죽든지, 자연수명(自然壽命)으로 죽든지 간에 인간은 천년만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큰 소리를 치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항거도 못하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원자탄(原子彈)을 발명한 아인슈타인(Einstein)은 그 지식의 힘을 가지고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고, 위대한 인격자요 애국자인 간디는 무저항을 가지고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고, 케네디의 권력도, 역도산의 완력도 죽음은 물리치지 못했으며, 맥아더는 원수

(元帥)라는 명예를 가졌지만 죽음 앞에서는 항복하고야 말았읍니다. 그러므로, 칼라일은 "나는 죽음을 전제하고 사노라"고 했으며, 또 파스칼은 말하기를 "나는 두 가지 밖에 모르는데, 한 번 죽는 것과 죽고나서 심판받는다는 것이다"고 했읍니다. 즉,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더듬어 올라가면, 맨 나중에 부딪히는 막다른 종착점(終着點)은 누구나 이 길을 피할 수 없다는 표말을 붙인 죽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사람은 허무와 절망의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고독에서 오는 절망(전 4 : 8)

현대 사람들은 허무와 절망의 그늘진 곳에서 고독으로 몸부림치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읍니다. 이 고독은 키엘케골이 말하는 "7만 척 물위에 나홀로 떠 있는 고독"은 아닙니다. 이 고독은 황홀찬란(恍惚燦爛)하고 잡다하고 화려한 군중 속에서 더욱 뼈저리게 느껴지는 고독인 것입니다. 과학도 발달되고, 교육 기관도 많아졌고, 아는 사람도 많은 이 세상이지만, 날로 인정이 식어가는 냉혹한 세상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정신적인 고독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보다 고통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수(禽獸)라는 것은 생리적 고통, 즉 육체적 고통 밖에 없지마는 인간은 하나의 고통이 더 있읍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고독이라는 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세상이 풍요로와졌고, 조직화되고, 교육 시설도 진보되고, 자선 단체나 종교 기관도 많지마는 고독을 해결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개아(個我)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격(人格)이라는 것을 독립적으로 세우지 못했을 적에는 고독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나아갑니다마는 나이가 더하여 육체와 정신이 장성하고 의식이 발달하여 개아라는 것을

찾게 되며, 인격의 독립과 자립적 생활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고독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분망한 일상 생활(日常生活)에서도 반드시 자기 상실(自己喪失)과 고독이라는 그림자는 따라다니고 있으며, 웃음과 기쁨 속에도 가느다란 우수(憂愁)와 슬픔이 반드시 묻어 다닌다는 것이 오늘 인간의 생태(生態)입니다.

시장에 나와서 옛날 여학교의 동창을 오랜만에 만난 두 여인들을 상상해 보세요. "얘, 네가 아무개 아니냐?" "어머나, 네가 웬일이냐? 몇 해만이냐? 너 어디 사니? 너의 남편 무엇하니? 너의 애들 몇이나 되느냐? 어느 학교 다니느냐? 너의 남편 한 달에 봉급 얼마씩 받아다가 주니?" 등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웃지마는 웃음 속에는 반드시 근심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이 양복 사주어야 할텐데 돈도 없고, 신문값도 못내고, 전기세도 못내고, 연탄도 다 떨어진 것을 보았고, 쌀도 다 떨어졌는데, 이것은 자기만 아는 슬픔이요 걱정이요 탄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근심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절망에 빠져 들어가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끊는 사람이 있읍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저녁 설교를 마치고 돌아와 있었더니 젊은 여인이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그냥 웁니다. "자매님, 왜 이렇게 웁니까?"

"목사님, 초면에 죄송합니다. 나는 이 세상이 살기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해 버리려고 오늘 독약을 사가지고 돌아가다가 인생 마지막 가는 길에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기에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죽겠다고 들어왔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죽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기로 했읍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묻기를 "인생(人生)을 다시 출발한다면 살 길이 열릴텐데, 왜 자

살하려고 하십니까?"라고 하니, "목사님 저는 6·25동란 중 한해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었읍니다. 내 여동생 하나와 더불어 어린 것들이 넓은 천지에 고아로 떨어졌읍니다. 고아원에 가려다가 친척을 찾아갔더니, 그만 얼마 지나지도 않아 미워하고 욕하고 밥먹는 것도 눈치주고 때리므로 이제는 거기서 있을 수 없어 다른 집에 갔더니 거기는 더 합니다. 고아원에 가려다가 내 나이도 먹었기 때문에 고아원 가는 것보다 내가 잡화행상(雜貨行商)을 하여서라도 한 번 살아보겠다 하여 내 동생을 공부시켰읍니다. 이렇게 얼마동안 하다가 병이 들었읍니다. 설마, 어떠랴 하다가 보니 피가 쏟아졌읍니다. 병원에 쫓아가서 진찰해 보았더니 폐병이 깊었다고 말합니다. 껌장사나 은단장사를 해 가지고는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마음에는 원이 아니었지만, 저 지하실 푸른 등불 밑에 가서 뭇 남자들과 춤을 추는 댄서가 되었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남자와 정식 약혼, 결혼식도 아니하고 같이 살다가 내가 피를 자꾸 토하자 폐병 환자인 것을 알고 이 남자가 나를 버리고 가버렸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군인하고 살다가 군인도 나를 버렸읍니다. 어떤 대학생하고 살다가 그 대학생도 내가 폐병 환자인줄 알고 나를 떠났읍니다. 내 병은 깊어졌읍니다. 병원에 가면 약도 안 줍니다. 이제 내가 갈 곳은 꼭 한 군데인데, 내가 이렇게 몸을 짓밟혀 가면서, 이렇게 피를 토해 가면서 내 동생 잘 되라고 공부 가르쳐서 중학을 졸업하고 지금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셋방이지만 둘이 살기에 웃방에 가서 며칠 자고 얻어 먹었더니, 나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서로가 싸움하는 것을 보니 목사님이 세상 넓다 하지만 이 다섯 자 된 내 몸 하나 어디에다 마음놓고 부칠 곳이 없읍니다. 내가 살 곳은 아무데도 없읍니다. 제주도 같은 땅에 간들 나를 누가 환영하겠읍니까?" 하면서 이 여자가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나이가 젊었고

그래도 한두 자 알고 그래도 활동 능력이 있어서 제 밥벌이 제가 하니까 오늘 반가이 웃음을 갖다 주고 냉수라도 한 그릇 갖다 주지, 만일 늙고 병들고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늙은 부모인들 지금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시대인 줄 압니까? 자, 이 야속한 세상, 박절한 세상, 찬바람 부는 세상, 여기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고독에서 오는 절망입니다.

(3) 병든 문화에서 오는 절망(딤후 3：1-5)

문화라고 하면 언어(言語), 물질적 문화 요소(文化要素), 예술(藝術)과 신화(神話), 과학적 지식, 종교 행사, 가족 및 사회 조직, 소유와 재산 규정, 전통 형식, 전쟁 등 이것들을 묶어 문화(文化)라고 말한다면, 이 문화의 소산은 무엇입니까? 고층 건물, 불야성을 이룬 네온싸인, 최신형 자동차, 텔레비젼 등 물질 문화의 만능(萬能)을 생각합니다.

오늘날 옷감과 화장품도 좋은 것이 나왔고, 집들도 잘 해놓고 사는 이 문화가 좋은 것 같지마는 그것이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2절에서 4절을 볼 것 같으면, 오늘 이 시대가 꼭 그 때와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졌으며 인간에 정직한 자가 없으니 저희가 다 매복하여 피를 흘리고 각기 형제를 그물로 잡고 저희가 두 손을 들어 부지런히 악(惡)한 일을 행하고 임금과 재판장은 뇌물을 구하고 큰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하며 합(合)한다고 했고 가장 착한 사람이 가시나무 같고 가장 정직한 사람이 찔레나무 같다"고 하지 않았읍니까? 이와 같이 범죄한 인간의 마음은 전부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한 것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이와 같이 이 사회의 인간상(人間像)을 말씀했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현실을 바로 보고 나아가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오늘날 인간 상태를 사람과 사람에 대함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대함이 아니라, 너와 나의 대함이 아니라, 사람 관계를 말하기를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이리의 관계요, 또 만인(萬人)은 만인에 전쟁 상태"라고 했읍니다. 올바로 진단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도 일찌기 "너희들이 양의 가죽을 입었지만 속에는 이리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하셨읍니다. 이리라는 짐승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간사하고 거짓되고 교활하고 잔인하고 또 포악한 동물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두 간사합니다. 속에는 칼을 품고 있으면서도 만나기만 하면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돌아서서는 별 악담, 저주 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천사인 체 하고 있읍니다.

또 전쟁 상태라고 말했읍니다. 오늘의 싸움은 동·서의 전쟁만이 아니고 남과 북, 교파와 교파, 계급과 계급의 전쟁만이 아니고 어린 천진난만한 유치원 아이들까지 전쟁 상태입니다.

모 국민학교는 일학년 입학시험에 18대 1이라는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마음과 지식과 육체적 전쟁입니까? 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저마다 상인(商人)의 관계다"라고 대립과 긴장 상태를 말했읍니다. 참으로 오늘은 황금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배금주의(拜金主義) 사상이 모든 사람 머리

에 가득히 차 있읍니다. 돈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대인(對人) 관계에도 물질을 중심하여 이해 관계가 세밀히 따져 들어가게 되고 있으며 신성한 결혼관도 상대방의 경제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철저한 장사꾼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문명에 대하여 오스발트 슈펭글러는 "문명의 몰락"을 말했고, 피티림 소로킨은 "병든 문명"을 말했고, 알버트 슈바이처는 "문명의 황혼"을 말했고,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의 위기"를 말했읍니다.

미국의 모 군략가(軍略家)는 말하기를 1차대전은 육전이고, 2차대전은 공중전이고, 3차 대전은 핵전쟁이고, 4차대전은 주먹과 몽둥이 전쟁이라고 말했읍니다. 즉, 1차대전에는 육군이 주동되어 싸웠고, 2차대전에는 공군이 주요 역할을 했으며, 3차대전에는 육군도 공군도 해군도 필요없고, 다만 몇 명의 젊은 과학자들이 유도탄과 통신 전자망을 가지고 단추 몇 개만 누르면 30분 동안에 세계는 쑥밭이 되며 남는 사람은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소수 원시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므로 그들이 싸우려면 주먹과 몽둥이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현대 지성인들은 오늘날 우리 역사와 흐름이 낙관적(樂觀的)으로 흐르지 못하고 비관적(悲觀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모두가 이 병든 문명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2. 절망을 극복하는 길

(1) 죽음에서 오는 절망은 믿음으로 극복

죽음에서 오는 절망은 이길 수 있읍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하면 믿음으로 이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고 했고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 있으면 산이라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했읍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읍니다.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가지면 산과 같은 시험과 역경도 극복하고 넘어간다는 말씀과 같이 믿음이 있어야만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의 실존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실존과, 내세(來世)의 실존을 믿을 때에 죽음에서 오는 모든 공포는 극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과 정신과 영혼이 공존(共存)되어 있는데, 육신을 위해서는 밥, 떡, 정치, 산업, 과학 등이 있고, 정신을 위해서는 문학, 철학, 도덕, 예술 등이 있고 영혼을 위해서는 종교, 즉 하나님, 영생(永生), 말씀이 필요합니다. 영적(靈的)으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하고, 육적(肉的)으로는 물질만이 유일의 살 길이라 부르짖으나 막스의 유물론(唯物論)이 진리(眞理)는 못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과 영혼과 내세(來世)를 부정(否定)하고 세상은 물질뿐이라고만 합니다.

사람의 값이 물질적인 고기덩어리나 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값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7대 독자(獨子)라도 공동묘지로 가야만 합니다. 영혼이 붙어 있어야만 귀하고 가치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존재(存在)를 믿을 때, 영혼이란 것은 무어냐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을 수가 없읍니다. 밀알이나 보리알이나 그 생명력(生命力)이 있어서 다시 싹이 트는 것과 같이 생명이란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과 함께 종식(終息)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써 영원의 삶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이기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는 부활이요 또한 생명이라"고 했으며, 그는 사랑이기에 증오(憎惡)를 이기시고, 진리이심으로 허위를 이기시고, 생명이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그가 부활(復活)한 것과 같이 그들도 부활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 있읍니다.

미국의 대전도가 무디(D. L. Moody)가 만년이 되어 임종시에 곁에서 우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그는 영안(靈眼)이 열려 천국을 바라보면서 "왜들 우느냐? 너희들은 저것이 안 보이느냐? 저 집이 내가 갈 집인 줄 알았던들 진작 못간 것이 서운하다. 며칠 후에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거든 아예 믿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비참하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도 평화와 환희에 넘치는 찬송을 부르며 가는 것은 이 영혼과 그리스도와 내세를 믿음으로써 죽음을 극복하는 까닭입니다.

(2) 고독에서 오는 절망은 사랑으로 극복

현대인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고독을 이길만큼 강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가 점점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극도에 달할수록 인정(人情)은 점점 차가와 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고독을 해결하려고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하나는 망각(忘却)이고, 또 하나는 감상주의(感傷主義)입니다. 모두가 외롭고 고독하고 땅 속으로 기어내려가는 것만 같으므로 한참 있다가 용기를 내어 기분이다 하고서 방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에게 섞여도 보고, 같이 떠들어도 보고, 미친 사람 모양 하늘보고 웃어도 보고, 속으로 중얼거리기도 해보고, 바다와 산에도 가보고, 운동 구경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술도 마셔보고, 어떤 사람은 극장으로 가서 고독(孤獨)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마는 다 그것이 허사입니다. 고독

이란 뿌리가 마음 속 깊이 박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고독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읍니다. 운동 구경할 때는 잊어버려지지만, 나와서 집에 오면 고독이 또 여전합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떠들어봐야 아침에 자고 나면 머리만 아프고, 호주머니 돈은 죄다 털렸고, 바가지만 긁고 있읍니다. 고독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망 속에 섞어 가지고 망각으로 잊어버림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망각으로써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감상주의(Sentimentalism)입니다. 고독 속에다 내 몸덩이를 집어 넣어서 고독과 더불어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투쟁의 쾌감은 느낄는지 모르지만, 또 천재적인 고독자는 될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합니다.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고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자체를 알아야만 됩니다. 고독이란 무엇이냐 하면 죄(罪)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냐 하면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Egoism)라는 죄입니다.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이해 못하고 남을 대접하지 못한고로 고독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어느날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가 평소에 남을 사랑하고 도와 주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읍니다. 그리하여, 그를 위로하고 도와 주고 하여 고독하지 않은 것을 보았지만, 저쪽 모퉁이에 장교가 하나 누워 있는데, 아무 때 가보아도 혼자서 장작개비 모양 천정만 쳐다보고 있으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읍니다. 꼭 두 사람만 찾아오는데, 출근하자마자 의사가 한 번 열을 재고 간 다음에는 간호원이 와서 주사 한 번 놓고 가는 두 사람밖에 없었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읍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저 사람은 사람이 안 찾아오는가 생각하니, 이 사

람은 인생을 바쁘게 살았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남을 봉사해 주느라고 진지 잡수는 시간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새벽부터 밤중까지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이렇게 사랑으로 많은 사람이 병문안 오지만, 저쪽 사람은 제가 볼 때 아주 인생을 간단하게 삼각형으로만 살아온, 밥먹고 화장실 가고 부대 가고, 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부대 가고, 꼭 삼각형으로만 살았으니까 누가 찾아올 사람이 있읍니까? 왜 고독합니까? 남이 나를 사랑치 않아서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바울과 같이 내가 남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고독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3) 병든 문화에서 오는 절망은 소망으로 극복

어떤 사람이 힘에 겨운 무거운 돌을 옮기느라고 있는 힘을 다하여 쉬지 않고 반복할 때,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순간마다 자기 운명을 이기는구나, 저 사람은 바위보다도 굳세다"고 하였읍니다. 돌(石)은 의식도 비판도 선택도 의지적인 결단도 없읍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야 하는 존재이며, 또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A. J. Toynbee)는 말하기를 "자연에 악조건(惡條件)을 극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는 개인과 나라만이 발전해 나간다"고 했읍니다. 감나무에 열린 감은 올라가서 따고픈 사람이 따먹는 것이지 입벌리고 있는 사람이 먼저 따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난관도 돌파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일에 정열을 불어넣어 주고,

일에는 능률이 올라가고, 생활에 개량이 되고,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절망도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려움이 많다 하여도 그리 낙심할 것은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져 가기 때문이며, 또 만국(萬國)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려고 움직여 나가기 때문이며, 마지막에 이 세상을 이길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서 층암절벽을 돌아가는데, 밑창을 보니까 천야만야해 현기증이 나서 커튼을 내려놓고 가슴을 조마조마 하며 속으로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일곱 살쯤 먹은 애가 문 열고 들어와 이리뛰고 저리뛰다가는 나가더니 또 들어와서 또 뛰어 놀자, 어른들이 "얘, 이놈아. 넌 무섭지 않느냐? 잘못하여 넘어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라고 하니 그 일곱 살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아저씨, 왜 그렇게 겁이 많아요. 기차 운전사가 우리 아버지인데요"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니까 이것 누구의 장난 때문에 그런 줄로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의 어떤 큰 권력있는 정객(政客)이나 과학자(科學者)나 군략가(軍略家)의 장난이 아닙니다.

성경에 참새 두 마리가 엽전 한 푼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뜨릴 자 없다고 했읍니다. 낙심할 것 없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生命)을 잡았고, 교회도 잡았고, 이 나라와 이 지구 땅덩이를 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읍니까? 걱정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없는 까닭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왓트(G. F. Watt) 씨가 그린 「희망」이란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캄캄한 그믐밤에 층암 절벽 위에 웬 여인 하나가 다 낡아 찢어진 옷을 입고 거문고를 들었는데, 그 거문고의 줄이 낡아서 죄다 끊어지고 한 가닥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퉁기

니 한밤중이라 멀리 퍼져가서 많은 사람을 감흥시켰다는 이 모습은 오늘에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는 캄캄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여 있읍니다. 4천년 동안 소련 사람과 몽고 사람, 일본 사람, 인민군에게 찢기어 옷은 모두 찢어졌읍니다. 줄도 이제는 모두 끊어졌읍니다. 정치 줄, 사상 줄, 경제 줄, 교육 줄, 도덕 줄, 종교 줄도 다 끊어졌읍니다. 다만, 줄 하나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줄, 이것 하나만이 남아 있읍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에 왔을 때, 앞으로도 못가고 뒤로도 못갈 때, 고개를 위로 향하여 신앙의 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욥이 10남매가 죽었으며 재산이 날아가고 몸에는 병이 나고 친구는 떠나가고 아내마저 도망쳤지마는 신앙이란 줄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줄 하나가 남았는데, 미국의 달러 줄도 끊어지고, 일본 사람들이 원조해 준다는 그 줄도 믿을 줄이 못되고, 독일도 믿을 만한 줄이 못됩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오직 한가닥의 영원한 줄은 창조적(創造的)인 생명인 믿음의 줄인데, 그 믿음의 줄을 전 국민이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고 능력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새 출발할 때만이 여기서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죽음, 고독, 병든 문화에서 오는 절망을 신(信), 망(望), 애(愛)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의 생애와 목적
(요한복음 6 : 38-40)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에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저 세상으로 돌아갔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간 가운데에 인생을 값있게 살다가 가신 분이 그 몇 사람 되느냐 할 때, 또한 많은 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왔다간 가운데도 가장 위대한 사람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라고들하나 그 중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들 성인(聖人)이라는 칭호보다도 우리를 죄(罪)에서 구속하여 주신 메시야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주후 300년경, 로마 나라에서 그리스도교를 가장 핍박 많이 하던 율리안 황제가 마지막 임종(臨終)하는 순간에 그의 유언(遺言)이 "오, 나사렛 청년이여! 그대는 이기었도다"라고 합니다.

독일의 초인철학자(超人哲學者) 니체(Nietzsche)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꼭 한 사람 보았는데, 일찌기 세상에 왔다가 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었다"고 했읍니다.

또한 인도의 간디(M. Gandhi)는 말하기를 "나는 기독교는 존경하지

않으나 그리스도만은 존경한다"고 했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세상 사람이 축하하는 것이라든지 그의 나심을 기점으로 주전·후를 삼는다는 것은 과연 그 분이 인류의 구주임을 또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에 비해서 문벌도 학벌도 경력도 보잘것 없읍니다. 또 그의 나이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자는 74세를 살았고, 소크라테스와 석가는 70세를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반도 못되는 33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치고 가셨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도 굵게 값있게 살고 가셨느냐는 것입니다. 문벌을 따져 볼 때는, 공자는 양반집에서 태어났고, 석가는 인도의 가비라 성주 정반왕(淨飯王)의 왕자(王子)로 태어났었읍니다. 또 공자는 수양(修養)을 많이 한 분이며, 석가도 왕자로서 인도의 많은 학문을 습득했읍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발상지(發祥地)이며, 문화의 온상지(溫床地)인 아덴스에서 많은 배움을 닦은 사람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벌은 목수인 노동자의 집에서 태어낳고 학벌도 그 당시에 철학과 문학으로 발달된 아덴스에 유학한 일도 없고, 그 당시에 법률과 정치와 경제로 발달된 로마에 유학한 일도 없고, 그 당시에 비교종교학(比較宗教學)으로 발달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를 연구했다는 말도 없고, 단지 경력(經歷)이라고는 끌, 망치, 대패를 가지고 30년 동안 노동자 목수노릇 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3년 동안 유대 땅에 다니면서 봉사(奉仕)해 준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문벌이나 학벌이나, 또한 경력이나 연령적으로 볼 때 보잘것 없는 한 촌락의 청년이었읍니다마는, 어째서 그가 가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흠모(欽慕)하고, 그의 발자취를 모두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사복음(四福音)을 연구해 보면, 그리스도는 짧게 살았지만 세상에 계실 때 한 가지 뜻만 찾았읍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만 찾으시다가 이 뜻을 깨달으신 다음에는 이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침식(寢食)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가가상(十字架上)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시지 아니하시고 다 쏟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실히 일했기 때문에 짧게 살았지만 가장 굵게 살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그리스도의 생애(生涯)의 목적은 뚜렷하고도 변동이 없읍니다. 흔들리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여 우리 인간들은 한 번 결심한 것이 "인심(人心)은 조석변(朝夕變) 하고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과 같이 시대(時代)의 사조(思潮), 권력(權力), 황금(黃金), 정욕(情慾), 감정(感情), 혈기(血氣)에 따라 변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 안 다음에는 변치 아니하시고 실천했기 때문에 가장 짧게 살았지만 굵게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1) 성전 안에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살 먹은 소년 때에 부모(父母)를 따라서 유대 나라의 해방 기념일인 유월절(逾越節)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제사(祭祀)를 다 지내고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고향으로 귀가(歸家) 도중 하루길을 오다가 아들을 찾으니 아들이 없어졌읍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 사흘 동안 헤매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랍비와 더불어 성경 말씀을 주고 받는 것을 보고 잃었던 예수를 찾아 원망하는 태도로 "어찌 네가 여기 있었느냐, 너희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려고 사흘 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고 할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인데, "어찌하

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셨나요"라고 하였읍니다. 이 뜻은, 내가 하늘의 영광(榮光)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온 것이 그저 끌, 망치, 대패를 가지고 나무토막이나 깎으며 어버이나 봉양(奉養)하고 동생들 밥이나 먹여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이 영혼(靈魂)을 다시 한번 깎아서 다듬어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2)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曠野)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 억조창생(億兆蒼生)을 건지러 나가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인류의 시조 아담을 쓰러뜨린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또 쓰러뜨리려고 어려운 세 가지 시험을 하였읍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시험, 하나는 종교적인 시험, 또 하나는 정치적인 시험이었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기기 어려운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읍니다. 사십일 동안 굶으셨을 때에 마귀가 돌을 가지고 오더니만 "이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읍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읍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시험하기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에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고 하셨읍니다. 그것은 재주와 영웅심(英雄心)을 보이라는 뜻인데,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읍니다. 다음에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하였으니, 이것은 정치 문제인데 타협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험이 이 세 가지 때문에 다 넘어갑니다. 저도 군목 생활하면서 많은 젊은이를 상대해 보았고, 또한 인생 역사를 살펴 보았지만 모든 사람

이 실패하는 것이 경제 문제, 명예 문제, 허영심 때문입니다.

(3) 세리의 집에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했읍니다. 그 당시에 형식과 전통만 자랑하는 생명이 없는 기성 종교가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여 당신이 세리(稅吏)와 더불어 음식을 잡수시고, 죄인(罪人) 여자와 더불어 앉아 이야기를 하시고, 안식일에 사람의 병(病)을 고치는 일을 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 율법에서는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손도 안 씻고 그냥 잡수십니까?" 하고 흠을 잡으려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형식이 중요한 줄 아느냐? 제사가 중요한 줄 아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의(義)라는 것은 옷에 묻은 때만도 못하다고 했읍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옷이지만 털면 먼지가 나오고,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비누로 잘 닦고 나왔지만 마른 수건으로 닦으면 또 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법률과 세상적으로는 죄(罪)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읍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의사가 병자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세리(稅吏)나 탕녀(蕩女)의 영혼을 살리려 오셨다며는 안식일(安息日)에 우물에 빠진 양(羊)을 건져내지 않겠으며, 안식일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내지 않겠읍니까? 형식적인 안식일의 규례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고, 손을 씻어 육체를 깨끗케 하는 것보다 심령을 씻어야 하겠읍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찬(聖餐) 떡이나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의 가

장 중요한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 전통, 의식, 조직, 수자, 사업 기관이 아니요,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랑이 없는 신앙은 마귀로부터 온 신앙이요, 사랑이 있는 신앙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이라"고 했읍니다.

(4) 가족에 대한 관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벙어리와 소경을 고쳐 주고,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었던 자를 살아나게 하고, 또 천국 복음을 반포하실 때에 예수님의 인기(人氣)가 나날이 높아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인기는 떨어지고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에 그만 시기심이 나서 예수님을 매장(埋葬)하려고 "예수가 저렇게 행한 것은 바알세불이라는 마귀가 들려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비난하였으며, 그 소문을 듣고서 모친과 형제들은 근심하여 예수를 찾아 왔읍니다.

이 때, 회당(會堂)에는 입추의 여지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복음(福音)을 듣고 있었읍니다.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예수께 말할 때, 그의 답변이 "누가 내 부모며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참 혈연(血緣)"임을 밝히셨읍니다. 편협한 지방색(地方色)이나, 인종차별(人種差別)이나 계급을 타파하고 세계 동포주의(世界同胞主義)인 대가족주의(大家族主義)의 이념(理念)을 선포(宣布)하신 것입니다.

어떤 미국인이 한국 학생 한 사람을 10년 동안 돌보아 훌륭한 인물로 만든 사실을 제가 압니다. 인종(人種)이 다르고 국경(國境)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기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주연(酒煙)을 금하고, 자동차도 안 사고, 결혼까지도 포기하여 사생활을 송두리째 희생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이룰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사랑으로 맺어진 희생이 오늘 훌륭한 선교사를 만들고 영계(靈界)를 위하여 큰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진정으로 누가 내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함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학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당신을 위하여 무엇으로 보답(報答)하면 되겠읍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한국의 영혼을 위해 일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바랄 뿐이오"라고 했답니다. 그는 참 사랑의 소유자이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는 파벌(派閥)과 동성(同姓)과 고향과 도별(道別)을 따져 친불친(親不親)을 만듭니다. 미국은 50주나 되는 광대(廣大)한 땅이지만 파벌이나 도별을 따지지 않고 평온하게 살고 있읍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협소(狹少)한 마음을 타파하고 문화인(文化人)이나, 야만인(野蠻人)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백인, 흑인, 황인할 것 없이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사랑함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5)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읍니다. 이 말씀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기도 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구제 사업을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선민(選民)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다 된 사람이라고 자부(自負)하

는 그 당시의 바리새교인들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형식적인 것만으로 천국(天國)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단호히 말했읍니다.

여러분! 천국은 남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외식(外飾)하는 허영심(虛榮心)이나 위선(僞善)보다 참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즉,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께 거짓없는 심령을 바쳐야 하되 사람이 듣기 위해 중언부언(重言復言)하지 말라고 했읍니다. 제가 미국을 잠깐 다녀왔는데, 그 나라에서는 새벽기도, 부흥회,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별로 하지 않으나 교회의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의 신앙 태도는 똑같은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흥회나 철야기도는 많이 하지만 거짓말, 도둑질, 욕설, 싸움도 잘하여 생활 태도가 여일치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입산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으나, 그보다도 진심으로 회개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6) 참 양식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했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려니까 사마리아 수가 성에 여자 하나가 나와서 물을 긷고 있읍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서 시장하시고 목이 마르니까 제자들에게 떡좀 사오라고 성(城)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 여자보고는 "여인아 나 물 한 그릇다오"하고 말씀하시었읍니다. 깜짝 놀란 여인은 얼굴을 들어 쳐다보니 유대 나라 사람이었읍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옛날 혼혈족속(混血族屬)이 되어가지고 아주 유대 사람이 볼 때에는 천민(賤民)이라고 말도

아니하고 유대 나라에 오면 성 안에 들여놓지도 아니하고 여관방에 재우지도 아니하는 멸시받는 민족이요, 더구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유대 나라 점잖은 양반이 물을 달라니까 여자가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고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에 예수님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 다섯 남편이 그 마음 속에 있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잡수시는 것을 잊으시고,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어서 그 여자의 마음에 다섯 남편을 다 토해 내고 그 영혼(靈魂)을 살려 주셨읍니다. 물 잡수시러 가셨던 예수님은 영혼을 볼 때에 목마르신 것을 잊어버리시고, 그 여인의 죄(罪)를 씻어서 그 여인의 영혼을 살려 놓았더니, 이 여자가 너무 감격해서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성 안(城內)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갔을 때에 제자들이 떡을 사 가지고 왔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 잡수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했읍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까? 우리 나라 인사를 좀 고쳐야 하겠읍니다. 미국 사람들 인사는 아침에는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합니다. 그 인사가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 나라 인사는 그저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만나도 "진지 잡수셨읍니까?" 점심 때에 만나도 "점심 잡수셨읍니까?" 저녁에 만나도 "저녁 잡수셨읍니까?" 또 차려다 놓고는 "많이 잡수세요"라고 합니다. 이거 뭐 돼지새끼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말이 있읍니다. 나라마다 국민 정신의 가치 기준이 다 다르다고 했읍니다.

인도 사람들은 자립 정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義), 헬라 사람들은 미(美), 로마 사람들은 정의(正義), 불란서 사람들은 명예(名譽), 덴마

크 사람들은 성실(誠實), 독일 사람들은 이성(理性), 영국 사람들은 인격(人格), 미국 사람들은 능력(能力),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너 오늘 하나님 법도(法度)대로 율법 지켜가며 의롭게 죄 짓지 아니하고 살았느냐?", 그 다음에 저 불란서 사람들은 "너 훈장이 몇 개나 있느냐?", 덴마크 사람들은 "너 오늘 성실하게 살았느냐?", 영국 사람들은 "너 품위가 얼마나 있느냐?", 미국 사람들은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만, 한국에서는 혁명을 두 차례나 치뤘지만 아직도 "너 빽 있니?" "돈 있니?" "밥 먹었니?"라고 묻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어야 하겠읍니다.

(7)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읍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선생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간청할 때, 너희는 외식(外飾)하는 바리새교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읍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의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 식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을, 내 동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읍니다. 공의(公義)는 나라를 흥하게 하고, 죄(罪)는 백성의 수치가 된다고 했읍니다. 가정과 나라가 잘 되는 것은 먼저 각 사람 마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8) 제자 베드로가 간청하는 데 대하여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한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향하여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이나 빌라도에게 붙잡혀 죽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만류할 그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읍니까?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읍니까? 스승이 돌아가신다는데, 만류함이 마땅하지 어떤 제자가 "선생님, 잘 생각하셨읍니다. 어서 돌아가십사오"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죄(罪)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묻어 오느냐 하면 인정에서 묻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잔치집에 술이 떨어져서 어머니께서 술을 만들어 주라고 했을 때에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는 어디까지나 나를 낳아 주신 육신(肉身)의 어머니일지언정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인정을 통해서 죄가 묻어 올까봐 그 시간적으로 분석하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대개 죄(罪)라는 것이 인정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이지만 왜 남자들의 목에 호두알 같은 것이 나온 줄 압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남자는 의지적(意志的)이니까 넘어뜨리기가 힘이 들고, 여자는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점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허영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뱀은 이 허영심 많은 여자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더냐"라고 하니, 하와가 대답하기를 "따먹지 말라 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니 또 뱀은 꾀이기를 "따먹으면 죽지도 아니하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 그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하더랍니다. 사람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죄 짓는다고 합니다. 그저 모두가 감투를 보니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돈을 보니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처녀 총각들이 서로 보니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것 때문에 죄 짓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허영심이 발하여 두려워 떨면서도 담대히 하나 따가지고 한 번 베어 물었더니만 영광의 옷이 전부 날아가버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남편인 아담에게 먹기를 권했읍니다. 아담은 먹자니 죽겠고 안 먹자니 아내가 섭섭해 할 것이고 인정(人情)에 끌려 먹기 싫은 것을 먹다보니 넘어가지 않고 목에 걸려서 남자는 목에 호두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의 사과라고 하는 이들이 있읍니다. 죄는 인정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9)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은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겸비하신 예수님께서도 죽음이 앞에 있는 것을 내다볼 때에 막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읍니다.

여러분! "육신의 뜻은 죽는 것이고 성령의 뜻은 사는 것과 평강이라"고 했읍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 생활(信仰 生活)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느냐, 육신의 뜻을 더 따르냐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아마 육신(肉身)의 뜻을 더 많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 볼

때 미장원에 자주 다니는 것보다 그 물질로 선한 일 해 주기를 원하실 것이고, 술집에 가는 것보다 불쌍한 고아를 찾아가고, 한술 밥을 거지와 나누어 먹는 것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⑽ 십자가 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十字架上)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완성, 구원의 완성, 사명의 완성입니다. 사람의 말 가운데에 가장 귀중한 말은 유언(遺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공자님은 마지막 임종시(臨終時)에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고, 석가모니의 유언은 "구루레 바퀴가 늙어서 부스러지는 것 같다"고 했고, 소크라테스는 "닭 한 마리 빚진 것을 갚아 달라"고 했고, 톨스토이는 죽을 때"진리, 그 많은 것을 사랑한다"고 했고, 칸트는 "좋다"고 했고, 괴테는 "좀더 빛을"이라고 했읍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갈 때에 "돈" 하고 갔다 합니다. 왜 "돈"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돈만 아는 수전노(守錢奴)입니다. 보리죽 쑤어 가지고 벽에 짜디짠 조기 한 마리 매달아 놓고 한 숫갈 넣고 쳐다보고 삼키고……반찬을 안 해 먹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금고 속에 넣고 병이 들었더랍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돈을 못가지고 가실 터인데,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사실 것인데 왜 이러십니까?" 하니 "그러면 의사를 불러라" 해서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주사 놓으려고 하니까 "여보! 값이 얼마인가 알고 놓읍시다" 의사는 암만이라고 하니 "무어? 안 맞아!" 해서 그냥 갔답니다. 그러다가, 병(病)이 더하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그까짓 돈 얼마나 귀하다고 한 대만 맞으면 나을텐데 그러십니까?" 하니까 다시 오라고 해라 해서 의사가 와서 보더니만 "이제는 두 대 맞아야 되겠읍니다" 하니 "그러면

두 대면 값이 얼마요?" 해서 처음의 곱이라고 하니까 안 맞는다고 해서 의사가 갔읍니다. 이제는 아주 병이 깊어졌읍니다. 의사를 또 오라고 했읍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이제는 백 대를 놔도 안 되겠읍니다" 하고 그냥 나갔읍니다. 죽게 될 때에 마지막 금고쪽을 향하여 "돈" 하고 죽었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무슨 말씀을 남겨놓고 떠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사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겠읍니다.

2.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했읍니까?

(1)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읍니다. 이 자연은 인생의 도장이요 스승이요 백과사전이요 자연계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江)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은 산(山)을 사랑한다고 했읍니다.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휴식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시고, 속죄하시고, 승천하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복음(四福音)의 대부분이 산상교훈(山上教訓)으로 되어 있읍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자연계(自然界)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읍니다. 사랑을 말할 때에는 태양과 비를 가지고 말하셨읍니다. "너희들이 사랑할 때에는 저 태양빛이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내리듯이 편협되지 아니한, 원만하고 완전한 사랑을 하라"고 무언(無言) 중에 암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표리가 있고, 장단(長短)이 있읍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에게 식민지 정책을 받아 주권(主權)과 강토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보낼 때에 남자들은 먹을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여자들은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하여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두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든 너희들이 저 새 한 마리보다 못하냐"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왜 입을 것을 걱정하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너희들이 풀 한 포기만 못하느냐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걱정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고 하셨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새를 보기만 하면, 꽃을 보기만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긴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새와 같이 일찍 일어나서 새와 같이 활동하고 새와 같이 욕심을 줄이면 먹을 것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이 왜 가난한 줄 압니까? "나라가 갈라져서요, 땅이 좁아서요, 산이 많아서요, 인구가 많아서요"라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독일도 갈라졌고, 이 땅은 덴마크(丁抹)보다도 넓고, 산은 스위스보다도 적고, 사람의 밀도는 화란보다도 낮습니다. 다만, 협동과 근로와 창조적 정신이 없어서 못사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학 총장의 부인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고, 회사 사장 부인들도 나가서 일하고 있읍니다. 어떤 대학 교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10여세 아이도 신문 배달을 합니다. 이렇게 노동의 정신과 자립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부유(富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도 안 하고, 게을러 빠지고, 잠만 자고, 그리고 돈은 못벌면서 돈 쓰는 재주는 좋아서 제일 잘 씁니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됩니까? 버는 재주도 없으면 쓰는 재주도 없어야지요. 새와 같이 일찍 일

어나서 땀흘리고 활동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입는 것을 걱정하니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가리키며 저 백합화와 같이 너도 깨끗하고 겸손하고 향기로와 보아라. 너의 정신, 너의 사상, 너의 인격, 너의 생활을 아름답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벌거벗기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2)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신령(神靈)한 분이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꼭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왔다갔다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인생의 이면(裏面)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보면 농부의 씨뿌리는 비유, 장터에서 아이들 노는 것, 장사꾼의 사고 파는 것, 어부들의 고기 잡는 것, 떡 반죽 그릇과 누룩덩이, 어린 아이와 부모, 나그네와 여관집 주인, 결혼집과 초상집, 왕, 전쟁, 건축, 미술, 노동자, 집짓기 등 인생 밑바닥까지 다 알았읍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손에 그물을 가져야 하지요. 나무를 베려면 산 속에 들어가서 손이 부르터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인생들의 영혼을 건지려면 다 좇아다녀야 합니다. 집에서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나 하고 "아멘" 하고 또 집에 갔다 예배당에 오고, 이것은 완전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사방에 죄인들을 찾아 뒷골목까지 찾아다니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나만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되는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회를 건지려면 우리는 좀더 적극적이고 진정한 소금과 누룩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3) 성경 중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능통하시고, 인정하시고, 잘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한 설교하실 때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읍니다.

우리는 기도가 막혔을 때에 시편을 읽어야 하고, 소망을 가지려면 이사야서를 읽어야 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잠언을 읽어야 하고, 부부의 애정(愛情)에는 아가서를 읽어야 하고, 윤리(倫理)가 부족하면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어야 하고, 사랑이 부족하거든 고린도전서 13장, 요한 1, 2, 3서를 읽어야 하고, 시험을 받았으면 욥기를 읽어야 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야 하고, 혈기가 나거든 야고보서를 읽어야 하고, 희망을 얻으려면 계시록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어야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가장 유익한 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산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마는 그 먼저 내 머리맡에 있는 성경책을 읽으신 후에 산을 찾아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어찌 가까운 데 있는 성경을 읽지 못하고 산기도를 능히 할 수 있겠읍니까? 성경 속에서는 생명이 꿈틀대고 있읍니다. 마음에 육박하여 오는 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읍니다.

(4) 기도 중에서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고 공생애(公生涯)에 나오셨읍니다. 열 두 제자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음에 불렀읍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했읍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일이나 작은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지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5) 체험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배신할 때, 그 십자가 지실

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읍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조금도 낙심할 것 결코 없읍니다(롬 8 : 26).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자연 속에서, 성경 속에서, 기도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다음 체험 속에서도 찾았읍니다.

3.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1) 자기를 포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했읍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과 18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더니 양을 내쫓고 비둘기를 내쫓았읍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는 비둘기와 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거룩한 제물입니다마는 왜 내쫓았읍니까? 이것은 양이나 비둘기가 죽어서 소리없이 있지 아니하고 살아서 소리내고 냄새를 피우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쫓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信者)는 세례를 받으므로서 옛 사람이 죽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포도는 썩어야만 포도즙이 나오고, 소금은 자체가 녹아져야만이 짠맛이 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옳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도 집에 와서 그대로 살자니까 괴롭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괴로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권투하는 청년이 이때

까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심하고 예수를 믿었읍니다. 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철두철미 회개를 하고 참으로 거듭났읍니다. 세례를 받았읍니다. 너무 착실하니까 얼마 후에 집사를 시켰읍니다. 그 아내가 이 약점을 이용하여 조금만 잘못해도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데, 이 남자가 예전 같으면 한 번 때리면 납작해지겠는데 그럴수는 없고 예수님을 생각하고는 그저 속상할 때는 주먹을 쥐고 바르르 떨며 여자를 쳐다보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구나" 그랬다는 것처럼, 이것이 자기 포기(自己抛棄)이며 신자입니다.

물론, 더 큰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나 태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여간 참아야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는 자는 복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읍니다.

(2) 사랑으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읍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실천하셨읍니다. 자기를 못박는 원수를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셨읍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사랑 받았건만, 돈 30냥에 선생님을 팔아 먹고 배신했읍니다. 사람이 배신당한 것 만큼 가슴 아픈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세익스피어가 "북풍 찬바람아 불어라……아무리 차다 하더라도 배신당한 것 만큼 마음이 아프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처럼 배신당하는 것은 참으로 피눈물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主)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와 같은 인간 최상의 배신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입을 맞추어 주었던 것입니다(마 26 : 49). 원자탄의 힘이 아무리 크지마는 목자가 양을 기르는 사랑보다 더 큰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알렉산더나, 시이저나, 나는 말과 칼과 창을 가지고 전 구라파를 빼앗았으나 현재는 손바닥만한 땅도 없지만, 그리스도

의 사랑으로 점령한 땅은 온 세상에 없는 곳이 없고 누구라도 이 땅을 뺏을 자가 없다"고 했읍니다. 이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려면 참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3) 봉사

마가복음 3장 30절에 예수님은 남을 위해 봉사(奉仕)하시다가 어떻게 바쁘시던지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고 했읍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봉사하신 중에서 가장 심각한 장면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 놓고 만찬을 잡수시기 직전 유대 나라 풍속은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 주고 머슴이 주인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인데, 누구 하나 발을 씻겨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시간은 없고 십자가는 져야 하겠고, 또 음식은 떼어야 하겠으므로 직접 나가셔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읍니다. 이 발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제일 불결한 부분 아닙니까? 발도 유대 나라 풍속에는 하급 머슴이라야 주인의 발을 씻겨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하신 손으로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신 겸손과 사랑과 봉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삼각산에서 목사님 몇 분이 기도회(祈禱會)를 갖는데, 한 목사님이 저녁에 자기가 인도할 차례가 되더니 "나는 오늘 목사님들께 설교 안 합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무슨 설교 합니까? 그러나, 제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 시간은 저에게 주신 시간이니 나갑시다. 물 담을 그릇을 가지고 나오십시오"라고 한 후에 흘러가는 냇물에 가더니 물을 떠 가지고 와서는 양말 벗고 마주 앉아서 발을 맞대고 서로 씻어 주라고 하였읍니다.

처음에는 볼 수도 없고 구역질이 나왔으나, 그러나 그 중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울었답니다. "내가 강단에서 10여년 동안 아니 20여년 동안

발 씻겨 주라고 설교했지만, 누구의 발을 지금까지 씻겨 주었던가!"라고 말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울음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시거든 가시자마자 물 한 대야 떠다가 집안 식구들의 발을 비누로 씻겨 주어 보세요. 커다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말로만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행(行)함으로 옮길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실증주의(實證主義) 시대인 것입니다.

(4) 희생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희생하심으로써 성취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읍니다.

공자나 석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는 것은, 공자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때리고 죽여도 좋다고 하였고, 석가모니는 살생(殺生)을 금했으나,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몸까지 주라"고 하였읍니다. 이것이 참 희생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70년 산다고 하지만 어려서 10년, 늙어서 10년, 일생 동안 병나서 10년을 모두 합하여 30년을 빼면 40년 남습니다. 이 40년도 낮과 밤을 빼면 20년 남습니다. 20년도 소같이 산 생활은 소의 생활이요, 돼지같이 산 생활은 돼지의 생활이요, 사람같이 산 생활만 사람의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고 한 이 말씀을 붙잡고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지 남은 여생(餘生)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를 희생하고 부정함으로, 남을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룩하는 성도(聖徒)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민중의 각오
(여호수아 1:16-18)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曠野)에서 40년 동안을 유리 방황하다가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백성들은 모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영도자(領導者)가 시급히 요구되었읍니다. 이 때 제2의 영도자로 선출된 사람은 여호수아였읍니다. 그는 열 두 정탐군 중 한 사람으로서 불굴(不屈)의 용사이며 아말렉 전쟁의 지휘관이었고,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 청렴한 사람, 신뢰할 만한 인격적인 인물이었읍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6년 동안을 천신만고(千辛萬苦) 악전고투(惡戰苦鬪)하면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숙원하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읍니다. 오랫동안 시달렸던 여장을 풀어 놓고 새 국가 창업의 대업을 이룬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읍니다. 대 지도자 모세가 못한 대업을 젊은 사람이며 경험도 적은 여호수아가 능히 사명을 걸머지고 완성시켰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적과 기사를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일이 기적(奇蹟)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볼 때, 결코 우연만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 위업(偉業)의 배후에는 응분(應分)한 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큰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많은 군중을 이끌고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할 과제가 모세의 후배인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은 그 배후에 많은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고 밀어 주고 격려하여 피까지 뿌려가며 받들던 선량한 민중이 있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는 것이었읍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기는 쉽지만, 그 뒤에서 그를 받들고 나간 사람의 숨은 공로를 기억하는 일은 적습니다. 가을철에 무르익은 열매를 탐스럽다고 칭찬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한 땅 속에 보이지 않는 썩은 한 줌의 거름의 공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대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까지는 여호수아 한 사람의 힘이 결코 아니고, 그 배후에서 희생적으로 받들던 선량한 민중들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이 해방(解放)이 된 지 41년이 가까와 오지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서 헤매이는 것과 같은 현실이매, 여호수아를 따르던 선량한 민중의 각오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1. 일치 단결

모세 당시에는 고라와 온과 다단이라는 불순한 사람들이 있어서 당(黨)을 조직(組織)하여 사사건건(事事件件)이 모세를 대항하여 많은 어려움을 주었으나,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이 갈라지게 하여 산채로 매장하여 불순한 사람들을 제거하여 버렸고, 나머지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하여 일치 단결했었읍니다. 그들은 대(大)를 위하여 소

(小)를 희생하고 나라를 건립하기 위하여 민중은 하나로 뭉치었읍니다.

나라가 부흥 발전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리적인 조건이 유리해야 하고, 둘째는 천시(天時)적인 조건을 만나야 하고, 세째는 인화단결(人和團結)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국이 강하다는 것은 바다가 있어 지리적인 조건이 유리하다는 것이라든지 해군력(海軍力)이 강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의 제일가는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며, 국민들이 일단 유사시에는 초당파적으로 연립내각(聯立內閣)을 세워 국가의 위기를 막아낼 때, 서바나 함대의 침략도 막아냈고, 불가능이 없다는 나폴레옹의 군대도 물리쳤고, 히틀러의 무차별 폭력도 이겨냈던 단결할 줄 아는 민족이었던 까닭입니다. 독일 사람도 단결력이 강합니다. 공장에 다니는 여직공들은 누구에게도 훈련받은 바 없지마는 두 사람이나 열 사람이나 거리를 지날 때 발을 맞추어 가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라인강의 기적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원수들이 둘러 선 틈바구니 속에서 내일의 운명을 알지 못하며, 천시적으로 전쟁과 재난으로 민족이 가난에 시달렸으며, 인화 단결하는 것마저 결핍하여 사분오열(四分五裂) 되어가고 있읍니다. 한 가정을 보더라도 두 사람이 화목하면 행복할 수 있지마는 부부지간에 불목하면 재산도 평안도 소용없고 마치 지옥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사회와 국가를 좌우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민족이 단결함으로써 아름다운 복지 국가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몽고의 어떤 사람이 운명할 때, 5형제를 모아 놓고 훈계하기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였답니다. 그 나라는 유목민들인고로 사냥할 때 쓰이는 화살을 아들들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주며 "꺾어 보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꺾어 버렸답니다. 다음에 다섯 개를 모아서 제일 큰아들부터 "꺾어 보라"고 하였으나 도저히 꺾지 못할 때, 그 아버지의 실물 교훈은

"너희들은 이처럼 단결하라"고 간곡한 유언(遺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이와 같이 단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큰 결점은 단결력이 희박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민족이나 제일 유감되는 것은 단결력이 결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단점을 인정하고 결핍된 단결심을 배양해 나아가야만 되겠읍니다.

미국의 한 기자(記者)가 국가적인 특징(特徵)을 논하기를, 중국에 가보니 사람들이 키가 커서 쑥대 같아 바람만 불면 쓰러질 것 같으나 그들은 인내심이 강하다고 했고, 일본에 가니 키가 작고 얼굴은 옹졸하여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한데 뭉치니 쇠덩이와 같이 강하더라고 했으나, 한국을 보고는 사람들이 키도 몸도 알맞고 지혜가 있어 보이는데 뭉치는 단결력은 볼 수 없더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개인적으로 활약하는 것은 뛰어나지마는 단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함은 분열하면 망하고 뭉치면 산다는 말씀입니다.

스팔타(Spart)에서 전투하던 500 용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읍니다. 그 군대는 애국심(愛國心)이 강하고 군인 정신이 충일(充溢)하여 가는 곳마다 무적의 용사로서 백전백승(百戰百勝)을 거두었읍니다. 한 번은 아덴스의 많은 군병들에게 포위되어 양식이 떨어졌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하루는 밤중에 비밀 통로를 통하여 적군(敵軍)이 쳐들어와서 배고파서 기진해진 군대들이 전멸하고 말았읍니다. 그 패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500명의 용사 중 단 한 사람이 배신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병사 하나가 지하 비밀 통로의 뚜껑문을 열고 적진으로 달려가서 손을 들고 항복하였답니다. 한 조각 떡을 얻기 위하여 조국을 배신하였으며, 전우(戰友)의 생명과 바꾸는 비

열한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499명이 아무리 조국과 민족과 명예를 위하여 싸워보려고 했지마는 단 한 사람이 협력해 주지 않을 때 분열이요, 패망이요, 죽음이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왜 우리는 단결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 나라 지역이 너무나 산악이 많아 교통이 발달되지 못한 관계로 서로 친교를 맺지 못하고 이해가 없어서 의사가 소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조 500년 때 문인(文人)만을 숭상하고 무인(武人)을 등한시 하였을 때에 외적(外敵)이 침입하여 피해를 많이 입음으로 무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갑자기 동리 패싸움을 시킨 것입니다.

세째로 이조 500년 동안 씨족(氏族)과 촌수(寸數)를 따져나가다가 오늘의 당파심이 생겨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경도 하나라 하면서 왜 분열의 추태를 초래하고 있읍니까? 그 원인을 말한다면, 신학적인 논쟁과 세속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교권주의; 감정, 달러 등이 오늘의 분열을 가져온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이 같은 조건과 문제들의 그 원인은 그리스도 무릎 앞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열 두 제자들은 연령, 개성, 환경, 조건, 사상, 경험도 다 각각 달랐으나 예수 그리스도 무릎 앞에서는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라는 제자는 사대주의자로서 친 로마파이었고 시몬은 순수한 국수주의(國粹主義), 민족지상주의자이지만 그리스도 무릎 앞에서 이 두 사람은 조화(調和)되었고, 요한은 마음이 온순하였지만 베드로는 아주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이나 두 사람이 하나 되었었고, 안드레는 덮어 놓고 믿는 단순한 신앙가였지만 도마는 이성적이고 비판적이며 회의적인 사람이었으나 이들은 다 그리스도 발 앞에서는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목 생활을 하는 중 군대는 특수한 사회로서 각계 각층의 개성과 계급으로 조직되어 있지마는 군인이라는 그 정신 아래에서 감정도, 자존심도, 학식도 다 포기하고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움직여 나갑니다. 하급자는 상급자를 높이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사랑하며 단결하여 나가는 것은 군법을 준수하는 단체 생활이기 까닭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과 사상을 철저히 갖추어 일치 단결하여 하나님이 없다하는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 승리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새로운 방법으로 침략을 꿈꾸되 무력을 가진 열전은 가급적 피하고 냉전을 해서 후진국가의 경제적인 원조, 민주 진영의 도덕의 파괴, 죽음을 의미하는 평화 공존, 자유 진영의 분열의 조장을 꾀하는 공작(工作)인데, 서로 싸움을 붙이는 것은 국력의 쇠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자유 진영을 분열시키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계는 내적인 싸움을 하루 속히 청산하고 대외적으로 공산주의를 대비하여 사상으로 신앙으로 일치단결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느냐의 그 방법과 비결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개성이 다릅니다. 한 혈통을 타고난 같은 자손이지만 생김새에 따라 개성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넓고 부드럽지만 어떤 사람은 신경질적이고 마음이 좁습니다. 한 어머니의 형제이나 마음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나와 꼭 같기를 바랄 수 있읍니까? 우리 남한 땅만 해도 14도 지방 사람이 다 모여 삽니다. 따라서, 그 특색도 각각 다릅니다. 전라도 사람은 풍전세류(風前細柳), 경상도는 태산준령(泰山峻嶺), 강원도는 암하노불(岩下老佛), 충청도는 청풍명월(淸風明月), 경기도는 경중미인(鏡中美人), 황해도는 석전

경우(石田耕牛), 함경도는 이중투구(泥中鬪狗), 평안도는 맹호출림(猛虎出林)이라고 지방의 개성에 따라 그 특질이 있답니다. 이와 같이 개성에 따라 친교(親交)하고 이해하며 지낼 때는 조화와 단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장님 몇 사람이 코끼리 구경을 갔었는데, 손으로 만져진 부분에 따라 그 생각하는 모양이 달랐읍니다. 한 장님은 배를 만져 보고 "벽과 같다"고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과 같다"라는 등 차이 있는 말을 했읍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가치와 각도에 따라 사고방식이 각각 다르므로 꼭 나와 같아야만 될 수는 없읍니다.

세째로 경험이 다릅니다. 경험은 하나의 관념이 되고, 관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생활이 되며, 그 생활을 통하여 오는 자기의 주관(主觀)과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읍니다. 이같이 경험이 동일하지 못하니 서로 이해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째로 사람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개인의 교육이나 직업, 계급, 의무에 있어 각각 입장이 다릅니다. 한 가지 사물인 "둥근 달"을 보고도 이북에서 피난온 나그네들은 고향을 그리워할 것이며, 연애하는 두 남녀에게는 우아한 달밤이 자기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나, 술을 좋아하는 친구는 술 안주인 빈대떡으로 느껴지는 등 그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인간마다 개성, 사고, 경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과 양보적 정신으로 다양(多樣) 속에서 통일(統一)을 찾는다면 충돌이나 분열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산다는 것은 짚단 한 묶음을 놓고 끊으려 할 때는 죽은 삼손(Samson)이나, 항우(項羽)나, 역도산(力道山)일지라도 불가능하지만 짚단을 풀어 놓고 어린 아이에게 끊

으라 하여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남한 민족 4천 3백만이 뭉치기만 하면 일본이나 중공의 9억이라는 수자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며, 교회 신자 8백만이 단결하기만 하면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죽음이라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 훌륭한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계, 사상계, 예술계, 뿐만 아니라 정치계 등 여러 면에 일꾼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회가 올바로 정화(淨化)되지 못하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깊이 반성해야 되겠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것같이 너희들도 서로 하나가 되라"고 네 번이나 반복하면서 간절히 부탁하셨읍니다. 마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쪼개어 멀어지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면서도 한 손은 하나님의 손, 한 손은 인간의 손을 잡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며 화목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復活)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물샐 틈 없이 인화단결(人和團結)하여 새 역사 창조에 새 출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절대 순종

여호수아 1장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라고 함은 민중들이 복종하기를 언약(言約)하는 말입니다. 신자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히브리 13장 17절 상반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는데, 학생이 스승에게 순종하면 탈선하지 않고, 군인들은 상관에게 복종하고, 신자들은 목사에게 순종하면 탈선이 없읍니

다. 소년 형무소에 가보면 대개 불순종하여 탈선의 길을 걷다가 고생하는 것을 봅니다. 젊은이에겐 장점도 많지마는 단점도 있읍니다. 모든 것에 기성인들에게 반항(反抗)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그리하여, 학생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될 탈선의 길을 걷는 것을 봅니다. 신자들도 교역자(教役者)의 말을 잘 들으면 신앙의 탈선이 없을텐데, 더 잘 믿겠다고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갔다가, 맞지 않으니 그만 두고 신앙도 안 지키고 세상 길로 간 사람을 봅니다. 성경에 참신자의 모형(模型)을 어린 아이와 같다, 비둘기와 같다, 양과 같다, 소와 같다고 한 것은 순종과 겸손과 온유를 말함인데, 모름지기 우리 신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고, 참된 종의 지도에 복종해야 복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함은 나라의 주권자(主權者)에게 순종하라, 즉 나라의 법은 신성한 것이므로 백성이 보낸 대표들이 제정한 국법(國法)을 주권자들은 이에 준수하여 시정(施政)하매 순종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토대의 주권이므로 군대, 학교, 직장, 형무소 등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라에 경사(慶事)나 조사(弔事)일 때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과 모든 각부 장관들까지도 믿고 안 믿고를 막론하고 위로 하나님께 기원(祈願)하는 식순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법치국가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한 바라"(롬 13:1) 함과 같이 우리는 주권자들에게 복종하며 밀어 주고 받들어서 국민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만일 권세를 잡았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고 국법을 모독하면 공의

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엄격한 심판이 임하여 저를 멸망케 할 것입니다. 또는 주권자가 백성을 아끼고 선도(善導)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백성과 후손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나라에는 자유(自由)라 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립니다마는 참 자유는 책임과 의무와 향토애와 애국심이 따르는 자유인 것입니다. 나라의 법률을 책임있게 지켜야 하며, 준엄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행동의 절제를 할 줄 알아야 참 자유이나, 이 같은 것을 무시할 때는 오락의 자유, 향락의 자유, 수치스러운 죄악의 자유가 될 것입니다.

영국은 임금의 직계(直系)라 할지라도 교통 위반을 할 때는 벌금을 물어 강력히 준법을 이행하며 모든 질서대로 잘 지켜 나갑니다.

여러분! 법을 지킵시다. 세상 나라의 국법을 순종해야 하나님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특권 계급에서 먼저 준법 정신(遵法精神)을 가져야 말단의 국민에게까지 법이 잘 지켜질 것입니다.

세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읍니다.

이스라엘 사울왕이 이웃 나라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남녀와 노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양떼와 나귀까지 죽이라고 하셨읍니다. 그러나, 사울이 탐심이 생기어 순종치 아니하고 이웃 나라 물품을 약탈하여 숨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하였으며 마지막에 징벌을 받은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읍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 성을 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적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백 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땅 속에 숨겨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

하심을 입어 전쟁에 패했고 마침내 아간을 돌로 쳐 죽인 후에야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국가와 개인이 징벌을 받지마는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존경을 받는 것은 100세에 독자(獨子)를 낳아 상속할 자로 귀하게 양육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 희생시키라고 할 때, 그는 곧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여 복의 기관을 삼았읍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여 인간의 생각으로서 짐승을 제사하는 제물로 바칠지언정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만약 불순종하였다면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못되었을 것이며, 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창성하리라" 하신 언약을 믿지 않았던들 결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아니라 유대교와 회회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불순종하였으므로 온 인류가 타락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므로 인류는 영생(永生)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도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멸망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 기도

여호수아 1장 17절 하반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함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민중을 볼 수 있읍니다. 여호수아라는 자연인이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매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에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양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모세가 기도하므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군중이 건너가는 기적(奇蹟)을 이루었고, 야곱이 고국에 돌아올 때 얍복강에서 천사를 굴복시키기까지 기도하므로 에서의 노여움의 칼날을 부드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풀무불에 던지우는 벌을 받았으나 오히려 천사들이 도와서 죽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물을 태워버리고 바알신을 굴복시켰으며, 엘리사는 기도할 때에 두루마기로 요단강을 치니 강물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또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었고 옥사장이 두려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젊은 목사가 부임해서 날로 부흥되어 갔읍니다. 이 목사는 저으기 만족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심령을 깨우치기를 "네가 잘 나서 부흥되는 줄 알지 말라. 교회에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니라"고 해서 곧 교회로 달려가 보았더니 추운 날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조목조목 들어 열심히 눈물겨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였기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영웅(英雄)은 시대와 동지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지도자는 뒤에서 기도로 밀어 주고 받들어 주는 인물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말하기를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죤 낙스의 기도는 구라파 몇 개 사단의 군대의 힘보다도 무섭다"고 했었읍니다. 어

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불량했던 아들을 역대의 위대한 지도자며 또 성자로 길러냈던 것입니다.

또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포로의 몸이지만 파사 나라의 장관(長官)의 신분으로 있을 때,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 예루살렘성은 훼파되고, 성문은 소화(燒火)되고, 능욕과 환난을 당한다고 하매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읍니다. 그 후 그는 조국에 돌아가서 온갖 난관을 헤쳐가며 하나님 앞에 호소한 바를 이루어 황폐한 조국을 재건한 사실을 알 수 있읍니다. 기도의 힘은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4. 고무 격려

본문 1장 18절 하반절에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라고 했읍니다. 여호수아가 막상 중책을 맡고 앞을 보니 너무나 장애물이 많고 군대의 수자도 적고 약하며 무기도 없고 경험도 적은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겠으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여 떨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알고 고무격려(鼓舞激勵)해준 것입니다. 배고플 때 밥 한 술이, 목마를 때 물 한 잔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에 나무 한 그루가, 물에 빠졌을 때에 널조각 하나가 의지가 되듯이 어려울 때에 말 한 마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요소로 되었는고로 죽음에 이른 절박한 일을 당할 때에도 말 한 마디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 때 종교 핍박이 심하게 되니, 신사참배(神社參拜)하지 않는 목

사님들을 투옥시키게 되었읍니다. 이 때 주기철 목사님도 갇히게 되고, 그 부인은 매일 식사를 가지고 면회하러 갔읍니다. 주 목사님은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건강은 형편없이 약해졌읍니다. 가정에서도 고생입니다마는 그 부인 오 여사는 남편을 고무격려(鼓舞激勵)하기를 매일 같이 그치지 않고 "당신은 항복하지 말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달라"고 말했으므로 주 목사님은 끝까지 지조(志操)를 지켜 기독교 사상에 빛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교자(殉教者)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의 핍박으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각 교회에 편지로써 격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 백성들에게 누가 소망을 줄 것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민족의 양심이요, 정의의 상징이요, 진리의 파수꾼이요, 인권(人權)의 옹호자요, 희망의 사도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절망에 빠진 민족에게 엄숙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치면서 보다 높은 소망을 던져 주어야 하겠읍니다. 하나님을 찾으므로써 살 길이 있다고 증거하며 그 증거를 저들에게 보여 주어야 하겠읍니다.

나라마다 자랑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 중국은 유교, 인도는 불교, 유대는 유대교의 율법, 헬라는 예술, 독일은 과학, 미국은 돈 등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대원군 때 초대 기독교의 박해는 끔찍한 것이고 일제의 신앙 탄압이나 6·25 때 받은 환난은 한국의 순교자의 뿌린 피의 실적(實績)밖에 없읍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되는 것이나, 신자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나, 신앙을 통한 이적(異蹟) 등은 먼저 간 순교자들이 뿌린 피가 헛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앞으로 성령과 체험적인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야 하겠읍니다.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를 침해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는 그 숭고한 기백을 살리어서 어떠한 설움

과 고통과 신앙의 쓰라린 환난도 능히 박차고 신앙 체험의 산물을 가지고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나라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자랑거리가 되어야겠읍니다.

외국 사람들은 호화스러워서 고생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핍박의 학정의 쓰라린 고난은 밑받침이 되고도 남겠읍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복음으로 신앙을 더욱 연마해서 전도하러 나갑시다.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는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 시절에 빛나는 촉등(燭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했읍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격려의 말입니까?

오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마는 낙심하지 말고 나갈 길을 찾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좋은 뱃사공은 풍속이 좋을수록 더욱 빨리 갈 수 있고, 백합화는 바람이 불수록 더욱 향기를 날릴 수 있고, 독수리는 비바람이 불 때 바람을 타고 더 높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산물을 출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나 역경을 극복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상호 고무격려(相互鼓舞激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어 타개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읍니다.

5. 결사적 각오

본문 1장 18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라고 죽음까지 각오하는 민중이었읍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는 강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에 들어가기까지 비장한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하여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담대히 말했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옥중에서라도 굳게 나갈 때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값싼 승리를 원치 않고 희생 없는 명예는 무가치하고 피 뿌리는 희생은 숭고한 것입니다.

18세기 초엽 이태리 나라가 북방 오랑캐에게 온 강토가 짓밟힘을 당하게 될 때, 이태리의 애국자요 퇴역 장군인 갈리발디(Garibaldi) 대장이 혼연히 일어나서 외치기를 "사랑하는 이태리 청년들아! 조국을 사랑하느냐? 자손만대의 영광을 원하느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금이나 술이나 여자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오직 헐벗고 굶주리고 땀과 눈물과 피와 마지막은 죽음이다. 이 선물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이거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비겁한 사람은 물러가고 뜻있는 청년 1,000명이 그를 따라나왔읍니다. 그는 그들에게 홍포(紅布)를 입힌 후 결사적 각오를 가지고 전진하여 가는 곳마다 적군을 무찔러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웃 미디안과 싸울 때 3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떠났읍니다. 그러나, 두려워 떠는 비겁한 군사 22,000명을 돌려보냈읍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10,000명 중에도 결사적 각오가 없는 사람이 엿보였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선발한 방법은 강을 건널 때에 "무릇 개의 핥는 것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 때에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했읍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적전(敵前)에서 정신 무장이 되지 않은 군인을 의미하고, 개 모양으로 물을

핥었다는 군인은 정신이 바로 된 장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으로써 메뚜기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쳐부수고 승리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두려운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심과 같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를 따르는 선량한 민중들과 같이 단결, 순종, 기도, 격려, 결사의 정신만 갖고 실천한다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부흥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부자가 실패하면 돈으로 묻고, 의사가 실패하면 흙으로 묻고, 군인이 실패하면 재로 묻는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가 실패하면 영원한 지옥이 아니겠읍니까?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의 각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야고보서 4 : 13-14)

나폴레옹은 "나에게는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두려워 한다"고 했읍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땅 위에 어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의 경고라 하면 대경실색(大驚失色)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고보다도 영원히 자존(自存)하시며 인류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어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하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홍수 전에는 노아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을 통하여, 포로 전 선민들에게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혹심한 핍박으로 사방에 흩어져 기진맥진한 열 두 지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경고로써, 곧 위기와 절망에서 탄식하는 현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13절 첫마디가 "들으라"이니, 이 말씀은 아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고로 삼가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즉, 본문 말씀의 뜻은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생(生)의 원동력과 지침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1. 인생들아, 너희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느냐?

"오늘이나 내일이나"라고 함은, 인생들아! 너희 남은 때가 얼마나 되느냐?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때를 알아야 합니다. 농군은 씨를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알아야 하고 어부는 그물을 던질 때와 당길 때를 알아야 하고, 군인은 전진할 때와 후퇴할 때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성도는 잘 때와 깰 때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했읍니다. 즉, 70년 후에 로마 병정들에게 멸망받을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값싼 죄악의 술에 취하여 춤과 노래로 향락하는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며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대와 우리의 남은 때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후반기를 접어드는 이 세대를 가리켜 한 유명한 사상가(思想家)는 "공기가 매우 탁한 시대"라 했고, 한 역사가(歷史家)는 "이 세대는 해골의 역사다"라고 했고, 한 철학자는 "오늘 인류의 운명은 칼 도마 위에 있는 생선과 같다"고 했고, 한 정치가는 "오늘 인류는 화약고 위에 올라 앉아 있다"고 했고, 한 신학자는 "인류의 역사는 종말이 가까와 오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어 간다"고 했고, 한 과학자는 "지금 인류는 열 두 시 이 분 전에 도달했다"고 했읍니다. 이상의 말들은 비록 불완전한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고 하신 성경 말씀이 이 시대를 지적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 "지금은 말세다"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4장 7

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다"고 했고,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고 했읍니다.

옛말에 "새가 죽을 때는 우는 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착하다"고 했읍니다. 한 공군 장교가 6·25동란 중 총알이 비오듯 날아와 많은 사람이 죽어 피비린내 나는 시체 속에서 개미 한 마리가 자기 얼굴로 기어올라와 웃입술에 와서 괴롭히더랍니다. 이 장교는 죽음을 촌각(寸刻)에 두고 자기의 과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음을 뉘우치고 마지막 가는 길에 지난날의 저지른 죄도 많은 몸이 왜 미물의 짐승이나마 살고자 하는 생명을 잔인하게 또 죽일소냐 하고 입김으로 불어 떨어뜨려 살려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한 강도라도 사형 집행 직전에는 양심을 찾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형받을 죄수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죽을 수 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은 철칙이요, 다만 시간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래 오래 백 년 천 년 더 살겠다고 아직도 영혼도 하나님도 내세에도 관심이 없이 여전히 죄만 짓고 살 것입니까? 교만, 허영, 사치, 향락, 부정, 고리, 살인 등을 아직도 자행하는 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했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과거는 어떻게 살았던 간에 앞으로 남은 여생을 참되게, 의롭게, 값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2. 인생들아, 너희의 가는 길은 어디냐?

야고보서 4장 13절 하반절에 "아무 도시에 가서"란 말은 "인생들아 너희의 가는 길이 어디냐"란 물음인데, 구약 성경에서 인생은 "순례자"요, 신약에서는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라고 했읍니다.

진정 사람은 사막과 고해를 항해하는 외로운 나그네입니다. 비록, 나그네라 할지라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거장 대합실에 있는 사람이나 푸른 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듯이 모든 사람은 자기 목표를 정해 놓고 매일 같이 일생 동안 그 곳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목표가 참된 것이냐? 완전한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라는 것을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백이해(白耳亥)라는 사람은 좋은 양 백 마리를 기르는데, 저녁때 양을 우리에 넣으면서 세어보니, 그 중 한 마리를 잃었던 것입니다. 다시 찾으러 나아가 밤새도록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말았읍니다. 그 이유는 갈래길이 많아서 왔다갔다 하다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갈래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국가주의, 허무주의, 공산주의, 민족적 민주주의의 길이 있고, 사상적으로는 세속주의, 인종 차별주의, 과학 만능주의, 주지주의(主知主義), 실존주의의 길이 있고, 종교적으로는 유교, 불교, 기독교를 위시한 백여종의 군소종교(群小宗教)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기독교 안에도 70여 교파의 길이 난립되어 참으로 우리 앞에는 갈래길이 많습니다.

어떤 믿는 집사(군의관 소령)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요사이 교파가 너무 많고 저마다 정통, 보수, 참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디 가야 참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라고 묻기에 "예, 천국 가려면

귀구멍을 틀어 막아야 갑니다"라고 대답을 한 후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 나오는 기독도의 이야기와 남의 말 듣기 좋아하는 당나귀를 몰고 가는 의지박약한 어리석은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해 주었읍니다. "호리지차에 천리지차(豪釐之差 千里之差)"라는 말과 같이 길은 처음에 잘 알아야 합니다. 서울역에서 부산가는 사람이 기관차가 남쪽으로 향했다고 아무 차나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산까지는 방향이 같지마는 거기서부터 인천, 동두천, 경주, 장항, 목포, 여수 등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백두산 천지(天地)의 물도 동쪽으로 흐르면 동해로, 서쪽으로 흐르면 서해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양복 단추 한 개 잘못 끼면 다음은 아무리 끼워봐도 맞지 않는 것같이 인생이 "사랑"인 종교라 해서 비판과 선택없이 맹목적으로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틀러(Hitler)와 동조(東條)는 길을 잘못 택해서 개인과 나라를 망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취해야 할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길은 분명히 단 한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었읍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브갓네살 왕이 꿈에 보니 한 우상이 섰는데, 머리는 금(金=바벨론), 가슴과 팔들은 은(銀=메대, 파사), 배와 넓적다리는 동(銅=헬라), 두 다리는 철(鐵=로마)이고, 열 발가락의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데 하늘에서 뜬 돌 하나가 내려오더니 철과 진흙의 발을 때려 부수더니 조금 후에 우상은 간곳 없고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천하에 가득찬 것을 보았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운명을 묵시(默示)로 보여 준 것입니다.

금이던 바벨론 나라가 68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다가 메대와 파사에게 망하고, 메대와 파사는 207년 동안 통치하다가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163년 세상을 다스리다가 로마에게 망하고, 로마는 644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다가 동·서(東西)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열 발가락으로 갈라진 것은 로마에서 구라파의 10개국으로 갈라지고 반

은 철이고, 반은 흙이던 사실입니다. 지금은 열 발가락 시대입니다. 세계는 동·서의 두 갈래로서 반은 철의 장막인 공산진영과 반은 흙이라는 물러빠진 민주진영으로 대립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철도 흙도 같은 물질인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동질적인 물질주의적인 것입니다. 다만, 수단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뜬 돌은 산돌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심판의 주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오셔서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를 멸망시키고 거룩하고 의로운 세계를 세울 것을 가르쳤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갈 길은 인간의 의지를 흔들어 유혹하는 공산주의 길도 아니며,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향락주의의 자본주의 길도 아니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며, 이 길로 갈 때에 세계의 평화와 개인의 희망과 기쁨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읍니다.

3. 인생들아, 너희들의 계획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에 "장사해서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13절 하반절)라는 말은, "인생들아, 너희의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뜻인데, 옛말에 "만물유시종 하고 사물유본래(萬物有始終 事物有本來)"란 것은 만물은 처음과 나중이 있고 사물은 근본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로써 모든 일에는 처음에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버는 계획, 학업을 닦는 계획, 권력을 잡는 계획, 그밖에도 인생들은 많은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읍니다.

어린이들이 모여 소꿉장난을 할 때에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던 것들을 해가 저물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듯 우리 인생도 마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가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7장에 있는 노아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그 시대의 실정을 말하면 인구는 증가되고, 과학은 발달되고, 도덕은 문란하고, 영계(靈界)는 속화(俗化)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물로 쓸어 전멸시키고, 제2의 창조를 계획하심으로 의로운 노아에게 "백 이십년 후에 큰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터이니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지었다가 너희 식구가 구원받으라"는 명령을 하실 때에 그는 방주를 짓는 한편 모든 사람에게 경고와 전도를 하였으나 농담으로 알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다가 마침내 때가 차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와서 물로 심판을 받아 노아의 여덟 식구만 빼놓고 전부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때 그 방주의 길이는 150규빗, 옆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고, 상·중·하 삼층으로 된 큰 방주였으니 노아의 여덟 식구만으로는 못만들었을 것입니다. 지은 목수와 노동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지마는 그들은 구원을 못받았읍니다. 그 이유는 삯을 받고 만든 까닭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자기의 명예나 물질의 이해 관계로 출석하는 신자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에는 물로 심판을 했읍니다마는 신약 베드로후서 3장 7-12절을 보면 마지막에는 불로 전 세계를 심판한다고 했읍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전쟁 무기밖에 크게 발달된 것이 없다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일본 광도에 떨어졌던 원자탄은 이제는 아무 것도 아니고 새로운 원자탄, 수소탄 등은 실로 놀라운 파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50메가톤의 핵폭탄 하나가 터지면 사방 850마일이 잿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38 휴전선의 길이가 약 155마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몸서리쳐지는 것입니다. 만일, 3차 전쟁이 일어나면 30분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3차전은 전면전쟁(全面戰爭)으로서 지구는 쑥밭이 되리라고 보는 것이 모든 정치가, 과학자, 군략가의 정평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날에 인간이 만든 불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 붙을 때 모든 것은 다 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 불의 심판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주는 나무로 만든 방주가 아니라,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소망의 창문을 내고, 말씀의 진액을 안과 밖으로 칠해서 세속의 죄악과 이단을 방지하여 그 속에 내 영혼을 간직했다가 마지막 불로 심판을 할 때에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인생들아, 너희들의 참 평안은 어디서 찾느냐?

야고보서 4장 13절 하반절에 "이를 보리라"함은 "너희의 평안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라는 뜻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나면 기뻐하고 손해를 보면 슬퍼합니다. 즉, 평안의 기준을 물질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진정한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은을 가지고 배부르겠다는 자들아 은이 너희를 배부르게 못하리라"고 했고,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읍니다. 그밖에 학식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민이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더한다고 했읍니다. 권력도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나무가 클수록 바람에 많이 흔들리듯이 권력이 많으면 흔들림이 큰 것이며 근심도 많은 것입니다. 그

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 세상을 가리켜 "눈물의 골짜기요, 땀의 황하수(黃河水)요, 피로 물들인 땅이요, 죽음의 골짜기라"고 했읍니다. 나폴레옹도 센트헤레나 고도(孤島)에서 마지막 죽어갈 때에 "육대주(六大洲)에 부는 바람은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요 오대양(五大洋)에 넘실대는 물결은 세상에 오고간 사람들의 눈물의 고임이라"고 탄식했읍니다.

독일의 한 시인이 밝은 달밤 한밤중까지 정치, 사상, 경제, 자녀 교육, 건강 등의 복잡한 인생 문제에 얽히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과 한숨을 쉬다가 마침내 일어나 방문을 박차고 뜰 앞에 나가서 하늘에 높이 뜬 달을 향하여 시를 읊기를 "달아, 달아,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 토성이냐? 목성이냐? 해왕성이냐? 혹은 그렇지 않으면 남극이냐? 북극이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가고자 한다. 정든 고향 산천, 부모 형제, 처자라도 버리고 나는 가고자 한다. 살아서 못가면 죽어서라도 가리라"고 하며 평안을 갈망하였더랍니다. 이 평안은 독일의 한 시인만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모든 사람들도 이 평안을 찾고 있읍니다. 한 청년이 산을 넘다가 호랑이를 만나 죽지 않겠다고 하다가 날쌔게 호랑이의 등을 탔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등에 탄 사람을 떨어뜨려 잡아 먹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뛸수록 더욱 꽉 잡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서 도망갈 때에 보리밭에서 일하던 머슴 하나가 멀리서 바라보고 털버덕 주저 앉으며 호미 자루를 뒤로 던지고 말하기를 "제길 내 나이 30이 돼도 장가도 못가고 농촌에는 망아지도 많지마는 나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 저렇게 호랑이만 타고 다니나?" 하고 팔자 탄식을 했다 합니다.

사람마다 남의 떡은 다 커보인다고 나만 불행하고 남은 다 평안한 것 같지마는 실상 많은 사람은 고독과 불안과 우수와 한숨에 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고통과 비극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

치 땅 속에 황금 보석이 있고, 푸른 바다 속에 값진 진주가 있고, 캄캄한 구름낀 밤 하늘에도 한두 개의 반짝이는 별들이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도 참 평안은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품안에 돌아올 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친구와 술과 여자와 춤과 노래로 허랑방탕하여 있는 재물을 다 탕진하여 버렸읍니다. 이것은 물질의 탕진뿐 아니라 시간의 탕진, 육체의 탕진, 인격의 탕진, 영혼의 탕진입니다. 마지막에는 할 수 없어 어떤 부자집에서 돼지 기르는 머슴의 하나가 되어 돼지가 먹는 팥껍질로 연명(延命)하는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했읍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 그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오락의 자유, 향락의 자유, 죄악의 자유 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궁지에 빠진 탕자는 마침내 깨달음이 있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읍니다. 아버지는 이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매 반가이 맞아 목욕을 시키고 새옷을 입히며 살찐 소를 잡아 큰 잔치를 차려서 기뻐했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실상 팥껍질을 먹는 생활입니다. 팥껍질은 맛도 없고 영양분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과 같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학식, 명예, 권세, 물질, 향락이 실상은 맛도 영양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는 팥껍질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St. Augustin)도 하나님을 떠나 방탕 생활을 통하여 만족을 얻어 보려고 했으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한 후 마침내 하나님의 품안에 다시 안길 때에 영혼의 안식을 얻었다고 간증을 했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떠나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인생은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사죄를 받아야만 평안이 있읍니다. 성경에 "죄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나 죄인은 좇아가는 사람이 없

어도 두 주먹을 쥐고 도망간다"고 했읍니다.

칸트가 "하늘을 보니 반짝이는 별이 있고 내 마음을 보니 도덕율(양심)이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인간은 양심적 동물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마치 산 고기가 끓는 물가마에서 받는 괴로움과 같고 뛰는 사슴이 불 붙는 가시덤불에서 받는 괴로움과 같다"고 했읍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의 행동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로마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으나, 가룟 유다가 마지막 목매달아 자살한 것은 그의 양심에 가책을 받은 까닭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법률적으로는 몰라도 양심상, 종교상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읍니다. "만일 죄가 없다면 스스로 거짓말 하는 자니 진리가 그 마음에 있지 않다"고 했읍니다. 병자가 아니면 의사가 쓸데 없는 것과 같이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 왔노라"고 했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태도를 버리고 가슴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세리의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을 때, 하늘의 영원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세째, 자족한 마음이 있어야 평안이 있읍니다. 사람에게는 당연한 욕구가 있읍니다. 배고플 때에 먹는 것과, 목마를 때에 마시는 것과, 추울 때에 입는 것과, 남녀의 이성에 대한 욕구를 비롯해서 물욕, 지식욕, 명예욕 등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읍니다.

그러나, 흔히 사람은 중용(中庸)을 넘어서 과분한 욕심을 취하므로 실패와 고난에 처하고마는 것입니다. 실상, 물질의 세계는 유한하지만 마음의 욕심은 무한한 것입니다.

무한한 욕심에 유한한 물질을 채우려 할 때에 언제나 만족은 없고 불

평과 불안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옥중에서도 평안했고, 베드로는 옥중에서도 발을 뻗고 잠을 잤고,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찬송했던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도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올 때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왔읍니다. 우리의 자본은 영(零)입니다. 아무리 없다해도 우리는 처음을 때보다도 부유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는 올려다보고 물질적으로는 내려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가 체구가 좋고, 인물이 잘 생겼고, 집이 큰 곳에 살아서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과 사상과 인격과 생활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빈곤과 어려움을 한탄과 원망과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40일 동안 굶으심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이고, 옷이 없으면 단벌 옷에 마지막 그것마저 벌거벗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이며, 또 용기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분발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안다"고 한 기독교인의 생활 철학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째, 소망이 있으면 참 평안이 있읍니다 기나긴 여름 불볕 아래에서 김(雜草)을 매는 농부는 가을의 추수를 소망하고 참는 것이며, 철야하며 책과 더불어 씨름하는 법학도는 고등고시의 소망을 목적한 것이며, 초인간적인 고된 훈련을 견디어 내는 사관생도들은 장교 임관식을 소망하고 참아나가는 것이며, 해산의 진통을 참는 것은 옥동자의 분만을 소망하는 것과 같이 내일의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을 넉넉히

참고 극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방에 갇힌 죄수 가운데도 무죄 석방의 언도(言渡)를 받은 죄수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초조와 절망뿐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흘려 쓰러지면서도 얼굴은 빛나고 마음에 평안을 가진 것은 영원을 바라봄이었으며, 많은 순교자들이 최후에도 찬송을 부름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던 까닭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절망선(絶望線)만을 바라보고 탄식만 자처할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일찌기 영광의 임금 솔로몬은 지식과 재물과 여자와 그밖에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다 소유한 왕이로되 마지막 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하반절)라고 했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학식이나 권력이나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안에 들어와 사죄함을 받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내세(來世)의 소망의 닻줄을 던진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인생들아, 너희들은 어떠한 인생관을 가졌느냐?

야고보서 4장 14절 하반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함은 "인생들아, 너희는 어떤 인생관을 가졌느냐"란 뜻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는 45억 이상이 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크게 여섯 가지 형태의 인생관 속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 이성을 절대시하는 희랍인적 인생관, 현대 과학을 절대시하는 자연주의 인생관, 일체를 병적시(病的視)하여 염세증(厭世症)에 걸린 허무주의 인생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유물론 인생관, 현대 문명에 실망하고 생의 존엄을 부르짖는 생철학의 인생관, 끝으로 창

조와 타락과 속죄를 믿는 기독교적 인생관 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인생관을 말할 때 다각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인생관 하나만 생각하여 보겠읍니다.

첫째,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벧전 1:24-25). 풀이 봄에 나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단풍 들고, 겨울에 시들어 떨어지듯이 소년을 봄이라 한다면 청년은 여름, 장년은 가을, 노년은 겨울입니다. 풀이 자라서 시들어 말라 죽으나, 그 씨만은 죽지를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체는 쇠잔하여 쓰러지나 우리 영혼은 영원 불멸인 것입니다.

둘째, 장막과 같은 인생입니다(벧후 1:13-14). 인생은 장막과 같습니다. 새 장막을 이곳 저곳 끌고다니다가 낡고 찢어져 못쓰게 될 때에 그 장막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서 사는 것과 같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세째,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벧전 1:17).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객지로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집에서 풍성한 대접을 받아도 내 집만 못하고 마음이 편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을 구가(謳歌)하지마는 마음 속에 참된 희망과 기쁨과 노래가 없는 것은 이 세상은 객지요, 내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일본 광도에 원자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수차에 걸쳐서 어느날 몇 시에는 무서운 폭탄이 떨어질 것이니 모든 비전투원은 이곳을 멀리 떠나라는 경고문을 여러 차례 뿌렸다고 합니다. 그 경고문을 믿고 피한 사람은 생명을 건졌고 믿지 않고 떠나지 않은 사람은 원자탄의 세례를 받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섯 가지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읍니다.

영웅의 말로
(사사기 16 : 23-31)

"의인은 핍박을 받고 영웅의 말로(末路)는 비참하다"고 한 말과 같이 영웅 시이저(Caesar)나 나폴레옹(Napoleon)의 말로가 비참하듯이 삼손의 말로도 비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사(士師) 삼손의 말로를 통하여 신령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특히 전도(前途)가 양양한 젊은 남녀에게 주는 교훈은 더욱 큰 것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1,100년전 이웃 블레셋 나라에게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에 블레셋과의 국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단지파 사람 마노아가 있었읍니다. 이 사람은 아내가 있었으나 어린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使者)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 "네가 잉태하여 어린 아이를 낳으리니 너는 삼가 청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또 아들을 낳거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칠찌니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니라"고 말씀했읍니다.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고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은 어찌나 세던지 덤비는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고 혼자서 나귀뼈로 이웃 블레셋 병정 1,000

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부모가 말리는 것도 거부하고 이방 원수의 나라 블레셋 딤나에서 한 여자와 결혼을 했읍니다. 그후 삼손은 다시 블레셋 소렉 골짜기에 내려가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우리의 원수 삼손의 큰 힘의 비결을 꼬여 알아내고 어떻게 저를 이기어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 것을 알아주면 은(銀) 1,000 세겔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였읍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와 같은 큰 힘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고 졸라댔읍니다. 삼손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했읍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 준 푸른 칡 일곱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여 깨운즉,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불탄 삼실 끊듯하였읍니다. 여인은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고 하며, 또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함으로 "만일 쓰지 않은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고 했읍니다. 여인은 또 그 같이 했으나 삼손이 팔 위의 줄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읍니다.

또 여인이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함으로 삼손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삿 16 : 13)고 하였읍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음이라 나를 세 번이나 속이고 희롱하니 내게 마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하며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며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삼손은 드디어 어리석게도 진정을 토하여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母胎)에서 하나님의 나실인(헌신)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하였읍니다. 그

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을 그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한 후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자르고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어졌읍니다. 삼손을 깨운즉 기운이 빠져서 전과 같지 아니하였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 두 눈을 뺀 후 끌고 가사에 내려가 밧줄로 매고 옥중(獄中)에서 당나귀처럼 큰 연자 맷돌을 돌려 갈게 했읍니다. 그후 블레셋 방백(方伯)이 그들의 신(神) 다곤에게 삼손을 잡게 한 것을 감사 제사 드리기 위하여 불러내어 재주를 부리게 하여 구경하라고 큰 두 기둥 사이에 놓고 재주를 부리게 함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지막 긍휼을 바랄 때에 큰 힘이 임하여 두 기둥을 꺾어 온 집이 무너져 그 집에 모였던 원수 3,000여 명과 함께 죽고 말았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여섯 가지 신령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1. 사람은 어리석고 약하다

사람은 지혜롭고 강하여 운하를 파고, 비행기와 인공위성을 만들고, 기상을 예보하고, 포라리스(原子潛水艦)를 만들어 북해(빙하)를 다니며, 월세계에 여행의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인간은 아직도 어리석고 약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K. Jaspers)는 "인간은 그가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를 불구하고 또 불안에 가득찬 공포나 혹은 낙관적인 기대나 평정(平靜)을 가지든지 말든지 간에 모두 한가지로 무지의 상태에 있다"고 했읍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의 아들로서 하바드 대학을 나오고 또 태평양 전쟁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며, 현명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젊고 인기가 많았던 케네디 씨가 1963년 11월 22일 택사스주 달라스 시에서 암살 당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없었을 것이며, 한국 태

생인 세계적 역사(力士)라던 역도산이 불량자의 작은 칼 끝에 찔리어 죽고야 말았으니, 과연 인간은 어리석고 약한 것입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던 불란서의 풍운아 나폴레옹(Napoleon)이나 초인철학(超人哲學) 권력의지(權力意志)를 부르짖던 쾌남아 니체(Nietzsche)도 말로가 비참했읍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삼대 사사(三大士師) 중에 하나였던 천하장사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약합니까? 사람이 일생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죽음을 잘 맞아야 한다 했는데, 하필이면 일국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 나라의 나약한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자다가 죽음을 맞이했으니, 과연 인간은 누구나 장담할 수 없이 아직도 어리석고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읍니다.

2. 청춘의 유혹은 심하다

사람에게 유혹은 연령에 따라 성질이 다소 다르다고 했읍니다. 젊은 사람(15-30세)에게는 이성에 대한 유혹, 장년(31-50세)에게는 명예에 대한 유혹, 노년(51-70세)에게는 물질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했읍니다. 즉, 사춘기에 접어든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부양(扶養)이나 자녀 교육의 책임에 아직 얽매이지 아니하고 혈기는 왕성하며 모험심은 많고 모든 일에 정열적인 시기니만큼 이성에 대하여 유혹이 많고, 장년들은 사업욕이 강하여 "호랑이는 죽어서 껍질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천추(千秋)에 남긴다"했는데, 한 번 왔다가는 인생 길에 권력,지위, 명예나 한 번 얻어 보겠다는 야심을 갖게 되는 것이며, 노인들은 늙어서 기운은 쇠잔(衰殘)하여 일은 할 수 없고 먹고는 살아야 하겠으므로 돈이나 많이 모아 남은 여생을 곶감알 빼먹듯 편안한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청년 요셉이 무서운 유혹을 이긴 귀중한 교훈이 있읍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상인에게 팔려 다시 바로 왕의 신하인 시위대장(侍衛隊長) 보디발에게 팔려갔읍니다. 요셉은 매우 미남자였으며, 총명하고, 도량있고, 명랑하고, 흠 없는 인물이었읍니다. 요셉이 그 집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므로 주인의 사랑과 신임을 얻어서 노예의 몸이지만 가정 총무(家政總務)로 삼아 그 집 전부를 맡아 보게 되었읍니다. 그 때에 그 주인의 아내가 여러 번 불의의 정을 나누기를 유혹하였지만 요셉은 듣지 않았던고로 하루는 옷을 잡고 강하게 유혹함으로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나이까?" 하고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쳤읍니다.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는 애정이 증오로 변하여 도리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무죄함을 아시고 다시 백일천하(百日天下)에 무죄 석방을 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요셉은 모범적 청년입니다. 실로 그는 초년고생(初年苦生)한 사람, 불의한 것을 용납치 않은 사람, 교제를 삼가는 사람, 만사에 침착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읍니다. 아마, 요셉이나 삼손도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이 같은 유혹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에게는 이러한 유혹이 부지불식(不知不識) 간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명심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성과 의지와 신앙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기불이 좋지마는 잘못 만지다가는 감전되어 즉사하는 것과 같이 사랑이 좋지마는 무례한 사랑은 야만(野蠻)의 사랑, 금수(禽獸)의 사랑이며 급기야는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7장 1-27절까지에는 젊은 사람들의 몸가짐에 대하여 귀중한 교훈이 있읍니다. 그 중에서 22-23절에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포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고 했읍니다.

3. 죄악의 유혹에는 강자가 없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신 실과를 마귀가 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유혹할 때에 넘어가고야 말았읍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성군(聖君) 다윗 왕의 넘어짐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새의 여덟째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자연과 함께 성장하여 용모도 아름답고, 거문고도 잘 타고, 담력과 용기가 있고, 구재(口才)도 있고, 문학적 소질도 있으며, 천체(天體)의 비밀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누구보다도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러나, 그가 목동 시절에는 그리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왕이된 후 마음이 차차 교만하여 하루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지붕 위에서 유대 땅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며 "북쪽의 레바논 산, 동쪽인 유부라데 강, 서쪽의 지중해, 남쪽의 가사 광야가 나의 땅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자처하여 자못 만족하게 여기며 걸어다니다가 거기서 내려다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이는데, 심히 아름다와 사람을 보내서 여자를 데려다가 무서운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당시 전쟁이 한창인데도 시대적인 사명도 잊어버렸으며, 또 나라의 왕된 몸으로 백성들에게 스스로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만 할 사람으로서 직분적인 사명도 잃어버리고, 또 일선에는 나가서

싸움은 못할망정 후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야 할 사람이 신앙적인 사명도 망각하고 넘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오점(汚點)인 것이었읍니다. 다윗은 그 간음을 속이고자 모살(謀殺)을 행하였읍니다. 즉, 그렇게도 충성된 이상적 군인인 우리아를 죽여 이중적인 죄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 죄악의 유혹 앞에서 강한 자가 몇이나 됩니까? 우리는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인재들과 이미 토대를 마련해 놓았던 기성 인물들도 무서운 죄악 앞에 꺼꾸러지는 비극을 무수히 볼 수 있읍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의 보수당의 육군 장관이었던 프로프모가 일개 젊은 나약한 창녀 킬러에게 빠져 그 추문은 마침내 전 세계에 퍼졌고, 자신의 고귀한 지위에서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기 선거에 보수당이 넘어가는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수십만을 호령하며 영국의 국방의 일익(一翼)을 책임진 인물도 죄악의 유혹 앞에 굴복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찢고 나귀뼈로 수천명을 때려 눕히던 장사 중의 장사인 삼손도 죄악의 유혹에는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4. 순간적 죄악이 일생을 망친다

저 높고 넓은 푸른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들도 때로는 미숙한 조종사의 순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추락되어 부서지고 애석하게 조종사의 귀중한 생명을 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강의 인도교를 달리는 합승의 운전사가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앞에 차를 추월하다가 난간을 부수고 수십 자 높은 곳에서 떨어져 운전사도 손

님도 즉사하는 일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도 운전사의 순간적 실수가 많은 생명을 잃게 했고, 운전사가 일생 동안 후회한들 회복할 길이 있겠읍니까?

사사(士師)는 이스라엘 민족 신정(神政)시대의 지도자이었읍니다. 즉, 왕이요 대통령에 비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이었읍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15명으로서 그 중 사무엘, 기드온, 삼손은 삼대 사사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기드온은 끝까지 훌륭하게 신성한 자기의 직책을 완수했으나 그처럼 축복받았던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버리고 그의 순간적 실수가 그의 오점을 영원히 남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괴는 쉽고 건설은 어렵다"고 했으며,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려 보고 건너라"고 했으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막 14 : 38상반절)고 말씀하였읍니다.

5. 버림받은 후에 인간은 후회한다

득의양양(得意揚揚)하던 삼손이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후에는 한없는 고민과 후회를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애원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까지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고 했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았을 때에 로마 사람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가 번민과 후회 끝에 은 삼십 냥을 도로 가져오고 자살까지 하였읍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까닭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란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랍의 한 시인은 '산 물고기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견디는 것보다 쉽다'고 했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했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중심에서 아버지를 떠난 결과 마지막 돼지 기르는 머슴으로 전락되어 고독과 남루와 기갈 중에서 자기의 후회를 토로(吐露)한 말입니다. 사사였던 삼손, 제자였던 유다, 부자집 아들 탕자도 버림을 받고난 후에야 비로소 모두들 후회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찌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고 했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읍니다.

6. 회개하는 자는 긍휼을 입는다

삼손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긍휼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셨읍니다. 그래서, "집을 버틴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

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고 했읍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도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한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통회자복(痛悔自服)했으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가(史家)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 아침 첫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 지난날 자기가 닭 울기 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 하였던 죄를 회상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다윗도 간음과 살인이란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이지만 저가 금식하며, 자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 긍휼히 여김을 입어 사죄(赦罪)의 표시로 평화의 임금 솔로몬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허물이 있든지 겸손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무슨 죄과라도 긍휼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삼손의 범죄의 결과를 다시 한번 분석하여 종합해 볼 때에 그가 눈으로 범죄하였으니 눈을 뺌이 지당하고, 몸으로 음란하였으니 결박당함이 지당하고, 하나님을 떠나 여인의 품에 안겼으니 옥중에 갇힘이 지당하고, 연락(宴樂)을 사랑하였으니 맷돌을 갊이 지당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하나님께 버림 받음이 지당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적행위(利敵行爲)를 했으니 나라가 망함이 합당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람

은 무엇이나 심는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짓말하여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었던 까닭에 그 거짓말의 씨를 뿌린 것이 당대(當代) 자기 자식들이 요셉을 팔고서도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곧 거짓말의 열매를 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애굽에서 살인죄를 범했던 까닭에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본 채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시체는 아무도 찾지를 못했읍니다. 옛부터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시체는 내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즉,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함과 같이 살인죄의 씨를 뿌렸으므로 그도 죽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를 비밀히 범하여 음란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당대에 자기의 딸 다말과 그 오빠 압살롬(異腹)과의 음란의 열매와 또 자기의 아내는 공공연하게 능욕을 당하여 음란의 열매를 땄던 것입니다. 반면에 기생 라합은 부도덕한 여인이었으나 이스라엘 정탐군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진멸될 때에 자비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삶을 얻었으며, 이방 여자 룻은 과부 되신 시어머니에게 지극한 효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결실로 주님의 거룩한 족보에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신체적 견지에서는 얼핏보면 성인인 것 같으나,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성인은 아닌 것입니다. 성인은 장년(壯年)을 말한다면 청년은 장년 이전의 것입니다. 즉, 성인의 세계에 한 걸음을 내디딘 상태이며 각종 가능성을 지니고 동요하면서 안정과 고정을 목표로 하고 몸과 마음이 전진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은 귀중한 시절이며 또한 유혹도 많은 시절입니다. 그렇기에 젊은이가 좋은 점은 새롭게 사는 존재이며, 향상(向上)하는 존재이며, 복선(複線)을 모르고 오직 한 길만 아는 순수성과 참된 자유를 동

경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문학은 향기를 잃은 꽃과도 같고 세계는 젊은 사람의 무대요, 노인은 조역(助役)에 불과하고 젊은 사람만이 주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반면에 젊은이가 경계해야 할 것은 마음에 안정이 없고, 이상(理想)이 비현실적으로 흐르기 쉽고, 이유없는 반항과 모든 것에 신중성이 박약하고, 극단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조국을 건질 자도 젊은이고 내일의 민족을 번영시킬 자도 젊은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순수하고, 현실에 호흡하며, 냉철하며, 강직하고, 선악시비(善惡是非)의 판단력이 바르고도 정확하여 자신의 위치와 앞길을 바로보아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여기 천하 영웅 삼손의 생애에서 많은 생의 지침과 원동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제IV편

현실과 소망

지도자의 자세

조국이 요구하는 인물

부름받은 이사야

기독교와 공산주의

성서에서 본 세계의 운명

지도자의 자세

(출애굽기 14 : 1-14)

인류의 역사상 가장 수난을 많이 겪은 민족은 유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히틀러의 정권 하에서 육백만이라는 백성이 학살을 당했지마는 그보다도 주전 1,220여년 전에 애굽에 가서 살던 유대 백성들의 바로 왕에 의한 핍박이란 대단히 어려운 민족의 수난이었읍니다. 그 핍박은 세가지인데,

첫째, 종교적인 핍박. 만인(萬人)에게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지만 그 때의 바로 왕은 유대 민족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종교 핍박을 했읍니다.

둘째, 인종적인 핍박. 유대 사람들이 점점 성(盛)해지므로 이것이 시기가 나고, 마지막에는 자기들의 주권까지 빼앗기며 사랑방 살던 사람들이 안방 차지할 것을 두려워해서 과대망상증에 걸려 유대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애굽 산파들에게 시켜서 유대 여인들이 어린애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거든 다 잡아 죽여 멸족(滅族)시키라는 인종적 핍박을 전개했읍니다.

세째, 경제적 핍박. 이는 일을 시키고도 노임(勞賃)을 주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나날이 일은 더 과중하게 시키는 어려운 경제적인 핍박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민족을 위하여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이 일어났읍니다. 곧 약소민족의 해방의 선구자요, 율법의 제정자(制定者)요, 유일신 종교의 창시자요,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인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 민족을 바로 왕의 학정에서 건져냈던 것입니다.

1. 지도자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모세가 내다볼 때 장차 유대 민족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만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듯이 1,290년 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만 내다보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왔다가 가신 다음에 다시 와서 심판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상 주는 것까지 모세는 내다보았읍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실(小室) 하갈이 쫓겨 나면서 광야 길에 어린 것을 데리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것 같으므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사 샘물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발등 앞에 샘물이 흐르고 있건만 눈이 어둔 하갈은 보지 못했으나 눈을 밝게 하니 그 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발람은 칼을 들고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으나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 당나귀는 보았다고 했읍니다. 선지자 발람은 뇌물이란 죄가 눈을 가리워 못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게 하니 천사를 보았다고 했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게하시란 소년은 이 도단 성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의 종입니다. 하루 아침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첩첩이 포위를 했기 때문에 뛰어들어와 비명을 지르며 "슬프도다!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떠서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라고 했읍니다. 이는 죄값으로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으로 다시 고국에 돌아왔으나 아직도 이방인과 잡혼한 그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한 아내들을 배제(排除)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했읍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실심낙담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눈을 밝게 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했읍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밝아 먼 앞을 내다보았읍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은 4천년 앞을 내다보았으며,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에스겔은 2,500년 앞을 내다보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는 7백년 앞을 내다보았고, 말라기 3장 5절을 보면 말라기선지는 4백년 앞을 내다보았읍니다.

영국의 처칠은 20년 앞을 내다보았으며, 또 우리 나라 이율곡 선생은 10년 앞을 내다보았읍니다. 일본 사람들이 꼭 쳐들어 올 것을 내다보고 정부에 양병(養兵)을 권유했으나 어리석은 소리라고 무시하다가 나라가 어지러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좀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의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시간의 세계를

내다보아야 하고, 지성의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직관(直觀)의 세계를 바라보며, 물질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고, 과학의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형이상적(形而上的)인 세계도 바라보아야 하겠읍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다 볼 때, 70년 후에 로마 병정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은 짓밟히어 벽돌장 하나 겹쳐 놓이지 아니하고 잿가루가 될 것을 내다보고 눈물을 흘리셨건마는 죄악의 값싼 술에 취해서 내일의 멸망을 알지 못하고 흥겨워하던 백성들을 향하여 우시고 또 우신 것처럼 우리는 좀 내다볼 줄 알아야 하겠읍니다. 적어도 우리 신자는 세 가지는 내다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현실을 바로 내다보아야 하고, 둘째로는 역사의 흐름을 바로 내다보아야 하고, 세째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내다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어떤 세계인가? 먼저 알아야 하겠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할 것 같으면, 예레미야 1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끓는 가마와 같은 시대입니다. 가마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그저 부글부글 할 것 같으면 위에 있는 것이 내려가고 아래 있는 것이 올라오는 것과 같이 지금은 끓는 가마와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즉, 학생들이 선생님과 시비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노동자가 재벌가(財閥家)를 배척하고,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이 시대는 실로 끓는 가마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자꾸 흘러 바뀌어져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예부흥에서 낭만주의, 현실주의, 자연주의, 퇴폐주의, 초현실주의로 변해 가고 있읍니다. 이 시대의 인간성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십시오. 옛날에는 형이상학적으로 보다가, 중세에는 신학적으로, 근세에는 수학적으로, 현대는 생물학적으로 보고 있읍니다. 지금은 양심이니, 윤리이니, 도덕이니, 인격이니, 하나

님이니, 내세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알고 모두가 다 생물학적으로 나아가고 맙니다.

또 지금의 생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면 또 이것도 바뀌어집니다. 고대는 관조적(觀照的) 인생이 생애의 중심이었읍니다. 올림픽에 세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뛰는 사람들, 또 하나는 구경하는 사람들, 다음은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옛날에 어떤 사람을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었느냐 하면, 뛰는 사람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구경하는 관조적 생(生)이었읍니다. 이것이 옛날 사람들의 생의 최고의 목표였읍니다만, 중세에 와서는 신앙적인 생이었으며, 근세에는 행동주의의 생이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향락주의의 생입니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감관문화(感官文化)로 말미암아 향락으로만 흘러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자유 진영을 넘어뜨리려면 전쟁하지 아니해도 S자 셋만 가지면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스크린, 하나는 섹스라는 것입니다. 운동 구경 다음에는 극장 구경,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향락으로 흘러만 가는 오늘의 세계는 분명히 20세기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홍수 전 노아 때는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났읍니다. 인구는 증가되고, 과학은 발전되고, 도덕은 문란하고, 영계(靈界)는 속화되어 갔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달리하여 불로 태우신다고 경고했읍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야말로 생물학적인 세대요, 향락주의 세대요, 위기에 처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읍니까?

미국 케네디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빌리 그레함 목사를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며 묻기를 '역사의 방향과 역사의 종국(終局)이 어떻게 될 것인가?'고 물었다 합니다. 그 때

빌리 그레함은 '역사의 방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흐르고 있고, 역사의 종국은 이 땅 어떤 사람이 이 세상 통치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역사의 종국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말하기를 '마지막에는 정치도, 사상도, 교육도, 군사도 다 없어지지만 참된 종교하나가 끝까지 남는다'고 말했다 합니다. 실로 오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하고 있읍니다.

마태복음 24장 32-33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읍니다. 여기에서 무화과는 유대 나라를 말함이며, 가지가 연하여진다 함은 유대 나라의 회복을 말함입니다. 유대 나라는 2,000년 동안 주권을 잃고 세계 각처로 유랑 방황하며 핍박을 받다가 지금은 독립이 되어 조국에 돌아와 번성의 일로를 걸으며 회복되어 가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의 돌아가는 모든 정세는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으며, 날로 주님의 재림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역사의 결과는 어떻게 맺어질 것인가? 다니엘서 2장과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인류 역사의 종국은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여 의로운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써 역사의 종국이 될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현실 역사의 방향과 역사의 종국을 바로 알고 살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 가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2. 지도자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모세는 확고한 권위를 세 가지 가졌는데, 첫째는 지적(知的)인 권위,

둘째는 덕적(德的)인 권위, 세째는 영적(靈的)인 권위를 가졌읍니다.

(1) 지적인 권위

모세는 애굽에서 사십년, 광야에서 사십년 도합 팔십년 동안 공부를 했읍니다. 그리고, 사십년 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했읍니다. 일단계는 고대문명의 중심지인 애굽 궁중(宮中)에서 사십년 동안 땅에 대한 공부, 이단계는 광야에서 비바람, 뇌성벽력, 곰, 사자, 늑대, 헐벗고, 굶주리는 등 갖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공부, 인격의 공부, 즉 내적(內的) 공부를 사십년 동안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외적인 유약(柔弱)을 배웠고 광야에서 내적인 강직(剛直)을 배웠던 것입니다.

중국의 소진(蘇秦)은 웅변으로써 이웃 여섯 나라를 싸움하지 아니하고 통일했읍니다. 이 사람은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저 나가기만 하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절한 말이 샘솟듯이 술술 나와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켰으므로 피 흘리지 아니하고 6국(六國)을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지적인 권위가 있어야만 큰 일을 할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바울이 큰 일을 한 것도 바울이 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인격적인 권위

인격이라는 것은 지(知), 정(情), 의(意)의 조화와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 의지, 감정이 조화되어 통일적인 인격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했으니 과연 모세의 위인됨이 천하 만민보다 겸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했읍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보다 낫다는 것은 이성이 있는 까닭이요, 사람이 사람 가운데 훌륭하다는 것은 덕망이 있는 까닭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아 아는고 하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200만 군중을 지도한 것이 덕이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200만 대중은 조직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집도 의복도 양식도 물도 없고 병원이란 의료기관도 없었읍니다. 그러나, 모세가 황막한 광야에서 빈손들고 40년 동안 그 백성을 지도했다는 것을 보면 그에게 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덕이라 함은 원만한 인격, 왕성한 책임감, 감정과 정서, 풍부한 인간미가 갖추어짐을 말합니다.

제정(帝政) 러시아 때 한 신사가 추운 겨울밤에 골목을 돌아가는데 거지 하나가 부들부들 떨면서 동전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미니 신사가 주머니를 뒤져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 사람 손을 꼭 잡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 따라 나에게 돈이 없구려 이거 참 미안합니다'라고 하였더니 거지가 두 눈에서 눈물을 주루룩 흘리면서 '내가 원했던 것은 돈 한 푼보다 이 따뜻한 손길인 인간의 사랑이었읍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짓더랍니다. 사람은 인정이 오고 가야만 따라서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 영적인 권위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읍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싸울 때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읍니다. 이것은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9-30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가서 사십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는데,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얼굴빛이 어떻게 찬란하게 광채가 나던지 백성들이 보고 너무나 빛이 나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다가 엎드러졌다는 것을 보면 과연 모세는 영적인 권위를 갖춘 사람입니다. 또 민수기 11장 25절을 볼 것 같으면 모세는 어떻게 신(神)의 권능을 충만히 받았던지 70 장로를 감동시키며 저희들을 예언케 했다고 했읍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섰을 때 신이 되었읍니다.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정거장에서 꾸역꾸역 쏟아져 나오는 틈에 끼여 나와도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될 수 있는 언행심사(言行心思)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능력이 많으시던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고 했으며, 사도행전 5장 15절에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나았다고 했으며, 또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병자에게 얹으면 환자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모두 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각계각층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때에 우리들도 이 모세와 같은 지적인 권위, 인격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를 얻어야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힘차게 받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읍니다.

3. 투철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했읍니다.

첫째, 모세는 사상(思想)의 사람입니다. 애국자가 되려면 먼저 사상의 체제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넋)이 바로 새겨

져야 합니다. 인도의 애국 투사 간디(M. Gandhi) 옹의 존칭인 마하트마(Mahatma)란 위대한 혼(魂)이란 뜻입니다. 간디는 인도의 혼입니다. 간디는 무저항주의의 사상으로 영국과 더불어 싸워 총, 칼은 그만 두고라도 바늘 하나 쓰지 아니하고 삼억 오천만을 영국의 손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읍니까? 이것을 보면 총, 칼의 힘도 크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사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백의민족(白衣民族)으로서 흰옷을 많이 입었읍니다. 흰옷은 순결(純潔)하고 깨끗하며, 고결(高潔)하고, 고상(高尚)하게 보이지만 때가 잘 묻고 뚜렷이 보입니다. 즉,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 주의(主義), 사상을 빨리 받아들여서 따르려 하는 사대주의(事大主義) 사상이 농후하여 자주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많이 봅니다.

둘째, 모세는 결단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 아들이라는 귀한 자리에 앉아서 조금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왕좌(王座)에 올라갈 사람이지만 나이 사십이 되매 그 자리에서 뛰쳐 나왔읍니다. 약자를 멸시하기 쉽고 강자에게 아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건만 이 모세는 내가 애굽 사람과 더불어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지옥 가느니 보다 내 민족과 같이 고생하다가 내가 구원 얻는 것이 낫겠다고 용감히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돌아서는 결단과 루터가 베드로 성전의 계단에서 일어나는 용기가 지도자로서는 필요합니다.

세째, 모세는 애국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읍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범죄한 백성을 위한 애국자의 결사적인 도고(禱告)인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사십년 동안 고난을 겪게 하시니 원망이 빗발치듯 했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더니 사십년 동안 다녀 보아도 그림

자도 없으니,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이들은 병나고 죽고 하니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병나면 약도 쓸텐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200만이 한 마디씩 불평을 하면, 그것 얼마나 귀가 아플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보시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노예 정신에 젖어 있는고로 이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독사로 하여금 발뒷꿈치를 물어 죽게 하자 그 때서야 다급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애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장대 꼭대기에 구리뱀을 달아놓고 쳐다보게 하여 쳐다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였읍니다.

자기를 원망하고 욕하고 죽이려 덤비는 무지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용하고 사랑하는 모세는 진실로 애국자입니다. 죄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는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라, 정말 백성과 더불어 고(苦)와 낙(樂)을 같이 하고 마지막에는 남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그 사람이 애국자인 것입니다.

4. 지도자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모세는 신념의 사람입니다. 앞을 보니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를 보니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거기서 모두가 아우성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할 때에 모세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여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며 홍해를 한 번 치니까 갈라졌읍니다. 애굽 병정이 쫓아오다가 다 물에 함께 매장되었읍니다. 정말 지도자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

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며 이 시대에 진리의 왕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진리의 파숫군이며, 정의의 상징이며, 민족의 양심이며, 인권의 옹호자이며, 희망의 사도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 절망에 빠졌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어 로마로 호송되어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모든 승객들과 뱃사공과 선장까지도 절망에 빠졌으나 양손 양발을 쇠사슬에 묶인 바울만은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고 무서워 떠는 승객들과 선원들에게 말하기를 "물건만 잃을 것이요 생명은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라고 하며, 도리어 위로와 희망을 주며 떡을 떼어 주었으며 마침내 무사히 상륙하여 생명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풍랑 만난 사람들처럼 아우성 중에 있읍니다.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 증강을 해야 하고, 사상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수립해야 하고, 문화적으로는 문화의 토착을 가져와야 하고, 군사적으로는 남·북 통일을 해야 하고, 도덕적으로는 윤리의 재건을 해야 하고, 종교적으로는 이 부패한 영계(靈界)를 다시 일으켜야 하니 이 큰 과제를 앞에 두고 어디에다 손을 댈지 몰라 막연해서 어쩔줄을 모르고 말로만 서성대고 아우성치고 있읍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은 사고의 엄밀, 행동의 정확, 말의 절약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회도 큰 문제를 다룰 때 더 조용하다는 것처럼 또한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모두가 조용하고 침착해야 산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수록 신념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독일 사람이 일어난 것은 아데나워(Adenauer)나 에르하르트(Erhardt)나 몇 사람이 우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 국민 전

체가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우리 게르만 민족은 피가 우수하다"는 자부심과 자신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그들은 재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유대 민족들은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주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천년 동안 유랑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전통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새 나라를 건설한 것을 보면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뚜렷하고 오랜 교육과 거듭하는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신앙 생활로써 영계를 바로 잡는 데 있어서도 지적인 교육과 신앙적인 훈련과 사명감이 뚜렷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불의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도 보고, 금식도 해 보고, 철야도 해 보고, 이런 교육과 훈련과 경험을 자주 쌓아야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서야 어떻게 마귀와 더불어 싸워 영계(靈界)를 바로 잡겠읍니까?

우리 민족도 20세기의 홍해에 이르렀읍니다. 이 홍해를 헤쳐 나아가려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옛날 손자(孫子)가 말하기를 "전쟁을 하기 전에 자세를 보면 승패를 가릴 수가 있다"고 하였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마귀(죄악, 불의)와 싸우려면 눈동자도 밝아야 하고, 얼굴빛도 광채가 나야 하고, 뼈속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끓어올라야 하고,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지적 신념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도덕적 신념이 아니고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적 신념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자세를 갖추어 민족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조국이 요구하는 인물
(마태복음 9 : 35-38)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찾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충신을 찾는다"는 옛 성현(聖賢)의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느껴지는 말입니다. 일찌기 아덴의 애국자이며 철인(哲人)의 한 사람은 백주에 등불을 켜 들고 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묻기를 "선생님, 이렇게 밝은 대낮에 왜 등불을 켜서 무엇을 찾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는 대답하기를 "조국의 위기를 막아낼 인물을 찾는다"고 대답했읍니다. 그 때에 북방 신흥국가(新興國家) 마게도니아가 일어나서 아덴을 노리매,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격이었읍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를 그러한 인물은 끝내 찾지 못하여 적군에게 망하고 말았다고 했읍니다.

서양의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은 보화가 아니라 인물이다"라고 했읍니다. 즉, "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인물, 돈을 받고도 내놓을 수 없는 인물, ② 죄를 죄라고 책망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인물, ③ 나침반이 항상 북극을 향하는 것같이 그 양심이나 의무에 충성하는 인물, ④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동(動)

하지 않는 인물이 가장 얻기 어려운 인물이다"라고 하였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나라가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강토는 병정들의 말굽에 짓밟힘을 당하고 백성들은 우마(牛馬)와 같이 노예의 대상이 되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셨읍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나라에는 일꾼을 찾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반공 단체나, 군인이나, 정치가나, 소위 애국자가 없는 것도 아니며 다만 쓸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군인의 정의(定義)를 생각하여 봅니다. 군복을 입고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잘하면 군인이라 하겠지만 군복은 기피자도 입었고, 무기는 간첩이나 강도도 가졌고, 싸움은 깡패들이 더 잘 할 것이니 정말 민주정신이 투철하고, 애국정신이 충일(充溢)하고, 군인정신이 철두철미한 정의의 투사만을 참 군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부엌에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죽그릇이 엎어진다"고 했음은 사람만 많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쓸 만한 인물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인 줄 압니다. 인물을 찾는 이 시대에서 조국이 요구하는 인물에 대해 열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겠읍니다.

1. 한 마디 말을 약속 수표와 바꿀 수 있는 인물

약속 수표는 한 번 써놓으면 다시 변경할 수 없으니 사람의 말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과 권위가 따라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구이언(一口二言)은 이부지자(二父之子)요, 장부일언(丈夫一言)

은 중천금(重千金)이라는 말이나, 군자(君子)는 말이 적고 소인(小人)은 말이 많다고 함이나, 예수님께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고 하심이나, 시편 15편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라고 기록된 것 등은 말의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이든지 전적으로 믿어진다는 것보다 그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몇 퍼센트나 믿어 주어야 할지 말에 내포되어 있는 진위(眞僞)를 분석하게 되는 것은 진실됨이 없다는 것을 말함입니다.

헬라 나라에 자리우커스(Jaleucus) 임금 때, 국내에 음란된 사실이 너무나 성했으므로 그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자멸(自滅)할 것을 걱정하던 끝에 국법을 정하여 "누구든지 간음죄를 범하면 두 눈을 뽑겠다"고 공포했읍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국법을 어긴 자는 임금님의 하나밖에 없는 황태자였읍니다. 이러한 난관에서 신하들은 당황하고 있을 때, 임금 자신이 국법에 의해 아들의 눈 한 쪽을 뽑았읍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쪽은 임금 자신의 눈을 뽑아 놓으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눈 둘이 있다. 법은 신성한 것이다. 만인이 지켜야 할 것이며 여기 죄인의 눈과 내 눈 하나를 뽑은 것은 나도 인간이다. 아버지로서의 정을 가졌다. 그러므로, 부자지간의 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음으로 그것을 본 백성들은 경성(警醒)하여 범죄하지 않고 윤리가 올바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 편 빰을 때리거든 왼 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여 주고 꾸러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스스로 지키어 오른 편 빰을 때리니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왼 편 빰을 돌려 댔고, 겉옷을 달라는 자

에게 속옷까지 제비 뽑아 나누어 갖게 했고, 오리를 가자고 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빌라도 뜰과 갈보리 언덕까지 가신 것이나,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며 십자가상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며, 마지막 자기를 죽이는 원수와 핍박자를 위하여 사랑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말에 책임을 지는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의지가 강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물

이것은 절개, 신의, 지조를 뜻합니다. 소나무나 대나무가 좋다고 하는 것은 꽃이 있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꿀이 있고 열매가 있음을 말함이 아니고, 다만 그 색채가 상록수 같이 사철을 두고 변치 않는다는 지조와 절개와 신의를 상징하기에 좋다는 것이며, 오리는 절개를 가리키는 새로서 한 쌍이 살다가 한 마리가 죽으면 끝까지 그 자리에 와서 눈물을 흘리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식 때도 대나무를 놓고 오리를 주고 받습니다. 이는 곧 대나무와 오리 같이 부부 간에 애정과 이상이 변치 말고 그 절개가 변치 않기를 의미합니다.

옛날 중국에 고맹이라는 여인이 있었읍니다. 용모가 아리따우므로 그 나라 임금이 저를 탐내었을 때 "충신(忠臣)은 불사이군(不仕二君)이요, 열녀(烈女)는 불경이부(不更二夫)라 하거늘 내 어찌 두 남편을 섬기리요" 하고 자기의 미모를 탄식하면서 칼로 코를 베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때, 임금이지만 얼굴을 붉히고 탄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친구지간의 신의도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이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신의를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는 나라에 대한 지조도 강해야 될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송상현이라는 동래의 병부사(兵府使)는 왜적과 싸워 성(城)을 지키다가 왜군

은 쳐들어오고 말았읍니다. 손에 가진 병부(兵府)를 뺏으려 할 때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못내놓겠다"라고 했읍니다. 그리하여, 적장은 그의 잡고 있는 팔을 쳤읍니다. 다른 손으로 바꾸어 잡았읍니다. 역시 그 팔도 잘라 버렸읍니다. 그는 재빠르게 입으로 옮겨 물었읍니다. 다시 목을 칠 때 목이 떨어져 죽고 말았읍니다. 나라에 대한 절개가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 운동 당시 밀양에서 어떤 학생 몇 사람이 광복 운동하는 반렬(班列)에서 연락을 해오다가 마침내 경찰에 잡히었읍니다. 경찰은 그들의 배후를 알고자 그들을 고문하였으나 나라의 대사(大事)를 폭로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라 하여 끝까지 함구(緘口)하며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8·15라는 이 해방이 우연이 아니고 의지와 지조를 지킨 이들의 피의 대가인 것을 믿습니다.

백절불굴한 신앙의 사람 다니엘은 포로의 몸으로서 임금의 많은 대접도 받았고, 그 나라의 지식도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갔고, 또한 죽음의 사자굴 안에 들어도 갔으나 그의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신봉하였읍니다. 포로는 자유가 없는 것이며, 인간은 대접을 받을 때 약해지고, 남의 나라 학식을 쌓으면 사상이 바뀌어지기 쉽고, 지위가 높아지면 변심되기 쉽고, 죽음 앞에서는 사람은 약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우리들의 말과 풍습을 고쳐버리려던 일본의 뜻도 역시 동일한 것이며, 공산주의의 세뇌공작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높이 오르면 마음이 그 전과는 한 번 더 달라집니다. 또는 죽음을 앞에다 놓을 때, 비겁하게 되어지는 가장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신앙은 빼앗기기 쉽습니다마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나 풀무불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는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 마리의 소를 한 사람이 끌고 갈 수는 있으나 소 한 마리를 열 사람이라도 물을 마음대로 먹일 수 없다고 하였고, 백만군을 호령하는 장

군이라 할지라도 비록 낮은 필부(匹夫)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다는 명언이야말로 지조와 절개와 굳은 의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3. 한 가지 이념에 불타는 인물

이것은 열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물을 말합니다. 젊은 청년의 특색은 정열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좀 실패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진취성 있는 젊은이가 요구되고 있읍니다. 옛 속담에 "열성의 지렛대는 우주를 움직인다"고 했고, "십년 동안 낙수물이 한 자리에 떨어지면 바위라도 구멍이 뚫린다"는 말은 무엇이나 한 가지 일에 열성을 다하면 못할 것이 없음을 뜻하고 있읍니다. 옛날 이광(李廣)이라고 하는 장군이 소년 시절에 활 쏘려고 산중에 갔을 때 호랑이가 덤비기에 활로 쏘았더니 머리에 맞았읍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호랑이가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바위에 화살이 꽂혀 있었읍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활을 쏘아보았으나 화살이 바위에 꽂혀질 리는 없었읍니다. "정신일도(精神一到)하면 금석가투(金石可透)이라"함은, 정신이 집중되면 금이나 돌덩이도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한 가지로 모으면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라도 돌파할 수 있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하셨고,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열정을 다하니 벨릭스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하였읍니다. 그가 사명을 다 하기에 죽기까지 열정을 다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잘 알 수 있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처럼 인생을 길게 살지 못했읍니다마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탔으므로 짧은 인생 33년 밖에 살지 않고

도 가장 굵게 사신 것입니다. 오직 일념에만 불타던 그리스도의 생애이었음을 우리는 본받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는 내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만 되나, 선천적인 소질과 특기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한 길로만 목적을 세우고 일생을 바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마는 오늘날은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흔히 볼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사회야말로 병든 사회입니다. 장래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설사,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목적을 달성치 못한다 할지라도 긴 장래에 한 번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노동자가 자기 집을 석조(石造)로 3층 집을 설계한 후 지하실만 짓고는 그 속에서 살더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층이나 삼층은 언제 지으렵니까?"라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이층은 아들 때에 짓고 삼층은 손자 때에 짓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기에 독일은 자동차 한 대라도 공을 들여 실용적으로 만듭니다. 일본 사람은 보기 좋게 날림으로 만드나 우리 한국은 그만치도 못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반성하고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게 창의와 정열적인 노력으로 한 가지 이념에 불타 어떠한 난관도 돌파하는 인물이 됩시다.

4. 작은 일도 큰 일과 같이 생각하고 충성하는 인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 충성한다"고 함은,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머슴 두 사람에게 오랫동안 수고했으므로 분가하여 보낼 것을 약속하고 '오늘밤 마지막으로 고운 새끼 얼마를 꼬아 달라'고 부탁했읍니다. 갑(甲)이라는 머슴은 충성스럽게 주인의 말대로 밤새도록 많이 꼬았읍니다마는 을(乙)이라는 머슴은 내일이면 나갈텐데 그리 열심히 할 것 없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굵게 몇 발 꼬아서 주인에게 바쳤읍

니다. 주인은 광 앞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엽전더미를 가리키며 "너희들에게 돈이 필요할 터이니 마음대로 새끼에 끼워 가라"고 명하였답니다. 이 때 어떻게 되었겠읍니까? 주인의 말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열냥, 백냥 자꾸만 많이 끼워서 가져 갔겠으나 불충성한 머슴은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읍니다. 인간이 충성한다는 그 자체는 남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고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많이 있읍니다. 독생자, 성령, 구원, 영생, 면류관을 주겠다는 등 신령한 것으로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꼭 하나 있으니, 이것은 곧 충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고 했읍니다. 어느 누군가가 봐서 알아주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單獨者)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철학자 키엘케골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이 양심적으로 살면 올바름이다"라고 함은 절대적인 거짓없는 충성심을 말함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라 함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충성함이 같음을 기록하였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설명할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주릴 때 먹여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하시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큰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작은 일에 무관심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지어지는가 하면 작은 일에서부터라고 하겠읍니다. 인간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심으면 품성이 되고, 품성을 심으

면 운명을 거둔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 하루에 충성하고, 가장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야 하겠읍니다.

5.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인류를 위한 야심에 불타는 인물

희생과 봉사의 이타적 정신을 가진 인물을 말합니다.

영국 철학자 베이콘(Bacon)은 인간을 세 가지 성분으로 나누어 말하기를 '인간은 거미, 개미, 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였읍니다. 거미는 이기주의, 개미는 개인주의, 벌은 이타주의(利他主義)를 가르침이며, 거미는 미물이지만 그의 생식(生食)은 약육강식(弱肉強食)으로써 좁은 골목에 거미줄을 쳐 놓고 컴컴한데 숨었다가 파리, 잠자리, 하루살이 등이 걸리면 쫓아가서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지식, 돈, 권력, 배경 등의 거미줄을 쳐 놓고 다방이나 술집에 앉았다가 약한 사람, 무식한 사람, 세력 없는 사람들의 등을 치고 철없는 생명들을 상품화하여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이기주의의 거미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미는 알뜰합니다. 부지런하여 잠시도 놀지 않고 먹이를 모아들여 남에게 꾸러 가지도 않으며, 또는 남을 꾸어 주지도 않고, 제가 벌어 제가 먹는 미물이지만 인간들도 이러한 사람이 있읍니다. 어쩌다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게 되면 이웃의 고학생이나, 상이군인이나, 병든 자나, 굶는 사람이 있어도 무관하는 개인주의 인간을 많이 볼 수 있읍니다. 얼마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돈 얼마를 보내면서 주(主)의 일에 써달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보내는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로 알겠읍니다마는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한 사람이라 함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도 개인주의에서 떠나 인류를 위해 살 수 없겠읍니까?

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벌은 자기의 먹이를 위하여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꽃의 종자를 퍼치고 달콤한 꿀을 저장하여 공동으로 생명을 영위하는 아름다운 천성(天性)의 미물입니다. 역시 인간에서도 남을 위하여 자신을 저버리는 고차원적인 정신을 가진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고귀한 피를 뿌리는 사람이 또한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해 공헌하며 생애를 아낌없이 바칠 거룩한 정신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한 일은 전혀 없고 인류를 위해 피와 물한 방울까지도 내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정신을 받들어 숭고한 이타주의의 야심을 가집시다. 이는 바울, 프랜시스, 다미엔 같은 분입니다.

더우기 우리는 이타적인 박애정신(博愛精神)이 결여되어 거리에서나 차 속에서나 자기 욕심에 따라 시비와 분쟁을 부끄러움도 없이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좀더 크고 넓게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바치도록 노력하는 봉사적인 인물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6. 기회를 잡는 데 민첩한 인물

이것은 판단의 신속과 정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판단력이 올바르지 못하면 자기를 망치는 일이 많습니다.

공군에서 비행기를 타는 조종사들은 지식도 있고 사상도 건전해야 하지마는 몸이 건강하며 눈이 밝고 머리가 명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중에서 초음속으로 날을 때, 모든 기계를 다루는 것이라든지 눈으로 보고 듣고 머리로 판단하여 적기(敵機)를 먼저 발견할 수 있읍니다. 공중전에는 먼저 발견하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생활에도 모든 일에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겠읍니다. 나폴레옹이 연합군과의 워터루 대전에 패망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면 알프스 산을 넘어

전진만 하던 승승장군(勝勝將軍)이 몇 시간 후에 변할 천기(天氣)를 알지 못하고 싸움을 위해 전진하다가 잠깐 쉬는 동안 내리는 소나기로 길이 진탕이 되어 대포바퀴는 박히고 군인은 보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연합군에게 대패를 당하고 말았으니 잠깐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불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라고 했읍니다. 곧 이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때를 분별하라고 경성케 하신 말씀입니다. "소년은 이로하고 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하니 일촌의 광음을 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이라" 함은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힘드니 세월의 촌각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옛 사람의 말에 '흘러가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하였고, 일본의 내촌 씨는 '과거도 내 시간이 아니요, 미래도 내 시간이 아니요, 현재만이 내 시간이다'라는 엄연한 사실을 말했읍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간,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선용(善用)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 국립박물관에 기회(機會)라는 표식 안에 사자의 머리와 새 꼬리를 실물 교훈으로 진열해 두었는데, 기회가 올 때는 사자의 머리를 쉽게 잡을 수 있음과 같음을 보였고, 기회가 지나갈 때에는 새 꼬리처럼 잡기가 매우 어려우니 어떠한 일에든지 민첩하게 기회를 잡아 후회함이 없어야 되겠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군대에 가서도 한 사람은 장교로서 의복이나 봉급이나 모든 대우가 상당하지만 한 사람은 졸병으로 봉급은 물론이요 보잘 것 없는 대우와 멸시 속에 지배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기를 잘 잡고 실력을 쌓으면 어떠한 곳에 가든지 많은 대우와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의 배움

은 반석 위에 새긴 것이고 늙어서의 배움은 모래 위에 새긴 것이다"라는 명언은 배움에 있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음이 얼마나 중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매오라는 소경이 어떻게 하면 광명한 세상을 볼 수 있을까 하던 중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때이다' 하고 기회가 온 것을 안 뒤에는 누가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으나 군중 가운데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들어 예수님의 도우심을 청하였읍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그는 그 무엇보다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소경은 눈을 떴읍니다. 바디매오가 눈 어두움을 탄식만 하고 앉았거나 누구의 도움이 오기만 기다리고 앉았더라면 그러한 기쁨과 구원은 영영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7. 용기와 과단성 있는 인물

구약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호화로운 생활과 공주의 아들로서 영광된 자리에만 도취되어 민족과 여호와의 사명을 저버렸더라면 위대한 성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나 과단성 있게 박차고 나와서 민족과 더불어 수난을 같이 했다는 사실이나, 바울이 기독교를 반대하여 열성적으로 핍박하였으나 참 그리스도의 존재를 안 뒤에는 돌이켜 과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분토같이 집어던지고 일생을 바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는 마틴 루터는 성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올라가다가 참 진리가 아닌 것을 발견하고 벌떡 일어서서 올라갔읍니다. 모든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과감하게 결단하는 용기는 매우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때, 저는 군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았읍니다. "김 일병, 지

금까지 사는 동안 가장 통쾌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앓던 이 빼는 것입니다" 또 김 하사에게 물어보니 "목마를 때 냉차 한 잔 먹은 다음이 통쾌합니다" 김 이병에게 물어보니 "무더운 여름철에 버스에 사람이 잔뜩 타고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차장이 오라이 하는 말이 제일 통쾌합니다"라고 각각 대답하였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보다도 사람의 양심에 가책되고 법률에 어긋나고 남들이 눈쌀을 찌푸리는 일이라면 가던 길을 과감하게 돌이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결단성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통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하였는데, 갑자기 소식을 들으니 남편에게 본처와 자녀가 있다고 하지 않겠읍니까?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마는 이 여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자기가 죄 됨을 깨닫고 아기자기하며 소중히 여기던 남편과의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과단성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죄 된 줄을 알면서도 육욕(肉慾)에 이끌리어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비극을 자아내는 일이 부지기수임을 볼 수 있읍니다.

어떤 어린 학생들은 나쁜 친구에게 이끌려 호기심으로 술과 담배를 어른들 몰래 조금씩 먹습니다. 가정과 학교 또는 사회에서 용납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니 이러한 때 결단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체의 일부분이 썩어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읍니까? 아깝다고 아프다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썩은 부분을 과감하게 절단해 버려야만 성한 부분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그리스도가 의인인 줄 알면서도 유약(柔弱)해서 민중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여 자신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과오를 저질러버렸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참아 지지 못할 형틀을 과감하게 참으시고 수치의 십자가, 능욕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백성을 저주 가운데서 살리시고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셨읍니다.

8.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특색을 잃지 않는 인물

자기의 자부심, 자존심, 자신력과 긍지를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외국의 침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대주의 사상이 젖어들어 자기의 특색은 물론 민족의 특색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중국이 득세하면 대국이라고 숭배하더니, 소련이 고개를 드니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일본이 홍세하여 세력을 부리니 아부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읍니다. 심지어 말과 의복과 이름까지 고쳐서 굽실거리며 살았지요. 그러나, 오늘은 미국이 우세하니 미국식으로 생활까지 고치는 등 여자들 의복을 보세요.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차림은 외풍이 꼭 들었으니 가소할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인도의 간디를 보십시오. 영국 원탁회(圓卓會)에 초청을 받아 갔었지만 버킹검 궁전 속에 자기가 물레를 돌려서 짠 옷을 입고 맨발로 걸어가서 인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보였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가면 일본인이요, 미국 가면 미국인 행세를 하는 썩은 정신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암탉 한 마리에 계란과 오리알과 꿩알을 품겼답니다. 알을 깬 다음에 얼마 후에 보니 오리새끼는 물로 가고 꿩새끼는 산으로 갔으나 병아리는 어미 품속에서 살았답니다. 우리도 진정 그 민족성과 고유한 특성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한국인으로서의 자세를 상실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 학생들은 허영심에서 자기 가정의 생활수준 이상으로 허세를 부려 친구 앞에서 우쭐거리지만 이것은 변질된 자부심으로서 더욱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신자들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만 신자로 자세를 갖추지만 장사하

는 데서나 생활하는 데서는 그 특색을 볼 수 없읍니다. 심지어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 정도는 소홀히 하는 신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성도의 특색을 보여 남에게 전도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고린도교회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시기에 확실한 자신력을 가지시고 성도들에게 자기의 신앙 제일주의의 자부심을 명확히 보여주었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신앙에 입각한 특색을 사회에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9. 어떠한 비천한 노동이라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인물

생활 속에 삼대 신성(三大神聖)을 논하고 있는데, 첫째는 종교 신성, 둘째는 가정 신성, 세째는 노동 신성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일이지만, 그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초부(樵夫)에 이르기까지 국가 요소에 중요한 일원들입니다. 자기의 능력의 제한대로 일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활의 기반이요, 나아가서는 사회의 이득이요,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므로 얼마나 신성한 것입니까? 나는 농가에서 태어났읍니다. 이 시간까지 지내오는 동안 그저 평안하게 학업만 닦으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피눈물나는 고비가 있었읍니다. 부모의 슬하에서는 국민학교 시절뿐이었고, 그 후로는 고학(苦學)이었읍니다. 풍찬노숙(風餐露宿)해 가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만주로, 북지로 쏘다녔읍니다. 가는 데마다 노력하지 않고는 내 몸을 의지할 데가 없었읍니다. 또는 신학생 때에는 인생 수학(人生修學)을 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2년 동안 지겟짐을 지면서 고학했던 경험은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읍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분발합시다. 난관에 처할 때 누구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귀한 노동력으로 자활(自活)하여 봅시다. 구구하고 비루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의 노동력으로 살아 갑시다. 이것이 일생을 살아가는 숭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거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깊이 연구해 봅시다. 반드시 할 일은 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이반의 바보」에 보면, 부지런히 일해서 손에 굳은살이 많이 박힌 사람은 식탁의 상좌(上座)에 앉고, 놀고 먹는 자는 먹던 찌꺼기로 연명한다고 했읍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농사꾼이 제철에 부지런히 일함으로 많은 소득을 얻어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함은 먹고 사는 인간에게 노동의 절대성을 고취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심은 어떠한 노동이나 거리낌 없이 감당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링컨은 우편국 소사 일을 하였고, 스티븐슨은 화부노릇을 했고, 에디슨은 신문팔이, 플랭크린은 인쇄공, 무디는 구두짓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상에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고, 다윗은 목동이었고, 엘리사는 농부이었고, 베드로는 어부이었고, 바울은 장막을 쳐서까지 전도하던 분이었읍니다. 우리 신자들은 일의 층하보다 근면하여 창조적, 생산적, 신임성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10.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는 인물

이것은 희망과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에도 밤과 낮이 있고, 일년에는 사철이 있어 덥고 추운 때가 있듯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링컨이 말하기를 "인간은 신(神)이 아니다. 실패할 때가 있다. 그러나,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말라.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돌다리다"라고 함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명언입니다. 영국의 골드 스미스 씨는 성공을 축하하는 석상에서 답사하기를 '나의 성공은 일생 동안 한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보다 실패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았음이라' 고 하였읍니다. 잠언 24장 16절 상반절에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함은 칠전팔기와도 같은 뜻입니다. 실패할 때 떨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보다 다시금 용기 백배하여 노력함이 현명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상고하면, 불란서의 청년들이 자유, 평등, 박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용기있게 일어났으므로 유명한 불란서 혁명을 이룩하였고, 영국이 스페인과의 대전에서 교전할 때 청년들의 용기로 스페인의 함대를 쳐부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희랍의 세계적인 웅변가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가 젊어서 어느 웅변 석상에서 대실패를 하였읍니다. 음성이나 태도가 그의 웅변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읍니다마는 그의 노력과 용기는 마침내 성공에 이르러 희랍의 위기를 모면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의 환경과 조건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다사다난(多事多難)합니다. 인구 과잉 문제, 자원 부족 문제, 공업 발달 문제, 도덕 문란 문제, 정치 졸렬 문제, 행정 관리 능력 문제, 농업 정책 빈약 문제, 남북 통일 문제, 유엔 가입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시급합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야 하겠읍니다마는 우리에게 더욱 시급한 문제가 있읍니다. 그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인물이 빈곤한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제도나 조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제도와 조직체를 운영하는 인물 자체의 자격이 문제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국은 역사 이래 오늘날까지 국외적으로는 사방으로 원수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도덕, 사상 등 시급히 해결해야만 할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덴마크의 그룬트비 같은 지도자나 불란서의 잔다크 같은 애국자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심은 신앙이 좋은 인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상 열 가지 자격을 갖춘 참된 인물이 우리의 조국에 간절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부름받은 이사야
(이사야 6 : 1-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라고 했읍니다.

유대 백성은 선민이었읍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주전 973년에 그 작은 나라가 32도 2분선으로 국토가 양단되고 정치, 사상, 군사적으로 완전히 분열 대립되고 말았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혈통이 같은 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날이 갈수록 통일은 그만 두고라도 질시반목(嫉視反目)이 점점 심해 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남침의 야심을 품고 북방 인접 대강국 앗수르와 군사동맹을 맺고, 이에 남쪽 유대 나라 역시 남쪽 대강국 애굽과 동맹을 맺어 북벌(北伐)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13대 왕 웃시야 왕의 치세(治世)로써 국내·국외 정세는 결코 낙관을 불허하는 자못 긴장한 가운데 있었읍니다. 이처럼 국사 다난한 시기에 54년간이나 집정했던 웃시야 왕이 교만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여 문둥병

이 들어 죽고 말았읍니다. 선한 지도자인 왕을 잃은 백성들의 마음은 비통했고, 더우기 민족과 국가의 내일의 운명을 내다보고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치, 사상, 군사, 경제, 교육, 도덕, 종교는 안정을 보지 못하고, 퇴락일로(頹落一路)로 마침내 민생(民生)은 도탄에 빠지고 외적에 대한 불안은 날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방방곡곡에서 다시 좋은 지도자를 찾는 심정은 날로 간절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한 사람이 흔연히 일어났읍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라는 청년이었읍니다. 이사야는 귀족 명문의 출신으로서 창조적 정신과 애국애족에 불타는 인물이었읍니다. 그는 이 위기에 처한 긴박한 현실을 바로 잡아 민족의 번영과 자손만대의 영광을 위한 이 위대한 성사업(聖事業)을 착수하려고 먼저 천지의 대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성전 깊숙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영안(靈眼)이 열려 하나의 이상(異常)을 보게 되었읍니다. 즉,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또 두 날개로는 쉬지 않고 날아다니며 말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장면의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그 뜻을 해석한다면 겸손과 근신과 봉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바른 신(神)과 자아(自我)와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겸손과 근신과 봉사적 정신이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위엄과 영광과 거룩한 절대자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처음 동기는 민족과 국가를 우려하여 엎드렸으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의 자기는 화(禍)가 있어 망할 자임을 솔직히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에 하늘에서 한 천사가 뜨거운 숯불을 집게에 집

어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지진 다음에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하였읍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탄식 소리를 들었읍니다. 이 때에 이사야는 벌떡 일어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읍니다. 이사야는 그 때부터 헌신하여 그 대중 속에 침투하여 50년 동안 불철주야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가면서 민족의 갈 길을 힘껏 외쳤던 것입니다.

첫째, 죄값은 사망이다. 둘째, 남북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세째,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네째, 의인들아 일어나거라고 설파한(說破)한 것이 그의 중심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각성하였으며 위기는 극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과 국가의 현실도 주전 700년전 유다 나라와 흡사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신관(神觀), 자아관(自我觀), 사명관(使命觀)을 통하여 배울 바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1.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국가의 원수(元帥)나 정당을 찾아보기 전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 역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치고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죠지 와싱톤, 아브라함 링컨, 영국의 크롬웰, 불란서의 잔다크, 덴마크의 그룬트비, 우리 나라의 안중근과 유관순 등은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걸주(桀周), 우리 나라의 연산군과 광해군, 독일의 히

틀러(Hitler), 일본의 동조(東條) 등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랐던 까닭에 수많은 백성을 괴롭혔고 또 죽였던 것입니다.

또한 떠들고 데모만 한다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욱 침착해야 침몰을 면하고 사는 것과 같이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백성들은 사고(思考)의 엄밀과, 말의 신중과, 행동의 정확을 가져야만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4·19후에 어떤 학생이 다방에 들어가 양담배를 피우는 신사에게 "당신은 4월의 사자(獅子)의 피를 모독합니까?" 하고 양담배를 빼앗아 가지고 나가서 뒷골목에 들어가 자기가 피우더라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즉, 데모와 소란으로만 애국애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와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자기 발견(自己發見)과 자아혁명(自我革命)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자기 발견

이사야는 지존(至尊)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교만하고 경솔하고 무정하며 입술이 더러운 죄인된 자기와 화(禍)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해 버리기까지 하였읍니다. 사람마다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스스로 의로운 체 하는 것입니다. 혁명을 두 차례나 치루고 새 나라를 건설하려는 도상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모름지기 쓸데없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 겸손해야 하겠읍니다.

어거스틴은 "겸손은 제덕(諸德)의 기초라"고 했고, 웨슬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세째도 겸손이다"라고 했고, 노자(老子)는 "교

만하면 망하고 겸손해야 오래 가느니라"고 했읍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라고 하셨고,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 했읍니다.

보름달보다도 초승달이 더 좋다함은 보름달은 줄어드나 초생달은 희망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제자리를 떠나 하나님 보좌를 향해 올라가다가 떨어졌고 예수님은 보좌에서 내려와 무덤 속에까지 내려가는 겸손을 가지셨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까지 높여지신 것입니다.

둘째로 근신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경솔과 방종을 삼가하고 근신과 절제를 하여야 하겠읍니다. 지상이나 공중의 모든 사고 원인(事故原因)의 대부분이 근신과 절제가 없는 데서 발생하는 것과 같이 신앙 생활의 실패의 원인도 근신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근신과 절제함으로 무서운 시험을 승리하였으나, 삼손은 경솔과 방종으로 비참한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대나무가 좋다 하는 것은 빛깔이 변치 않아서 좋은 것보다도 매듭이 있는 까닭에 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즉, 절제의 정신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욱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도 절제하지 못하면 위장병이 걸리고, 운동도 절제하지 않으면 늑막염이 생기고, 가정 생활도 절제하지 않으면 파산을 초래하듯이 신앙 생활도 절제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는 절제라 하였읍니다.

세째로 봉사적 정신입니다.

성도라 하면, 무정과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사랑과 봉사적 정신을 발휘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철인 베이컨(Bacon)은 사람을 세 가지 곤충에 비교해서 '거미, 개미, 벌과 같은 삼종인(三種人)이 있다'고 했

읍니다. 거미는 이기주의자를 말함이요, 개미는 개인주의자를 말함이요, 벌은 이타주의(利他主義), 사랑과 봉사와 희생적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고,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역설(逆說) 같으나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벌과 같은 사람은 적고 거미, 개미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하나 배불리 잘 살면 된다는 검은 마음으로 국가의 공원을 해치는 사람, 소나무를 뿌리째 갉아 먹는 인간 송충이, 국가를 좀먹는 부정축재자 등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 사는 미국과 비교할 때에 산 좋고 물 좋아 화려한 금수강산이라던 내 나라 내 강산은 날로 황폐와 부패의 냄새만이 더욱 짙어가고만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봉사적 정신을 본받아서 서로서로 친절과 사랑과 희생과 봉사적 정신으로 나아가 사회를 정화하고, 강산을 미화(美化) 하고, 사막과 같은 마음에 꽃이 피고 샘물이 흐르게 해야 되겠읍니다.

네째로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도 더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거짓, 음담패설(淫談悖說), 모략, 중상, 악담, 저주 등은 다 입술을 통하여 발설되는 것입니다. 말은 사상, 감정의 표현이고, 인격과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자식을 낳아 좋아할 때는 한없이 좋아하다가도 욕을 할 때에는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을 저주하니 저주를 받았고, 작은아들 야곱을 축복하니 축복을 받았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이 지난날 자손들에게 망할 놈, 개같은

놈, 빌어먹을 놈, 급살을 맞을 놈, 염병 앓을 놈 등의 저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36년 동안 망했었고, 개처럼 늘 싸우고, 빌어다 먹으며 살고, 미·소제 폭탄으로 급살맞아 죽고, 인플루엔자 독감에 드러눕게 되었다는 사실로 생각한 때도 있었읍니다.

다리 한 쪽이 짧은 사람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저 사람 다리 하나가 짧다" 하니, 옆에 섰던 점잖은 한 사람은 "같은 값이면 다리 하나가 길다"고 하라고 했다는 것과 같이 이왕이면 욕을 해도 야박한 욕보다도 오히려 "이 부자가 될 놈" "이 박사가 될 놈" "이 대장이 될 놈" "대통령이 될 놈"이라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11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뇨" 하였읍니다. 세상에는 3화(三禍), 즉 필화(筆禍), 색화(色禍), 설화(舌禍)가 있는데, 이것은 입을 잘못 열면 자신과 나라가 불에 타서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 입에 자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숫군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섯째로 자기 부정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5절 상반절). 이 말씀은 회개, 겸손, 무욕(無慾), 자기 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불붙는 가시밭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바로 왕에게서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나는 못간다" 고 대답했읍니다.

바로는 애굽의 대왕으로 군병이 많고 모세는 지팡이 밖에 없으므로 못간다고 했었을 것입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읍니다. 던졌더니 뱀이 됐읍니다. 모세는 대단히 놀랐읍니다. 이 지팡이는 자기의 의지며 무기며, 이것만 가지면 위로가 되고 집

승과 원수도 격퇴하고 자기의 양의 생명을 보존하는 줄로 알았는데, 이것이 뱀이었던가 하고 뱀이 무서워 도망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여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는데, 이 지팡이는 여호와의 지팡이(출 4:20)가 되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열 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많고, 완력이나 강하고, 학식이나 풍부하고, 권력이나 있으면, 이것이 나의 의지와 사는 방패라고 생각하지마는 그것이 자기를 물어 죽게 하는 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해방 이후 돈 때문에, 완력 때문에, 학식 때문에 아깝게도 귀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먼저 십자가 앞에 던져서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 돈, 힘, 학식, 권력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만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치, 향락, 부정, 부패는 여전합니다. 외국 물품은 어떤 사람이 쓰고, 고급 요정은 누가 드나들고, 탈세(脫稅)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혁명이니, 재건이니, 근대화니 하는 것은 구호나 선전이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며 간판이나 제도를 바꾸고 옷이나 갈아입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지 그것이 없다면 새로운 귀족이 다시 생기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의 정(情)과 욕(慾)을 십자가에 못박고 자기 부정을 해야만 너도 나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불로 죄를 태워버리고 성결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기의 자발적인 헌신이었읍니다. 그는 나아가서 민족의 현실을 바로 지적하여 책망할 것은 꾸짖고 나아가서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 주며 위로와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3. 교훈의 중심 사상

첫째로는 죄값은 사망이다 (사 1:-3:, 56:, 59:).

전쟁은 계속되고 피해는 많았으나 나머지 백성들은 현실을 망각하고 탐욕과 부정, 우상과 복술, 사치와 음탕, 안일과 방종으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때에 이사야는 나라가 왜 갈라졌느냐? 웃시야 왕이 왜 죽었느냐? 모두가 죄값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으로만 달려가니 이러다가는 "그 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사 3:24-26)고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역사가의 말을 빌리면 모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적이 쳐들어와서 망한 것보다도 그 내부가 안일과 사치와 음탕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시급한 문제는 38선 철폐, 남북 통일, 국제 친선, UN가입. 치산치수, 산림 녹화, 도로 확장, 공장 증설, 외화 획득, 핵무기 도입 등등 여러 가지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하지마는 실상 그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모든 정치가, 교육가, 실업가, 노동자, 농민, 심지어 성도의 마음 속까지 파먹어 들어가는 죄악을 먼저 잡아내는 것입니다.

휴전선을 넘어들어오는 북괴의 간첩도, 평화선을 넘어오는 일본의 어선도 막아야 하지마는 우리 양심의 한계선을 넘어들어오는 부패를 막는 것은 더욱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사기, 횡령, 살인, 강간만이 죄가 아닙니다. 원칙없는 정략(政略), 일없는 건강, 양심없는 쾌락, 도덕없는 상업, 인격없는 지식, 인도(人道) 없는 과학, 희생없는 종교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4장 34절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했읍니다.

둘째로는 남북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사 22 : 9-11).

예루살렘 성에 만반 준비는 차차 좋아갔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었읍니다. 이 때에 이사야는 "너희는 북쪽 앗수르도 믿지 말고 남쪽 애굽도 믿지 말고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 믿으라" 고 외쳤읍니다.

"소련 사람에게 속지도 말고, 미국 사람 믿지도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는 우방 미국의 은공(恩功)을 망각하자거나 편협한 민족주의나 인종 차별주의를 말함이 아니요, 오직 자주성을 잃는 사대사상(事大思想)을 배격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은 유수한 것입니다. 세계사는 한 때는 바벨론의 번성 시대에서 메대 파사, 헬라, 로마, 불란서, 영국, 미국 등으로 돌아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모두가 한정이 있읍니다마는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國權)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단 2 : 44)고 했읍니다.

노예적 근성을 가지고 남만 의지한다는 것은 금물입니다. 나를 아는 자도 나밖에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자도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창의(創意)로 계획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일체의 의타심(依他心)은

나로 하여금 비겁과 자학(自虐)을 유도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에게서 자립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겨레는 맹목적인 모방과 추종의 의존심을 탈피하고 민족의 해방과 위기의 때마다 돌보아주시는 하나님만 잘 섬겨 받들어야 하겠읍니다. 물질과 기계의 인간이 우상화된 현실에서 지금도 역천자(逆天者)는 망하고, 순천자(順天者)는 흥하는 사실은 불변하는 까닭입니다.

세째로는 낙심말고 소망을 가져야 되겠읍니다.

나라는 분열과 전쟁, 폐허와 빈곤의 피곤에 시달리어 절망 중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에게 장차 700년 후에 나타날 인류의 메시야를 소개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불안과 빈곤에서 완전한 해방은 고사하고 날이 갈수록 점점 물가고(物價高), 실업자, 취직난, 생활난, 정쟁(政爭), 부패, 교계의 속화 등으로 퍽이나 비관적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만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의 빛나는 샛별을 볼 수 있음과 같이 고난의 어둠 속에서만 위대한 것이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광곡」의 작자 베토벤(Beethoven)은 귀머거리였으며, 유명한 「메시야」를 작곡한 헨델(Händel)은 전신마비에 빠진 불구자였으며, 「실락원」의 저자 밀톤(Milton)은 장님이었읍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견지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부강하고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황막한 대륙을 개척한 미국의 청교도들, 사막과 습지를 개간하여 낙토(樂土)를 이룬 덴마크 국민들, 흉용(洶湧)한 노도(怒濤)와 싸워 국토를 확장한 화란 백성들, 2,000년 동안 방랑과 천대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권을 회복하여 낙토를 건설한 이스라엘, 패전에서 재건을 이룩한 독일과 일본을 직시(直視)하십시다. 오늘의 결과보다도 그 이면에 숨은 고난을 극복한 희망과 의지를 투시(透視)하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무지와 빈곤과 혼란과 고난은 내일의 우리 민족을 보다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장미꽃은 가시나무에서 피는 것같이 오늘의 고난은 새 나라, 새 역사 탄생의 해산의 진통임을 알고 소망을 가져야 하겠읍니다.

네째로는 "의인들아 일어나거라"고 했읍니다.

불의한 자는 망하고 의로운 자는 새 나라를 건설할 뿐만이 아니라 신천신지(新天新地)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사야는 절규(絶叫)했읍니다.

옛날 춘추시대에 위 나라와 제 나라가 있어 위 나라가 제 나라를 갑자기 쳐들어 갈 때에 어떤 젊은 여인 하나가 업고 가던 어린 아이를 내어던지고 큰아이를 업고 가기에 대장이 부하를 시키어 잡아오라 하여 물은즉 "던진 아이는 내 자식이고 이 아이는 내 동생의 자식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어째서 네 자식은 버리고 네 동생의 자식은 업고 가느냐 한즉, 내 동생이 병들어 죽어가면서 어린 것 때문에 안타까와 할 때에 내가 말하기를 "어린 것은 내가 맡아 길러 줄테니 염려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내 자식은 버리고 이 아이를 살리려 업고 갑니다"고 말하매, 대장은 부하에게 "회군(回軍) 나팔을 불어라, 돌아가자, 이 치마 띤 여인이 이렇게 의로울 때야 이 나라에 의인이 얼마나 많겠느냐? 의인 많은 나라에 쳐들어 가면 결코 이기지 못한다 가자!"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의로운 여인으로 인하여 국난(國亂)을 면했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되는 것은 군대나 경찰이 많고 무기가 넉넉하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의인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 오늘의 사해(死海)가 되었읍니다. 의인은 곧 나라의 요새(要塞)요 포대(砲臺)요 국방(國防)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복을 받는 것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손의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신 5:9-10)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이 1620년에 예배의 순결과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성경 한 권만을 들고 대서양 바다를 건너와서 처음에 예배당을 짓고 경건한 신앙 생활로 출발하여 국가를 건설하고 지금도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엄숙히 서약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 나라도 오늘의 빈곤과 멸시에서 해방을 받고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 주려면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다 같이 양심적이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의인들이 많이 일어날 때만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옛날 애국 청년 이사야에게 들려 주었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탄식 소리는 오늘날 민족 중흥 도상에 있는 우리 겨레의 심금(心琴)에 울려 육박해 오는 산 말씀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흔연히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
(마태복음 6 : 25-33)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변천되어 갑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원시사회에서 봉건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로, 인간학적으로는 형이상학적 인간에서 신학적, 수학적, 생물학적으로 변천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같이 시대가 변천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 그 때 그 때마다 시대의 중심점은 다릅니다. 즉, 고대 스파르타는 실질 강건(實質剛健), 아테네는 그릭 문화, 마게도니아는 세계 통일, 이어서 민족 대이동, 중세의 금욕주의, 신권주의, 십자군 전쟁, 문예 부흥, 신대륙의 발견, 종교개혁, 산업혁명 내지 금일에 원자시대에 이르렀읍니다.

특히 오늘 전 세계는 양대 사상 진영으로 투쟁하고 있읍니다. 노예냐, 자유냐, 허위냐, 정의냐, 무자비냐, 박애냐, 유물이냐, 유신이냐, 곧 공산주의냐, 기독교냐의 양대 사상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특히 우리 조국은 이 공산주의의 불법 침략을 받아 고귀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의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염원인 남북 통일과 조국 광복은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싸움이 또다시 계속되려 하고 있지나 않은가 생각됩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승리는 자

유와 안식과 생명이 되나 패배는 수치와 노예와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크게 경제전, 무력전, 사상전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읍니다. 싸움터는 무력의 승부를 결정하는 곳이나 무력만이 전쟁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일, 전쟁이 싸움터에서 무력으로만 결정된다면, 앗시리아는 영원히 제국이 되었을 것이요, 나폴레옹은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어야 할 것이겠읍니다마는 전쟁은 총검 이상의 전쟁이 있으니, 곧 사상전입니다. 이 사상전이 곧 최후 승부의 진정한 무기라는 것을 긴 역사는 증명합니다.

손자(孫子)가 "전쟁에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바와 같이 과연 인류의 공적(共敵)인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 주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8·15 이후 우리 민족 사상에 불 같은 세력으로 일어난 공산주의, 곧 자칭 신민주주의니 진보주의니 하는 그 주의(主義)의 근본 이론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공산주의는 유무상통(有無相通)하고 적게 일하고도 잘 살며 교육과 진료는 무료로 해주고 능력에 의하여 일하고 요구에 따라 받으며 또 계급타파 등이라 하여왔읍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교묘한 감언이설과 모략 선전에 기만되어 실로 개인이 무가치한 개죽음과 부락이 전멸되고 강산이 초토화되는 민족 백년 대계의 일대 과오를 범한 사실을 통탄하여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0세기 역사의 중심 문제가 되는 양대 사상, 곧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개략적(概略的)이나마 재인식하여 내일의 결전을 위하여 정신의 재무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공산주의의 기원의 연혁부터 살핀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란 말은 모두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초기에 생겼다고 봅니다. 곧 1832년 불란서의 사상가 짱시에르(Joncieres)는 사회주의란 말을 최초로 그의

잡지에 사용했고, 공산주의란 말은 그 이듬해 영국의 사상과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이 처음 사용하였읍니다. 그후 자본주의의 급진적 발달로 인하여 사회는 자본 계급과 무산 계급(無產階級)의 현저한 차로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될 때 독일에는 칼 맑스(Karl Marx), 영국에는 프레드릭 엥겔스(Fredrich Engels)가 일어나서 1848년 소위 공산주의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부터 공산주의 핵심은 나타나게 되었고 금일의 공산주의란 말은 이 맑스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맑스주의란 무엇인가? 간단히 요약해서 한 마디로 말한다면 경제적 노동 가치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사회철학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유물사관에 의하면 사회 변천은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과 소비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하고, 다른 요소는 전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도 유물 철학자들이 제창한 일개 과학적 체계를 세운 철학이므로 그들에게도 도덕관, 인생관, 우주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사상을 박멸하고 승리하자면 그보다도 우월한 사상이 아니고서는 최후의 승리를 획득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상과 대립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상은 어떠한 사상일까? 이는 성경 속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곧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진정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고는 공산주의 사상을 이길 다른 사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후르시쵸프(Khrushchev)도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가 아니라 기독교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면, 이 양대 사상의 원리를 개략적이나마 분별하여 고찰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산주의는 유물론(唯物論)

곧 우주의 근본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유물론은 물심(物心)의 분

간을 무시하여 마음의 현상까지도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에 치중하기 때문에 인간은 물리적, 생리적 현상과 심리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 현상까지도 물질의 작용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혼도 없고, 우주에는 신(神)도 없고, 오직 자연법칙만이 있으며 인간 역사는 물질의 관계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유물론의 결론은 물질과 인간과의 차이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목적의 분간도 없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기독교는 창조론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령(生靈)을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되었읍니다. 분명히 성서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살전 5:23)의 삼요소로 되었음을 가르칩니다. 곧 몸은 물질이니 이를 위하여 정치, 경제, 과학 등이 있고, 혼은 이성(理性)이니 이를 위하여 도덕, 철학, 예술 등이 있고, 영(靈)은 생명인바 이는 종교,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결코 인간이 물질만이 아님을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 이성적, 도덕적, 생리적 견지에서 냉정히 고찰할 때 알 수 있는 영적 존재자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생명, 노력, 변화, 선택, 성장, 법칙, 목적 등은 결코 물질의 소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철학가는 "세계를 다 주어도 진리란 두 글자와는 바꾸지 않겠다"고 하였고, 영국인들은 "세익스피어(Shakespeare)를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석가는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였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읍니다.

인생과 우주를 물질로만 보는 유물론자들의 모순이 많은 중에 특히 의식에 대하여, 이성에 대하여, 과학에 대하여 도덕적 법칙에 대하여 일대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공산주의는 인간 우상론

곧 그들도 이상(理想)의 활동을 인정하여 이보다 더 좋은 행복한 이상 세계가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궁극에 있어서 이상도 또한 물질에서 파생하는 바 물질 세계가 규정하고 지도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을 완전히 실천에 구현(具現)시킴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으로 환경을 개량함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교육을 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제도를 고치고, 경제를 윤택하게 한다면, 이 사회는 돈도 무용(無用)하고, 도적도 죄도 없고, 만민균일적(萬民均一的)인 이상적 복지사회가 오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육을 시키면 모두 성현군자(聖賢君者)가 될 줄로 알았던 것이 반대로 영리한 이기주의자만이 늘어가고, 과학을 발전시키니 20세기 살인문명 과학만이 팽창하여 가고, 제도를 고치니 그 제도를 이용하여 잔인한 악은 숨쉴 사이도 없이 만연되어 가고, 경제를 윤택케 하니 향락과 사치와 음란과 방종은 도(度)를 가하여 정신 도덕은 극도로 부패하여 가는 사실을 우리는 여실히 목도(目睹)하고 있읍니다. 이에 있어서 기독교는 물론 교육, 과학, 경제를 무시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들의 크나큰 과오는 인간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창조론(神創造論)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으며"(롬 3:10)라고 하였으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고 하였고,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 29:2)고 하였읍니다. 과연 죄에서 해방없이 사회의 해방은 없으며 각자의 신생활(新生活) 없이 사회 행복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사회혁명보다 먼저 자아의 정신혁명, 인격혁명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잘 드는 칼은 강도의 손과 의사의 손에 쥐여졌을 때 그

사용도와 가치가 너무나 차이가 있읍니다. 교육, 과학, 제도, 경제도 마음이 올바른 양심적인 사람이 운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헌법이나 정당 정강(政黨政綱)이 나빠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이 그릇되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의 간디(Gandhi)는 먼저 자아혁명, 가정혁명, 사회혁명을 가르쳤읍니다.

3. 공산주의는 무신론

곧 그들은 미개한 시대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뇌성(雷聲) 등에 대한 인간의 공포심에 근거해서 이런 자연력을 인격화하여 신(神)으로서 공상(空想)하는 것이라 하였읍니다. 또 자본주의의 결과로 생겨진 생활고(生活苦)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생겨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노동자로 하여금 곤란한 현실에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자본가의 양심을 마비시킨다고 하여 종교는 아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자본주의가 없어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생활고가 없어지면 종교는 자연히 필요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기독교는 인간은 종교적 동물로서 종교는 미개한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엄연히 있는 것이며, 종교는 인간의 환난 때만이 아니라 행복한 때에도 희열과 감사의 정(情)으로 신(神)을 경배하는 것이며, 또한 인간은 도덕적 동물로서 선(善)을 탐구하여 양심적 생활을 동경하는 중에서 종교가 있으며, 또 인간이 인간 문제, 우주 문제, 내세(來世)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중에 종교가 있고, 또 인간 생활을 각 방면에 풍부 윤택하게 하겠다고 하는 데에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그렇게 피상적으로 간주함은 유물철학에 중독된 까닭인 것입니다.

맑스주의 이론 중 최대 약점은 그 종교론에 있읍니다. 대개 권위에는 과학, 법률, 종교의 세 방면이 있다면 참 종교를 이해하려면, 주관적 독

단론에 치우친다든지 일방적인 선전에 도취됨은 타당치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신론(有神論)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증거로써,

첫째는 종교론적 논증이니, 곧 각자의 종교적 경험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알 수 있읍니다. 철인 둘케임(E. Durkheim)은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 하였고, 미국의 모(某) 여행가는 세계 일주를 하고서 "군함과 대포 없는 나라는 봤지만 종교 없는 나라는 못봤다"고 말했읍니다. 또한 마틴 루터(M. Luther)는 "모든 사람은 참 신이 아니면 거짓 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읍니다.

둘째로 도덕적 논증이니 곧 개인의 양심과 윤리감은 신(神)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칸트(Kant)는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고 내 마음에는 도덕률 곧 양심이 있다"고 했읍니다. 이 양심은 신(神)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째로 심령적 논증이니, 곧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고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합니다.

네째로 우주론적 논증이니, 곧 모든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최고 유일성을 가진 만족한 근원이니, 즉 하나님이십니다. 집에는 가장(家長)이 있고, 나라에는 왕이 있고,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섯째 목적론적 논증이니, 곧 우주가 질서와 계획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 우주에는 목적과 지식을 가지신 이가 만든 것을 알 수 있으니 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시골길에 한 교인과 무신론자인 청년이 하나님의 존재 문제로 말씀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읍니다. 물론, 이 기독교인은 신의 존재를 주장하였고, 또한 다른 청년은 신이 있다고 함은 어리석은 자의 망상일 뿐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더운 여름날 쨍쨍한 햇볕이 어느듯 구름으

로 가리우고 금방 무엇이 내릴 것 같은 후덥지근한 지루한 갈을 걷던 두 사람 중 무신론자는 마침 자기의 주장을 바로 실증(實證)하려는 듯 자기가 앉아 쉬는 머리 위에 밤나무를 가리키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큰 밤나무에 그리고 저 굵은 가지에 저렇게 작은 열매를 맺게 하였으며, 저기 밭의 가느다란 호박넝쿨에는 저렇게도 큰 호박을 열게 하는가?"라고 물었읍니다. 그러나, 이 교인이 채 그 말을 받기도 전에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 이 밤나무 가지를 흔들어 밤송이가 청년의 머리에 떨어졌읍니다. 따갑다고 하는 청년에게 교인으로 ·하여금 명답을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밤나무 가지에 이 큰 호박을 열게 하셨더라면 아마도 너나 내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더랍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어디에나 있어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실체론적 논증이니, 곧 인간은 실재자에 대한 관념을 가졌으니 세계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에 대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실재(實在)가 있으면 관념이 있고 관념이 있으면 실재가 있다는 법입니다.

아크리시 모리슨(Acressy Morrison)은 과학자가 신(神)을 믿는 일곱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첫째, 우리는 확고한 수학적 법칙으로 이 우주가 대이공학적 지성(大理工學的知性)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운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둘째, 생명이 그 목적을 성취하는 자원은 우주에 편만한 지능의 표현이다. 세째, 동물의 지능은 그에게 본능을 부여한 선한 창조주를 부인할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네째, 사람은 동물 본능 이상의 이성을 가졌다. 다섯째, 놀라운 유전원질(遺傳原質)의 현상 가운데 모든 생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배려되어 있다. 여섯째, 자연 배려에 있어서 우리는 무한한 지혜만이 그토록 정밀한 생물간의 생존균형을 예견(豫見)하고

예비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일곱째, 사람이 신의 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신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모든 과학자가 죽을 때, 공통적인 말로 "알면 알수록 모르고 두려움이 있을 뿐이다"고 했고, 아인슈타인(Einstein)도 "나는 수학, 과학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했으나, 나는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은 확실히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물질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다"고 했읍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Voltaire)도 최후 임종시에는 신을 찾고 죄를 고백하였다는 사실은 무신론자에게 일대 경종이 아닐 수 없읍니다.

4. 공산주의는 도덕적 회의론

역사가 변천하고 과학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인간 사회에 참 도덕이 개인과 국가의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은 지나간 역사가 능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물론, 맑스주의도 도덕을 부정치는 않으나, 그 도덕관이 저열(低劣)함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도덕은 사회의 본능이다"고 했고, 또 "도덕은 동물적 본능이다. 도덕은 생식 본능과 같은 성질이라"고 하여 도덕률의 내용을 이해(利害)라고 하였읍니다. 즉, 도덕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특별한 존엄을 인정치 않고 오히려 인간은 동물의 일종으로 보는 나머지 양심까지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폭력 혁명을 주장합니다. "뱀을 죽이려면 완전히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서 복수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독재 정치, 피의 정치, 학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6·25 때에 똑똑히 본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젊은 청년들

이 이 사상에 많이 가담을 합니까? 그 이유로는 청년 심리를 이용하여 사회 정의, 투쟁의 기쁨, 타협의 배척, 승리의 확신을 고취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뭇솔리니는 '20대의 청년으로서 공산주의 정열이 없는 자는 청년의 기백을 잃은 사람이고, 30대가 넘어서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읍니다.

공산 위성국가 중 한 곳의 국민학교 선생이 어린 아이들에게 며칠 후에 장학관이 오게 되었으므로 이 공산주의 광신자(狂信者)는 철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우리 집은 사람도 동물도 다 공산주의라고 대답하라"고 훈련을 시켰다 합니다. 그 후 장학관이 와서 물으니 한 어린이가 말하기를 "우리집 고양이 새끼는 민주주의 고양이야요" 하여서 그 이유를 물으니 "엊그저께 선생님이 말씀할 때에는 눈을 감았는데 그 때에는 공산주의였으나 눈을 뜨니 민주주의 고양이 새끼가 되더라" 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있어서 기독교의 도덕률은 십자가의 윤리입니다. 십자가의 윤리라 함은 곧 사랑입니다. 즉, 애신애인(愛神愛人)의 윤리입니다. 인류 사회는 모두가 사랑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타산과 이해와는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사랑은 과연 이해와 민족과 생사(生死)를 초월한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물리학만으로는 생리 관계(生理關係)를 다 말할 수 없고, 생리학만으로는 심리 현상을 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이 정치, 경제, 법률만으로 인간 사회를 진선미(眞善美)의 이상적 사회로 만들 수가 없으며, 또 도덕이나 예술만으로 신인합치(神人合致)의 이상향을 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 생명 있는 종교, 곧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윤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무한한 포용력과 가능력을 가진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원자력의 파괴력은 놀랄 만하나, 그러나 언쟁(言爭) 끝에 등을 돌려댄 부부(夫婦)를 화합케 하는 힘은 원자력이 아니라 오직 이

사랑의 힘뿐인 것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아이크는 “영적·도덕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원자탄은 터지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했읍니다.

5. 공산주의는 향락주의

그들은 인간이 사유(思惟)하든가 작시(作詩), 창작하기 전에, 먼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사회를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이 인간된 근본 성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내세를 부인하는 그들에게는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자나깨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요일 2:15-16)만 일삼는 것입니다. 과연 먹고 마시자 내일 일을 누가 아느냐 하는 이 현실 향락주의와는 기독교는 도저히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기독교는 신락주의(神樂主義)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금욕주의나 염세주의는 아닙니다. 오직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읍니다. 인간이 인간됨은 깨닫는 데 있고 감사할 줄 아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생사 간에 주(主)의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즉, 물질본위주의(物質本位主義)가 변하여 신본주의(神本主義)의 삶을 가르쳤읍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에게 내세(來世)를 약속하셨읍니다. 이 내세 신앙이야말로 우리들의 현실 생활을 참으로 의의있게 하고, 의와 사랑으로써 생활시키는 원인인 것입니다. 현세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내세 생활을 염원할 때에 이것은 도리어 현세의 생활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활은 땅 위에서 자아(自我)에는 정직과, 가정에는 순결과, 나라에는 무사(無私)와, 인류에는 박애적(博愛

的) 정신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맑스의 미래 역사에 대한 예언인 자본 축적, 자본 집중, 빈자 증대는 오늘에 와서 합리적 기업화, 노동자 사용법, 사회보장제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읍니다. 또한 맑스는 이상적 무국가론과 지상 낙원을 예언했으나, 오늘의 공산 진영 내의 국가들일수록 인간의 가장 귀한 자유마저 박탈한 무서운 독재국가들이며, 또한 무지와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소련에서는 맑스주의를 던진 지가 오래며, 맑스의 책은 한 치 이상의 먼지가 쌓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뱀의 꼬리'를 잡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놓으면 자기가 물려 죽게 되는 까닭입니다. 그들의 선전은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의 매력으로서 무지와 빈곤에 아첨하는 가증스러운 이론 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봉건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후진국가에서 매력과 관심이 되어 있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적으로 발전된 선진국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의 검은 대륙 아프리카와 동남 아시아에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너무 과대 평가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력한 것이며, 정의 없는 힘은 비난을 받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를 승리하려면 자체 내의 모순을 제거하고 자체 충실을 가져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독일의 서부 백림과 동부 백림은 좋은 교훈의 하나가 아니겠읍니까?

1848년에 발표한 공산주의 선언에서 첫 구절에 "한 괴물이 구라파를 횡행하고 있다. 이는 곧 공산주의 괴물이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공산주의는 괴물입니다. 이 사상이 가는 곳마다 부모 형제도, 동족 국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인, 방화, 파괴 등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행하고 있읍니다. 지금 구라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횡행하는 중 마침내 우

리 조국 삼천리 근역(三千里槿域)을 횡행하여 수많은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켰으며, 민족 문화재마저 앗아갔으며, 아직도 삼킬 자를 굶주린 사자와 같이 찾고 있읍니다. 이 괴물은 성경이 말한 옛뱀, 붉은 용, 사단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붉은 용은 갖은 악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읍니다. 이 붉은 용인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 승리하는 무기는 오직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뿐인 것입니다.

성서에서 본 세계의 운명
(요한계시록 17 : 1-18)

우리는 이제 역사상 커다란 전환기점을 넘어섰으며, 우리의 선조들이 일찌기 꿈꾸지 못했던 무기와 전쟁, 그리고 자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일 이와 같은 것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부심 때문에 또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의 혼란과 위기는 날마다 증가해 가고 있으며, 해결책이란 갈수록 어려워지고, 무기는 팽창해지며, 적대세력이 점점 증대됨에 따라 날마다 우리는 최대의 위협을 받는 시기에 가까와지고 있읍니다. 과연 '단추' 하나로 세계가 불에 타서 녹아버리는 현실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세계 정세의 사태의 조류는 자유 진영에는 점점 불리해지고 있으며, 전도(前途)에는 흑암한 구름만이 떠올라 가혹한 시련만이 가로놓인 것을 직시(直視)할 수 있읍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내일의 세계의 운명이 어찌될 것인가 하고 불안과 초조와 궁금 속에 사로잡혀 있읍니다.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수계시인 성서에서 예언된 세계 운명에 대하여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고 했고, 예레미야 30장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했읍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만으로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됨을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로 논해 볼까 합니다.

(1) 내적 증거

① 신관(神觀)의 분명. 세상 책들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막연한 것입니다. 유서(儒書)에서는 하나님을 천(天) 혹은 하늘이라 했고, 불경(佛經)에는 정령(精靈)이라 했고, 철학서(哲學書)에는 제일원리(第一原理)라 했읍니다마는 성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66권 가운데에 수많은 명사(名詞)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하나님은 영(靈), 하나, 아버지, 사랑, 크신 분, 의(義), 전능, 전지, 편재, 선(善), 거룩, 창조주, 내재(內在), 초월의 하나님이란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성서는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② 보편 타당성. 일반 서적들은 시대와 인종과 성별과 계급과 연령에 따라서 애독되는 책이 다릅니다마는 이 성서는 시대, 인종, 성별, 계급, 연령의 상관이 없이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애독되며, 또한 유교책이나 불교책과 같이 읽기가 어렵지도 않고 평이(平易)하지만, 그 속에 내

포된 진리는 역사, 시문(詩文), 예언, 철학, 신학, 웅변, 기도, 풍자, 음악, 연극, 비극, 병학(兵學), 율법, 노래, 설교, 경고 등의 광범한 진리가 들어 있는 세계 최고의 저서이며 보편타당성을 가진 책입니다.

③ 중심사상의 통일성. 성서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합하면 66권입니다. 저자는 구약이 26명, 신약이 8명(혹은 7명) 합하면 34명입니다. 기간은 구약이 1,500년간, 신약이 100년간으로 합하면 1600년 동안에 기록되었읍니다. 장소는 바벨론에서부터 로마 옥중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 안에서 기록됐읍니다. 저자들로 말하면 연령도, 성격도, 경험도, 직업도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단, 직업 하나만 말한다면, 이 저자 중에는 왕도 있고 제사장, 선지자, 어부, 의사, 세리, 학자 등 여러 가지의 직업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록한 66권의 중심 사상은 단 하나입니다. 즉, '메시야(Messiah)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만민을 구속하신다는 사상입니다.

④ 예언 성취의 확실성. 성서가 개인, 가정, 지방, 국가, 민족에 대하여 예언한 것은 무엇이나 모두 그대로 성취됐읍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사 7：14), 베들레헴에서 탄생(미가 5：2), 예수님의 수난(사 53：5), 엘리 집에 대한 화(禍)(삼상 2：30-36), 모압의 멸망(사 1：1-9), 에돔의 멸망(렘 49：17), 바벨론, 메대 파사, 헬라, 로마의 멸망(단 2：31-35) 등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읍니다.

⑤ 영원 존속(永遠存續)과 발전성. 정의와 진리는 다적(多敵)하다고 말한 바와 같이 성서는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을 받았읍니다. 성서를 읽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또 성서를 찢고 불에 태우고 했으나, 성서는 마치 봄철에 불을 치면 불씨가 튀여 불길은 더욱 널리 퍼지는 것과 같이 오늘날 성경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 없는 곳이 없으리만치 퍼져 있는 것입니다.

1963년까지 성경이 1,216개의 말(方言)(신구약 전권 번역은 231, 신약 290, 쪽복음 695)로 번역되었읍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유명하다 하는 책이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읍니까?

⑥ 위대한 감화력. 성서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으로서 이 성서를 읽는 사람마다 무한한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보면 인도적(人道的) 정치가가 되고, 음악가가 보면 성악적(聖樂的) 예술가가 되고, 창녀가 보면 회개하여 숙녀(淑女)가 되고, 불량자가 보면 신사가 되며, 절망자가 보면 영원한 소망을 얻는 위대한 감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성경이 보통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2) 외적인 증거

① 문학. 단테(Dante)의 신곡은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소재를 취한 것이며, 밀턴(Milton)의 실락원은 창세기를 인용한 것이고, 괴테(Goethe)의 파우스트는 아가서를 서술한 문학적 예술이라고 보겠읍니다.

② 극(劇). 인도 땅을 다 주어도 세익스피어(Shakespear)의 글과는 바꾸지 않겠다는 영국의 문호 세익스피어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성경에서 영감(靈感)을 얻었으며 성경을 재료로 한 것을 볼 수 있읍니다.

③ 시(詩). 테니슨(Tennyson), 부라우닝(Browning), 하이네(Heine) 등의 시도 성경에서 얻은 영감입니다.

④ 음악. 바하(Bach)의 마태수난곡, 헨델(Hädel)의 메시야, 모짜르트(Mozart)의 위령곡, 베토벤(Beethoven)의 장엄미사, 멘델스죤(Mendelssohn)의 엘리야 등 모두가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⑤ 조각. 도나텔로(Donbtello)의 다윗, 미켈란젤로(Michelangelo)의 모세의 성화, 라파엘로(Raffaello)의 성모 마리아 등의 주제가 성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⑥ 건축. 구라파나 미국 등 전 세계의 대사원이나 웅장한 교회 등의 건물은 성서를 직결하여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왕의 대관식, 대통령의 취임식에 성서로 교훈과 서약을 하며, 출생, 결혼, 장례식에서도 성서로 축복과 위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화에 있어서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작품은 왕 중 왕, 십계명, 벤허, 성의(聖衣), 장발장 등 성서를 중심한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읍니다.

(3) 명사(名士)들의 증거

글래드스톤(W. E. Gladstone)은 "나는 현대 세계 위인 중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 87명은 성서를 신봉(信奉)하는 자이다"고 했고, 죠지 와싱톤(George Washington)은 "하나님과 성서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했고,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은 "나는 성서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래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믿는다"고 했고,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는 "나의 사상과 문체(文體)에 추상(推想)될 만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일찍부터 성서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에게 주입시켜 주신 나의 양친의 혜택이다"고 했으며, 토마스 카알라일(Thomas Carlyle)은 "성서는 인류의 영혼으로부터 밝혀진 언어에 가장 진실한 발언(發言)이다"고 했으며, 존 러스킨(John Luskin)은 "내가 저작한 것에 어떠한 공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내 어머님께서 매일같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어 주시고 그것을 나에게 암송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했고, 페트릭 헨리(Patric Henry)는 "성서는 지금까지 인쇄된 모든 서적 전체에 대등된다"고 했고,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성서의 사람에 대한 서적으로서의 존재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이 없는 최대의 이익이다"고 했고, 뉴톤(Newton)은

"어떠한 세속의 역사에 있어서보다도 성경에 있어서는 보다 확정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했고, 괴테(Goethe)는 "인류의 지적(知的) 문화 또 자연과학이 발달 진보된다 해도 복음서(福音書)로부터 비쳐 나오는 숭고성과 도덕적 수련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화라 휀톤(Fara Fenton)은 "성서 안에 우리들은 인류에게 우주를 열고, 또 인류에게 그 자신의 비밀을 열어 주는 유일(唯一)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증언을 했읍니다.

2. 성서가 예언한 말세 징조

(1)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만 짓다가 망했다고 했읍니다. 이 때를 달리 요약해서 말하면 인구는 증가되고, 과학은 발달되고, 도덕은 부패하고, 영계(靈界)는 타락했던 것입니다.

(2) 재난의 시작

과학은 발달되고 교육기관은 증설되고 제도는 정비되어 간다지만 지상에는 빈곤과 혼란이 더해가고 천재지변은 날로 심해가는 형편입니다.

(3) 반종교의 시대

오늘날 철의 장막 안에서는 어느 나라나 종교가 핍박을 받고 있으며, 소위 자유 진영 안에서도 음성적인 핍박이 점점 노골화해 가고 있읍니다.

(4) 거짓 선지자가 나옴

사회의 혼란상을 틈타고 인간 심리를 이용하여 각지에 점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밤이 어두워지면 부엉이는 나오는 법입니다. 오늘날의 전 세계는 이와 같은 현상에 처해 있읍니다.

(5) 복음이 세계에 전파됨

선교사를 비롯해서 현대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이 없으며, 특히 우리 나라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마다 군목(軍牧)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 한국 땅 어느 곳에 복음이 안 간 곳이 없게 되었읍니다.

(6) 악이 점점 성해짐

지난날은 살인 강도 한 사람이 생기면 삼천리가 떠들썩했으나 지금은 한 집 식구 일곱 명을 도끼로 찍어 죽여도 동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구는 늘 어가고 먹을 것은 없는데 더러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악한 사람이 늘어갑니다.

(7) 사랑이 식어짐

1964년 여름에 홍수가 나서 한강 탁류 속에 돼지우리를 타고 떠내려오는 사람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더니 돼지새끼 하나 건져 가지고 나왔다 합니다. 과연 이 땅에는 사랑이 점점 매말라가고 있읍니다.

(8) 지식이 발달된다

인간의 지식이 발달되어 만들어낸 과학 문명은 실로 놀랄 만한 것입니다. 인공위성, 텔스타, 전자계산기, 거짓말 탐지기, 월세계 여행 등 우리는 지금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읍니다.

(9) 배신자가 나온다

죽은 스탈린(Stalin)이 신학교 중퇴자며, 이북 괴뢰정부의 간부의 한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은 배신자가 나온다는 말씀을 적중시키고 있으며, 그 밖에도 앞으로 많은 배교자(背教者)가 나올 것을 가리키고 있읍니다.

(10) 재물을 쌓아 둔다

현대인의 우상 중에 하나는 재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본주의, 신앙주의라 말은 하지만 실상 하나님이나 신앙보다 물질에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더 경주하며, 물질을 가지고도 선한 일에 쓸 줄 모르고 예금이나 매점(買占)이나 금을 사서 쌓아 두는 등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 두고 있읍니다.

⑾ 원통한 것을 풀지 않음

인심이 각박해져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시기, 모략, 중상 등으로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합니다. 오늘의 종교계의 지도자들도 화목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누구에게 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⑿ 정치 동향이 미묘해짐

소로킨(P. A. Sorokin)은 "19세기는 평화의 세기요"라고 했고, 러스킨(Ruskin)은 "20세기는 전쟁과 혁명의 세기라"고 말한대로, 현 세계는 조석으로 정치가 달라지는 격동하는 숨가쁜 때입니다.

⒀ 아이가 어른을 멸시

곤충인 개미나 벌이나 또 날아다니는 기러기의 사회도 상하를 알아보고 질서가 아직도 변치 않지만, 인간 사회는 날이 갈수록 인륜도덕(人倫道德)이 땅에 떨어져 주먹 센 아이들에게 어른은 점점 멸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읍니다.

⒁ 흉년과 기근이 든다

땅의 토질은 나빠지고 천시(天時)도 고르지 못하여 흉년은 들고 인구는 여전히 늘어만 가니 기근은 날로 심해갈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⒂ 질병이 많아진다

의사가 많아지고 제약 공장이 날로 늘어가는데, 환자도 역시 줄지 않고 늘어만 갑니다. 실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진찰과 입원을 못하지 현재 한국 사람만 하더라도 엄밀하게 따져서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16) 젊은이는 이상한 것을 보고 노인은 이상한 꿈을 꾼다

전신전화의 발달과 제트기와 원자력의 발달은 참으로 세계를 단축시켜 놓았으며, 오늘의 젊은이는 옛 노인 백년 산 것보다도 더 신기한 것을 보고 있으며 노인들은 이상한 꿈을 꾼다고 합니다.

(17)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다

2,000년 동안이나 주권을 잃고 유랑하면서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 핍박과 학살을 당해 오던 유대 민족이 1947년 5월 15일 독립을 했읍니다.

이 모든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고,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했읍니다.

3. 성서가 가르치는 국제 정세

(1) 정치 문제

스가랴 14장 14절 상반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라고 했읍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양단되어 싸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전쟁을 벌여 이스라엘이 되찾은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했읍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함락당할 것(로마의 베시파시아누스, 디도스, 후라비우스〔Vespasianus, Titus, Flavius〕장군이 인솔한 군대에게 함락을 당했으며,

이 때 죽은 유대인이 110만이고, 노예가 9만 7천 명)과 주후 130년에 예루살렘이 재차 멸망을 받을 것(로마의 하드리아누스〔Hadrianus〕가 침공하여 3년반 동안 짓밟아 50성과 985촌이 파괴되고 58만 명이 전사했음)과 그 후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이방 사람이 점령(현재 회회교도가 점령하고 있음)하여 마지막날이 찰 때까지 계속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독일, 한국, 중국 등의 분열도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6·25 때 16개국이 참전하여 수많은 젊은이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한의 38 장벽은 날로 굳어만 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수단, 방법만으로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교훈하고 있읍니다. 오늘 전 세계는 어떤 나라나 지리적이 아니면 사상적으로라도 실상 두 갈래로 쪼개져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마지막 때에는 세계가 두 갈래로 분열될 것을 말했읍니다.

(2) 경제 문제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세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세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고 했읍니다. 이 검은말은 마지막 날에 기근을 말하는 것이며, 검은색은 대단한 참상(慘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장 16-17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驚怯)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悶沓)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흉년의 기근상(飢饉狀)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오늘날 인구 폭발은 전 인류에의 무서운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이대로 가면 1990년에는 5천만의 인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40년 후에 세계 인구는 60억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계 정치 지

도자들은 가족 계획을 장려하지만 인구는 여전히 날로 늘어만 가고 있읍니다. 불란서의 드골도 "머지않아 구라파는 흑색 인종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 했고, 또 인종학자들은 600년 후에는 한 사람이 1평방미터($1m^2$)씩 차지할 것이다"라고 했읍니다. 여기서 나오는 식량 문제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3) 군사 문제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고 했읍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동원될 군인 수자를 의미합니다. 2만만이면 2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양대 진영으로서 각 나라에 군인의 수자는 놀라울 만큼 많이 소유하고 있읍니다. 자유 진영만 하더라도 나토(NATO, 북대서양동맹), 씨토(SEATO, 동남아군사동맹), 센토(CENTO, 중동군사동맹), 오·이·에스(OES, 남미주군사동맹) 등이 있으며, 공산 위성국에서는 왈소(Warsow, 북구위성국동맹)와 그밖에 이북 괴뢰, 중공, 월맹 등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날의 전쟁은 전면 전쟁으로써 세계 양대 진영의 군대가 동원되면 그 수자는 2만만, 즉 2억이 된다고 말씀했읍니다.

(4) 과학 문제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고 했으며, 17-18절에는 "이 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고 했으며, 19절에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고

했읍니다.

여기에 "전갈과 같은 꼬리", "말들과 그 탄 자들", "뱀과 꼬리" 등은 모두 마지막날에 나타날 현대전의 물질 살인 문명 과학 무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유도탄은 뱀과 같이 생겼으며 '자주빛'이 원자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의 세계 여러 나라가 만들어 저장해 놓은 핵무기만으로도 인류의 삼분의 일을 죽이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상고시대(上古時代)에 스미로돈이란 짐승이 있었는데, 이(齒)가 커서 모든 짐승을 마구 잡아먹어 제 이빨이 무제한으로 커져서 마침내 제 이빨을 주체할 수가 없어 이 까닭에 스스로 죽어 씨가 말라져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과 같이 오늘날 인간 자체가 자아낸 과학무기가 마침내 인류의 전멸을 자초(自招)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 2 차대전 중에 58개국이 2,191일(6년)간 싸워 서로 발사한 전 에너지량은 3메가톤 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 저장한 핵은 수천 메가톤이 됩니다.

버트란드 럿셀(Bertrand Russell)이 평화재단에서 제시한 수자에 의하면, 미·소 양국이 저장한 핵무기의 폭발력은 티엔티(TNT) 화약으로 2,200억톤에 달하며, 이는 이차대전시에 사용했던 폭발력 전량(全量)을 매일 사용하면서 146년간을 계속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합니다. 또한 '에아졸' 신경 가스폭탄 13만 개를 축적하고 있는 이는 지구 육지의 8배에 해당하는 45,500만 평방마일 면적 위의 생물을 전멸시키는 살육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방위문제연구소 존 펠프스(Dr. John Pelps)박사는 우발전쟁(偶發戰爭)의 원인으로써, ① 기술적인 과오(레이다의 오인〔誤認〕, 핵폭발의 사고 및 군명령의 오해), ② 인간의 상규(常規)를 벗어난 정신착란, ③ 한정 전쟁(限定戰爭)의 예기치 않은 확대, ④ 외교상, 군사상의 오산(한국 전쟁, 수에즈운하 전쟁) 등을

지적했읍니다. 또 1653년 2월 11일 소련 국방성 마리노브스키는 우발로 해서 세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이유를 ① 핵무기를 적재하고 있는 비행기의 추락 사고, ② 미사일의 사고 폭발, ③ 레이다의 오인, ④ 장교의 정신착란 등을 말했읍니다. 성서에 3차대전은 "아마겟돈"전쟁이라고 말씀했읍니다.

5. 성서가 가르치는 세계 운명

1804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1808년에 모스크바를 침략했고, 1815년 6월에 워터루 전쟁(Waterloo War), 즉 모든 민족 전쟁(러시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의 연합국과 나폴레옹군과 싸움)에서 패전하므로 세계 역사는 변했읍니다. 그후 비엔나(Viena)에서 국제 회의가 개최된 후 여기서 금일의 국가의 지도가 그려졌다고 보겠읍니다.

영국은 어떠한 강대국이라도 두 나라가 힘을 합하면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2개국 표준주의를 채택해 왔읍니다(Low Country's boundary is England's boundary). 그러므로, 영국은 베네룩스(Benelux) 삼국(벨기에, 화란, 룩셈부르크)을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즉, 힘의 균형 유지하는 데 주력해 왔읍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은 이 조정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해왔읍니다.

그후 범(凡)게르만, 범 슬라브, 또 불란서가 출현하여 타국의 힘이 강해졌고, 영국의 힘이 약해져서 제1차대전은 터졌읍니다. 전후 얼마 후에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후(1차전 후 20년만에) 독일이 화란을 침입하므로 2차대전이 발발했읍니다. 영국은 2차대전 후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패전국(敗戰國)이나 다름없게 되었읍니다. 2차대전 후에 유독 소련과 미국만이 강대국이 되었읍니다. 이 양극화(兩極化)된 국가는 조정자가 없게 되었읍니다. 1945-1947년의

기간에 동구라파 7개국이 적화(赤化)되어 버렸읍니다. 또 그들은 한국과 인도지나를 적화하려고 손을 뻗쳤읍니다. 이 때 1950년에 색다른 조정자(調整者)가 나타났읍니다. 그것은 핵(核)이라는 조정자였읍니다. 크라이비(J. K. Kreibig)는 "전쟁은 정치적인 우위성(優位性)에서 발생한다"고 했읍니다. 핵 50메가톤 폭탄 한 개는 880마일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완전히 죽고, 3분의 1은 점차로 죽고, 3분의 1은 살아도 그로 인해서 머지않아 죽는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300마일을 핵 4개로 전멸시킬 수 있고, 와싱톤에서 카나다까지 4,000마일을 핵 5개로 전멸시킬 수 있으므로 전 미국은 15개로 충분하며 소련도 15개면 전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비유로 열국(列國)들이 핵전쟁을 감행한다면, 계시록에 가리킨 지구의 3분의 2가 진멸된다는 말씀을 생각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평화는 공포의 균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핵전쟁은 심히 어렵고, 다만 국지전(局地戰)이며, 제한 전쟁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쟁은 주기적으로 일어났음을 엿볼 수 있읍니다. 1919년에 세계 제1차대전, 1939년에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나고, 이제 또 머지않아 큰 전쟁을 내다보며, 이번에는 중동이나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터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키신저(A. H. Kisinger)는 "핵무기와 외교정치의 시대"라고 했읍니다.

작고한 케네디는 신개척정책(New Frontier Policy)을 내세우고 "힘은 힘으로, 협상은 협상으로"라는 신축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전략공군(S. A. C.)에는 80개처에 원자핵 폭탄을 적재한 2,100여대의 비행기가 대기하고(700대는 공중 감시, 700대는 지상대기, 700대는 완전 휴식)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60년 유엔 총회

에서 후르시쵸프가 구두를 벗어들고 두들기며 "현재 이 시간에도 700대의 원자폭격기가 우리들의 머리 위에 돌고 있다. 만일 기계 고장으로 폭탄이 떨어지면 우리는 전멸이다"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8,000마일 떨어져 있읍니다. 대륙 간 30분이면 날아갑니다. 액체연료를 사용해서 42피트의 어름(氷中) 속에도 다닐 수 있는 핵잠수함 포라리스(Polaris, 16대의 원자로켙을 싣고 있음)가 1964년까지 43척이 있었읍니다. 유도탄이 뜨면 자동 경종이 울려 5분이면 통보, 5분이면 준비, 15분에 날아가서 목표물을 파괴시키는 30분간의 전쟁이라고 하니, 과연 오늘의 세계 운명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중대한 해답을 하기에는 누구나 두려워 떨면서도 내릴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에 어떤 정치가, 사상가, 과학자, 군략가의 말보다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해답은 요한계시록 17장 1-18절에 특수계시로써 예언되어 있읍니다. 그 중에도 3-5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고 했읍니다. 여기 음녀는 옛날에 망한 바벨론, 로마제국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현재 음녀와 같이 신앙(양심)도 순결도 정절도 없이 오직 돈과 사치와 음란으로 타락한 기독교 국가, 즉 민주주의니 하는 물질 지상을 부르짖는 자본주의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은 양심도 영혼도 하나님도 모르고 오직 포악과 잔인과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무신유물론국가(無神唯物論國家)의 상징인 공산주의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主)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터이요"(14절)라고 하심은 어린 양은 부활하신 산돌되시는 예수님, 즉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음녀나 짐승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두 가증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다 철학적으로 볼 때에는 돈(物質), 색(女子), 권력을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것을 먼저 잡느냐는 순서 문제입니다. 음녀(자본주의)의 세계에서는 돈을 먼저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짐승(공산주의)의 세계에서는 권력을 먼저 잡으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처음에 음녀가 짐승을 탔으나 후에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16절)고 했읍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유수(有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어린 양이 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고 했읍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 것과 같이 세상 나라도 유한한 것입니다. 현 세계는 시간적인 세계며 영원한 세계는 아닙니다. 이는 신학자뿐 아니라 과학자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태양의 열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마지막에는 냉각해지고 말 것이며, 또 영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단 2:44)고 하심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확신하며 깨어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군림할 그 날을 기다려야 하겠읍니다.

※ 이 설교의 통계 수치와 과학 발명의 기록들은 1965년 당시의 기록입니다.

1965년 4월 1일 초판발행
1987년 5월 1일 3판발행
지은이 • 임 동 선
펴낸이 • 박 연 서
펴낸곳 • 양 서 각
등록 • 1959. 12. 5. (11-14)
121. 마포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표전화 • 312-5451
지로번호 • 3004375